

# 북한의 노동력 구조

1996년 1월 31일(초고) 제출함.

3월 14일 작성완료함.

# 목 차

I. 서론 -----	1
(1) 조사·연구의 목적 -----	1
(2) 조사·연구의 방법, 범위, 자료, 한계 -----	2
II. 노동력 공급원으로서의 인구 -----	3
1. 연도별 인구구조 -----	3
2. 성별 인구구조 -----	10
3.연령별 인구구조 -----	14
4.지역별 인구구조 -----	25
5.가구별 인구구조 -----	34
6.직업별 인구구조 -----	35
7.학력별 인구구조 -----	40
8.국내 인구 이동 -----	44
9.출생과 사망 통계 -----	44
10. 혼인과 이혼 통계 -----	48
11. 북한의 향후 인구동향 -----	49

Ⅲ. 노동력 구조 -----	53
1. 노동력 공급구조 -----	53
(1) 경제활동인구 추이 -----	53
(2)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	55
2. 노동력 배치(“고용”) 구조 -----	58
(1) 산업구조와 공업구조의 변화 -----	58
(2) 농업 노동력 구조 -----	60
(3) 산업별 노동력 배분 구조 -----	61
(4) 성별 노동력 구조 -----	63
(5) 주요 기업소 및 공장별 노동력 배치 현황 -----	68
3. 교육 수준과 노동력의 질적 구조 -----	72
4. 보건수준과 노동력의 질적 구조 -----	75
5. 과잉 노동력 규모 -----	77
6. 임금 구조 -----	82
7.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 -----	87
8. 1990년대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	88
Ⅳ. 평가 및 결론 -----	91

# 북한의 노동력 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 I. 서론

### 1. 조사·연구의 목적

노동력(labour power) 또는 노동능력(capacity for labour)이라는 것은 인간의 유기체 속에, 즉 살아있는 인간 속에 존재하여 인간이 그 어떤 사용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이용하는 육체적 및 정신적인 능력의 총체를 의미한다.<sup>1)</sup> 이 때 노동력이나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노동연령에 이르러 노동에 참가하고 있거나 참가할 수 있는 인구를 노동력 자원이라고 한다. 물론 노동력 자원에서의 노동연령은 자국의 인구수, 생산력의 발전수준, 근로자들의 물질복지조건, 노동력의 수요공급관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규정된다.

북한에서는 '16살부터' 노동하는 나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sup>2)</sup> 16세 이상의 공민<sup>3)</sup>으로서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북한의 인구가 노동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에서는 법률상 노동연령의 상한선인 정년퇴직연령을 남성은 만 60세, 여성은 만 55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sup>4)</sup>, 정년퇴직연령을 넘은 사람은 북한의 노동력 자원의 범위에 넣지 않아야 할 것이다. 노동연령은 하한선만 정하고 상한선을 정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 국가들의 통례이다. 북한에서는 16세 이상의 모든 인구를 노동가능인구 또는 생산연령인구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노동가능인구라 함은 총인구 중에서 만 14세 미만을 제외하고 학생 및 주부, 무능력자 등을 제외하여 대략 총인구의 40% 내지 45% 정도가 된다고 볼 때,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실업자가 없는 나라'라면 16세 이상의 모든 노동가능인구가 전부 취업하고 있는 완전고용(full employment)

---

1) Karl Marx, Capital -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Frederick Engels(ed.), The Process of Circulation of Capital Volume 1 ( New York : International Publishers, 1967), p.164.

2) 북한 사회주의헌법(1992년 4월 9일 수정) 제2장 제31조 ; 물론 북한 사회주의노동법(1978년 4월 18일 제정) 제2장 15조와 1972년 12월 27일 개정된 신헌법 제2장 29조에서는 노동연령을 '만 16살부터'라고 규정하지만, 1992년 수정된 헌법에서는 '16살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5장 제66조에서 북한의 모든 공민은 17살 이상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북한 민법(1990년9월 5일 제정) 제1편 제2장 제20조에서 공민의 성인 나이도 17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 동조항에서 16살에 이른 자는 자기가 받은 노동보수의 범위 안에서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에서 16살에 이르지 못한 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연소근로자의 보호연령을 16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연령은 16세 이상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노동연령의 하한선은 남한이 15세, 일본이 15세, 미국이 16세, 중국이 16세로 규정하고 있다.

4) 북한 사회주의노동법(1978년 4월 18일 제정) 제8장 제74조 : 국가는 남자 만 60살, 여자 만 55살에 이른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속노동연한을 가진 경우에 연로연금을 준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은 연로보장의 수혜연령을 남성은 65세, 여성은 60세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또한 사실상 16세 미만의 소년들이나 65세이상의 노인들은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다.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취업의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직장에 강제로 배치당하고 있다. 심지어 16세 미만의 연소자들(특히, 고등중학생)마저 노동전선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본 조사·연구 보고서는 일단 북한의 주장대로 노동가능인구 또는 생산연령인구의 하한선을 16세로 규정하지만, 부분적으로 통계자료의 이용상 15세 이상도 그 하한선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개념 규정하에 본 조사·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노동력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노동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노동력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명(究明)한 업적은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더 늦기 전에 본 보고서는 장차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북한의 노동력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본 보고서는 북한의 인구통계를 기초로 노동력 접근법을 이용하여 노동가능인구를 포착함으로써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 이행하든지, 자체붕괴로 이어지든지, 대외경제협력이나 남북경제협력으로 나오든지, 통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든 흡수·통합으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통일 주도세력으로서의 남한체제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현재 북한의 노동력 구조를 조사하여 노동시장정책 및 사회통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조사·연구의 방법, 범위, 자료, 한계

본 보고서는 노동력 공급원으로서의 인구통계를 기초로 노동력 접근법을 이용하여 북한의 노동력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방법은 국가마다 노동력에 관한 정의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또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가입국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력 조사에 관한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sup>5)</sup> 의해 노동력 접근법(labour force approach)을 채택하여 사실(fact)을 중심으로 가구별 조사(household survey)의 고용통계자료를 기초로 노동력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노동력 또는 노동능력이란 노동력 접근법에 의하여 대상기간 중의 활동상태와 비활동상태의 이유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라고 분류하고 이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하여 노동력이라고 정의하며, 노동력을 노동가능인구 또는 생산연령인구로 제한한다.

노동력 또는 노동능력의 연구분야에서 인구통계는 기본적인 요건이자 노동력 구조의 통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는 노동력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인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전개된다. 이 글에서 인구통계란 인구정태통계<sup>6)</sup>와 인구동태통계<sup>7)</sup>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그 양자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필자는 보기 때문이다. 즉, 인구는 일정불변한 것이 아니고 인구를 구성하는 개인의 출생이나 사망, 이동 등의 요인들에 의해 양과 질이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노동력 구조의 분석내용은 노동력 공급구조, 노동력 배치(고용) 구조, 교육수준과 노동력의 질적

---

5) 1940년부터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노동력 접근법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로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여 노동력을 파악하고 있다 ; 김수곤, 노동공급과 실업구조(서울:한국개발연구원,1991), p.19.

6) 인구정태통계란 끊임없이 변동하는 인구를 일순간에 단절하여 정지상태로 관찰한 것으로 예를들어 인구 규모와 성별·연령별·혼인상태별·학력별·직업별·산업별·출생지별·가구수별·주택수별 인구구조 등을 말함.

7) 인구동태통계란 인구의 크기나 구조를 달라지게 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들어 출생·사망통계, 인구이동통계, 혼인·이혼 통계, 혼인·전출에 의한 분가 통계, 건축착공통계 등을 말함.

구조, 보건수준과 노동력의 질적 구조, 과잉노동력 규모, 임금 구조, 노동생산성 지표 등 크게 7개 분석영역으로 전개하여 1990년대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를 토대로 노동력 재생산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북한의 노동력 구조를 조사·연구하는 본 보고서는 1980년대말 이후 1990년대의 시기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의 자료는 국내에서 통일원, 국외에서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의 연구를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보고서의 한계는 북한체제의 폐쇄성과 관제이데올로기의 조작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자료 및 통계수치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의 노동력 구조에 관하여 선행연구의 결과물이 거의 없는 관계로 노동력 구조를 객관화시키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sup>8)</sup> 이러한 한계점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본 보고서는 귀순자의 수기나 면담, 동독·구소련·중국 등의 사례를 부분적으로 염두(念頭)해 두고 분석했지만 그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는 계속 수정·보완·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 II. 노동력 공급원으로서의 인구

인구구조란 일정한 시기에 주어진 일정한 지역의 인구구성을 말한다. 이 인구 구조에는 성별 구조, 연령별 구조, 취업별 구조, 민족별 구조, 계급별 구조, 도시농촌별 구조, 문화정도별 구조, 종교별 구조 등이 포함된다<sup>9)</sup>. 이 때 인구는 모든 사회생활의 기초이고 출발점이기 때문에 인구구조는 일정한 사회의 정치·경제·문화 등의 발전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이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외부세계에 인구통계자료의 공개를 엄격하게 제한해왔고, 인구구조에 대한 북한당국의 통계자료도 그 신빙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북한의 인구자료들이 사회안전부(MPS:Ministry of Public Security)에 의해 관리되는 공민등록제도를 통해서 주로 수집한 것이지만, 북한당국이 1992년 1월에 예정된 유엔인구기금(UNFPA)의 기술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처음 공개한 인구 센서스자료에<sup>10)</sup> 본 조사·연구의 보고서는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본 보고서는 국내(특히, 남한의 통일원)에서 발표된 자료를 참조하고 있다.

### 1. 연도별 인구구조

#### (1) 총인구와 인구증가율 추계현황

---

8) 이 점에서 두 명의 공동연구자에 의해 조사·연구된 본 보고서는 연구기간의 제약성으로 인해 제Ⅲ장 노동력 구조의 몇 가지 부문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는 도중에 많은 논쟁점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행상태 그대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관한 토론은 앞으로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될 것이고, 그 토론의 결과에 따라 본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폐기·수정·보완·발전될 것이다.

9) 허척신 주편, 조복민 역, 정치경제학사전 하권(서울: 도서출판 중원문화, 1991), p.403.

10)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북한의 인구와 노동력-그 현황과 의미-', 한국경제신문사 부설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2), pp.202-229.

북한은 폐쇄사회이기 때문에 해외로 이주하거나 외국에서 이입(移入)되는 인구수가 총인구수에 비하여 아주 미미하다. 따라서 인구증가율과 인구자연증가율은 거의 같다고 하겠다. 물론 인구의 자연증가수는 출생자수와 사망자수의 차이와 같으므로 인구자연증가율도 역시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로서 계산할 수 있다.

1944년 5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한 ‘조선총독부의 인구조사잠정결과’에 의하면 남북한 13개도의 총인구는 25,917,881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11) 또한 1945년 9월에 발족된 ‘미군정청의 남조선(38도이남) 지역 및 성별 인구자료’에 의하면, 1944년 5월 1일 현재 남한의 총인구는 15,879,110 명(61.3 %)으로 나타나고 있다. 12) 이 두 자료를 단순비교로 관련시켜 보면, 1944년 5월 1일 당시 북한의 총인구는 약 10,038,771 명으로 추정할 수 있고 남북한 총인구의 약 38.7 %가 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북한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데 1944년 5월 1일 당시 북한 총인구가 약 1,003만 9천명이었던 것이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1946년에는 북한 중앙통계국 발표대로 925만 7천명으로 격감하였다. 그리고 1946-1957년 동안의 11년간에 북한 총인구는 거의 인구 증가없이 약 90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로 분석될 수 있겠으나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첫째, 1945년 8월 15일 - 1948년 12월 31일 기간 동안에 북한으로부터 월남한 동포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 기간 동안 월남동포수는 기록상 약 969,015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13)

둘째, 1950년 - 1957년 동안에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한의 인구 손실이 심각하였기 때문이다. 즉, 1949년의 북한 인구는 <표 1>에서 보듯이 962만 2천명이었는데 한국전쟁의 휴전년도인 1953년에는 849만 1천명으로 격감되었거니와 그 이후 1956년까지 935만 9천명으로 북한의 총인구수는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1954년이후 계속된 3 %의 인구증가율은 1960년까지 이어져 북한의 총인구가 약 1천만명대로 들어섰으며, 1961년 - 1970년 기간 동안에도 2 - 3 %의 높은 인구증가율로 1970년에는 1천400만명대의 총인구수를 보여주고 있다. 특이하게도 북한의 중앙통계국 발표에 의한 1961년 - 1970년 기간의 2 - 3 %의 인구증가율이 갑자기 1970년에 5.80 %로 아주 높게 나타나더니 1971년에 1.87 %로 떨어지고 계속해서 1987년까지 공식적으로 1 %대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 중앙통계국 발표의 총인구수는 1972년 - 1975년에는 1천500만명대를, 1979년 - 1982년에는 1천700만명대를, 1986년 - 1987년에는 1천900만명대를 보여줌으로써 1970년 이후 꾸준히 3년 간격으로 2천만명대의 인구증가를 이상하게도 규칙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그 이유는 1970년 이후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인구통계를 산출해낼 수 있는 국가기관이나 국가능력(재정력, 기술력 등) 또는 기초자료 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선전적인 목적하에 의도적으로 통계수치를 조작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다. 이 점에서 유엔인구기금(UNPF:UN Population Fund)으로부터 14) 재정 및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1989년에 발표된 북한의 중앙통계국 발표자료는

11) 이 당시 극비로 취급되었던 조선총독부의 ‘인구조사잠정결과’는 총인구 25,917,881 명(남자 : 12,892,250 명, 49.7 % ; 여자 : 13,025,631 명, 50.3 %) 중에 한국인이 25,133,352 명(97.0 %)이고, 일본인이 712,583 명(2.7 %)이며, 기타 외국인이 71,946 명(0.3 %)으로 보고 있음. ; 통계청, 통계로 본 광복전후의 경제·사회상, 1993.8. pp. 1-4.

12) 위의 책, p.2.

13) 이 기간 동안의 월남동포수 중 북한거주월남자는 648,784 명(67.0 %), 중국거주자로서 북한을 경유하여 월남한 자는 13,476 명(1.4 %), 만주거주자로서 북한경유월남자는 306,755 명(31.6 %)으로 되어 있음 ; 통계청, 위의 책, p. 9.

14) 유엔인구기금(UNPF)은 1989년 이전에 UNFPA(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였음.

부정확하고 의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북한의 공식적인 인구통계자료로서 최초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고 하겠다.

한편 북한의 중앙통계국 발표와 달리 남한의 통일원 추정치는 1965년의 총인구수 1,225만2천명으로 1981년까지 2 - 3 %의 인구증가율을 꾸준히 보여 1981년의 총인구수 1,853만5천명이고, 1982년 - 1993년 기간에는 인구증가율이 1 %대로 유지하여 1993년에 총인구수가 2,264만5천명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통일원과 같은 국가기관인 통계청의 수치는 약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남한 통계청의 추정치는 1974년 총인구수가 1천545만명부터 자료제시가 되고 있는데, 통일원과 마찬가지로 인구증가율이 1974년 - 1981년까지 2 - 3 %대를, 1982년 - 1993년까지 1 %대로 유지한 점은 같으나 1981년 1천858만명, 1993년 2천305만명으로 각 연도별의 총인구수가 모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의 중앙통계국 발표자료로 추정한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의 자료는 1960년의 총인구수 1,056만8천명에서 시작하여 1974년 1천614만명으로 증가될 때까지 계속 2 - 3 %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다가 1975년 총인구수 1천648만명에서부터 1995년 2,348만7천명으로 증가될 때까지 1 %대로 인구증가율이 유지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표 1>에서 나타난 각 통계자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북한의 총인구와 인구증가율은 1990년도에 총인구수가 2천100만명대이고, 1995년 현재 총인구수는 2천300만명대로, 인구증가율은 1982년 이후 1995년 현재까지 1 %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추정의 결과에 의하면, 북한은 지금 인구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국가에 속한다고 하겠다.

1990년대 에 들어와서 북한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총인구는 1991년 2천96만명, 1994년 2,151만4천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수치에는 중앙통계국이 발표한 1970이후 1987년까지에서 처럼 군인수가 포함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95년 현재 남한의 통일원 자료에 의한 북한의 총인구는 2,326만 1천명(니콜라스 에버스타트의 자료 : 2,348만7천명)이고, 인구증가율은 1.34 %(니콜라스 에버스타트의 자료 : 1.76 %)이다.

<표1> 총인구와 인구증가율

(단위 : 천명, %)

연도	총인구				인구증가율			
	북한 중앙통계국	남한		니콜라스 에버스테트	북한 중앙통계국	남한		니콜라스 에버스테트
		통일원	통계청			통일원	통계청	
1946	9,257				-			
1947	9,379				1.32			
1948	9,500				1.29			
1949	9,622				1.28			
1950	9,339				-2.94			
1951	9,057				-3.02			
1952	8,774				-3.12			
1953	8,491				-3.23			
1954	8,780				3.40			
1955	9,070				3.30			
1956	9,359				3.19			
1957	9,703				3.68			
1958	10,048				3.56			
1959	10,392				3.42			
1960	10,789			10,568	3.82			2.63
1961	11,049			10,850	2.41			2.64
1962	11,308			11,140	2.34			2.81
1963	11,568			11,457	2.30			2.97
1964	11,988			11,802	3.63			3.08
1965	12,408	12,252		12,172	3.50			3.18
1966	12,760	12,584		12,565	2.84	2.71		3.27
1967	13,112	12,924		12,983	2.76	2.70		3.34
1968	13,465	13,274		13,424	2.69	2.71		3.42
1969	13,817	13,633		13,892	2.61	2.70		3.51

연도	총인구				인구증가율			
	북한 중앙통계국	남한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북한 중앙통계국	남한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통일원	통계청			통일원	통계청	
1970	14,619	14,002		14,387	5.80	2.71		3.37
1971	14,892	14,436		14,881	1.87	3.10		3.02
1972	15,166	14,870		15,338	1.84	3.01		2.70
1973	15,439	15,304		15,759	1.80	2.92		2.39
1974	15,713	15,783	15,450	16,140	1.77	3.13		2.08
1975	15,986	16,172	15,850	16,480	1.74	2.46	2.59	1.85
1976	16,248	16,572	16,250	16,788	1.64	2.47	2.52	1.75
1977	16,511	16,971	16,700	17,084	1.62	2.41	2.77	1.72
1978	16,773	17,371	17,130	17,379	1.59	2.36	2.57	1.73
1979	17,036	17,770	17,580	17,682	1.57	2.30	2.63	1.78
1980	17,298	18,170	18,030	17,999	1.54	2.25	2.56	1.74
1981	17,536	18,535	18,580	18,314	1.38	2.01	3.05	1.67
1982	17,774	18,900	18,900	18,623	1.36	1.97	1.72	1.69
1983	18,113	19,265	19,220	18,941	1.91	1.93	1.69	1.71
1984	18,453	19,630	19,550	19,267	1.88	1.89	1.72	1.73
1985	18,792	19,995	19,888	19,602	1.84	1.86	1.73	1.73
1986	19,060	20,340	20,238	19,944	1.43	1.73	1.76	1.73
1987	19,346	20,685	20,601	20,292	1.50	1.70	1.79	1.75
1988	-	21,030	20,977	20,650		1.67	1.83	1.79
1989	-	21,375	21,367	21,023		1.64	1.86	1.83
1990	-	21,720	21,773	21,412		1.61	1.90	1.87
1991	20,960	22,028	22,193	21,815		1.42	1.93	1.87
1992	-	22,336	22,610	22,227		1.40	1.88	1.87
1993	-	22,645	23,050	22,646		1.38	1.95	1.84
1994	21,514	22,953		23,067		1.36		1.80
1995	-	23,261		23,487		1.34		1.76

주 : 1) 북한의 중앙통계국 발표는 각년도 연말인구가 기준이며, 남한의 통일원과 니콜라스 에버스타트의 발표는 각년도 연앙인구가 기준임.

2) 북한의 중앙통계국 발표에서 1970년 이후 총인구는 군인들의 수가 제외되었음. 1991, 1994년의 통계수치는 최근 보도자료에 의한 것임.

3) 남한의 통일원 발표는 1965년 이후의 최근 자료에 근거한 추계이고, 통계청의 자료는 한국 주요경제지표(1995.9), p.5에서 추계한 총인구를 필자가 인구증가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것임.

4) 니콜라스 에버스타트의 발표는 1960-1990년까지의 추계되어 계산된 인구동태의 통계로써 연도별, 인구 및 증가율별,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에 근거한 것임.

자료 :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북한의 인구동향과 전망 ; 한국경제신문사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 통일원, 남북한 주요경제지표 1991, 남북한 사회 문화 지표 1991, 남북한 주요 통계 비교 1991, 북한개요 1992, 남북한경제지표 1992·1993, 북한의 제3차7개년계획 종합평가 1994, 남북한 경

제지표1995 ; 한국은행조사제2부, 1991·1992·1993년 북한 GNP 추정결과 팜플렛 ; 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1995.9),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5.11.). ; 조선일보, 1996년 2월 8일자 16면.

## (2) 총인구 증가율 및 인구밀도

북한이 발표한 총면적은 122,762 km<sup>2</sup>인데, 북한의 인구밀도는 <표 2>를 통해서 보듯이 1 km<sup>2</sup>당 1965년 101명으로써 1981년까지 2-3 %의 인구증가율과 함께 꾸준히 성장하여 143명에 이르고, 1982년 이후 1995년 현재까지 인구증가율의 1%대로 유지되면서 1995년에 인구밀도가 190~19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총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문제는 북한지역이 전형적인 산간지대로 그 면적의 약 80 %가 산악지역인데 해발 2,000 m 이상이 되는 산도 약 60여개가 넘거니와 해발 평균고도가 440 m에 이르고 있으며, 북한의 평야들은 가장 큰 재령이나 평양, 준평원까지 500 km<sup>2</sup>가 넘지 못하는 작은 것들로서 경지면적이 충분한 식량공급을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sup>15)</sup> 점이다.

이 점에서 곧 북한의 높은 인구성장률 추이에 따라 국토면적이나 경지면적당 북한의 인구밀도가 결코 낮다고만 할 수 없다. 북한의 인구증가율과 인구밀도의 급증현상은 북한경제에 빈곤의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해준다. 북한당국은 지역별 인구구조와 관련하여 지역별 인구밀도를 조절하기 위한 '강제이주 정책'이나 도시와 농촌의 인구 및 도시화 증가율(1953-1987)과 관련하여 도시인구 집중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인구이동 통제정책' 등으로 인구문제의 해결을 강압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

15) 통일원, 1992 북한개요, p.20. ; 중앙일보사, 북한소사전(월간 중앙 1991년 신년호 별책부록), p.28. ; 고태우, 통일·미리 가 본 북녘땅(서울 : 우아당, 1992), p.16.

<표 2> 총인구 증가율 및 인구밀도

(단위 : %, km<sup>2</sup>)

증가율과 밀도 연도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북한 중앙통계국	남한		니콜라스 에버스태트	북한 중앙통계국	남한		니콜라스 에버스태트
		통일원	통계청			통일원	통계청	
1965	3.50	-		3.18	101	99		99
1966	2.84	2.71		3.27	104	103		102
1967	2.76	2.70		3.34	107	105		106
1968	2.69	2.71		3.42	110	108		109
1969	2.61	2.70		3.50	113	111		113
1970	5.80	2.71		3.37	119	114		117
1971	1.87	3.10		3.02	121	118		121
1972	1.84	3.01		2.70	124	121		125
1973	1.80	2.92		2.39	126	125		128
1974	1.77	3.13	-	2.08	128	129	126	131
1975	1.74	2.46	2.59	1.85	130	132	129	134
1976	1.64	2.47	2.52	1.75	132	135	132	137
1977	1.62	2.41	2.77	1.72	134	138	136	139
1978	1.59	2.36	2.57	1.73	137	142	140	142
1979	1.57	2.30	2.63	1.78	139	145	143	144
1980	1.54	2.25	2.56	1.74	141	148	147	147
1981	1.38	2.01	3.05	1.67	143	151	151	149
1982	1.36	1.97	1.72	1.69	145	154	154	152
1983	1.91	1.93	1.69	1.71	148	157	157	154
1984	1.88	1.89	1.72	1.73	150	160	159	157
1985	1.84	1.86	1.73	1.73	153	164	162	160
1986	1.43	1.73	1.76	1.73	155	167	165	162
1987	1.50	1.70	1.79	1.75	158	169	169	165
1988		1.67	1.83	1.79		172	171	168
1989		1.64	1.86	1.83		175	174	171
1990		1.61	1.90	1.87		178	177	174
1991		1.42	1.93	1.87		179	181	178
1992		1.40	1.88	1.87		182	184	181
1993		1.38	1.95	1.85		185	188	184
1994		1.36		1.80		187		188
1995		1.34		1.76		190		191

주 : 총인구와 인구증가율은 앞의 <표 1> 를 근거로 한 것이고, 인구밀도의 계산에서 총면적은 북한이 발표한 122,762 (정확한 발표면적은 122,762.338 km<sup>2</sup>)를 근거로 필자가 북한 중앙통계국, 남한의 통일원과 통계청, 니콜라스 에버스태트의 인구밀도를 참조하여 계산한 것임.  
자료 : 앞의 <표 1> 자료와 같음.

## 2. 성별 인구구조

### (1) 총인구 및 성비

북한의 발표에 의한 <표 3>의 북한의 총인구 및 성비(총인구 중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1946년에 남자인구수와 여자인구수가 거의 같았으나 1949년 이후 한국전쟁 기간을 통해 급격하게 북한의 성비가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둘째로, 6·25 한국전쟁 이후 1953년에 남자 인구수가 398만2천명으로 한국전쟁의 발발이전 해인 1949년 남자인구수 478만2천명에 비해 급감하였으나,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여자인구수는 1949년 484만명에서 1953년 405만9천명으로 덜 감소함으로써 여자인구수가 남자인구수를 앞서기 시작하여 급기야 북한의 성비가 1975년 이전까지 90.0명대 이상을 유지하다가 1975년 이후부터 1987년까지 80.0명대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1970년 이후의 총인구수는 군인수를 제외한 것이지만 결국 한국전쟁이후 1987년까지 북한당국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성비는 계속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로, 한국전쟁 이후 1956년-1970년 동안에 남자 인구증가율은 평균 약 3.49%, 여자 인구증가율은 평균 약 2.97% 정도로 급증함에 따라 이 기간 동안에 북한의 성비도 1956년 91.6명에서 1970년 95.1명으로 급증되기도 했으나, 1970년 이후 북한의 남녀 인구증가율이 1%대로 급감하면서 북한의 성비도 동시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로, 1975년 이전까지 북한의 남녀 인구증가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1975년 이후 1987년까지 남자 인구증가율은 여자 인구증가율에 비해 그 감소율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발표자료에 의한 성비는 적어도 한국전쟁 1956년 이후 1987년까지 여성의 노동력 비율이 점차 높게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북한의 여성은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는 폭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런 논의는 나중에 북한의 성별 노동력 구조에 관한 분석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1987년 이전까지 북한의 성비가 여자 100명당 남자수로서 여자인구수가 남자인구수보다 더 많아진다는 사실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즉 1987년 이전까지 북한의 여성은 적당한 결혼대상의 남성을 구하지 못해서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북한의 여성은 약 25세-28세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다음 <표 4>에서 보듯이 1987년 이후 1995년 현재까지 북한의 성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북한의 여성도 결혼연령이 23세-24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그만큼 남녀의 배우자 선택의 기회가 넓어졌음을 알 수 있겠다.<sup>16)</sup>

---

16)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p.596. ; 이태영, 북한여성(서울 : 실천문화사,1988), p.44. ; 손봉숙, 북한의 여성(서울 : 공보처,1993), p.21.

<표 3> 총인구 및 성비(1946-1987)

( 단위 : 천명, %, 명 )

연도(연말 기준)	총인구	남자	남자인구 증가율	여자	여자인구 증가율	성비(性比)
1946	9,257	4,629	-	4,628	-	100.0
1949	9,622	4,782	1.08	4,840	1.49	98.8
1953	8,491	3,982	-4.58	4,059	-1.77	88.3
1956	9,359	4,474	3.88	4,885	2.67	91.6
1960	10,789	5,222	3.86	5,567	3.27	93.8
1965	12,408	6,067	3.00	6,341	2.60	95.7
1970	14,619	7,127	3.22	7,492	3.34	95.1
1975	15,986	7,433	0.84	8,553	2.65	86.9
1980	17,298	8,009	1.49	9,289	1.65	86.2
1982	17,774	8,194	1.14	9,580	1.54	85.5
1985	18,792	8,607	1.64	10,185	2.04	84.5
1986	19,060	8,710	1.19	10,350	1.61	84.2
1987	19,346	8,841	1.49	10,505	1.49	84.2

주 : 성비는 여자인구 100명당 남자인구수임.1970년 이후의 총인구수는 군병력수를 제외한 것임.

자료 : 통일원, 북한개요 1992, pp.24-25. :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Washington, D.C.Center for Internationa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1990),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북한의 인구동향과 전망(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p.20. ; 한국경제신문사 부설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서울:한국경제신문사,1992), p.203.

(2) 성별인구추계

앞의 <표 3>에서 살펴본 북한의 발표자료에 나타난 성비는 1970년 이후 1987년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 <표 4>에서 남한의 통일원과 니콜라스 에버스테트(Nicholas Eberstadt)의 추정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는 1985년 이후부터 1990년까지 두 자료의 평균치 약 98.0대 이상으로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한의 통일원 자료에 의하면, 1992년에 북한의 성비(남자/여자×100 %)는 100.0(남자수 1,116만8천명, 여자수 1,116만8천명)으로 균형을 이룬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후 1993년부터 성별 인구는 남자가 1,132만6천명으로 여자 1,131만8천명보다 많아지면서 1995년 현재 남자의 수 11,643천명, 여자의 수 11,618천명으로 성비는 100.2로 남자수가 여자수보다 점점 높아지고 있다.

<표 4> 성별 인구 추계

(단위 : 천명, 명, %)

연도	북한의 중앙통계국			남한의 통일원			니콜라스 에버스테트		
	남자	여자	성비	남자	여자	성비	남자	여자	성비
1965	6,067	6,341	95.7	5,990	6,262	95.6	5,894	6,278	93.9
1970	7,127	7,492	95.1	6,883	7,119	96.7	7,012	7,376	95.1
1975	7,433	8,550	86.9	7,996	8,176	97.8	8,070	8,410	95.9
1980	8,009	9,289	86.2	9,023	9,147	98.6	8,838	9,161	96.5
1985	8,607	10,185	84.5	9,963	10,033	99.3	9,650	9,952	97.0
1986	8,710	10,350	84.2	10,140	10,200	99.4	9,823	10,121	97.1
1987	8,841	10,505	84.2	10,318	10,367	99.5	10,000	10,292	97.2
1988				10,496	10,534	99.6	10,181	10,468	97.3
1989				10,673	10,702	99.7	10,370	10,652	97.4
1990				10,851	10,869	99.8	10,568	10,844	97.5
1991				11,009	11,019	99.9			
1992				11,168	11,168	100.0			
1993				11,326	11,318	100.1			
1994				11,485	11,468	100.1			
1995				11,643	11,618	100.2			

주 : 1) 북한의 중앙통계국 발표에는 1970년 이후 군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수임.

2) 남한의 통일원 발표에서 성비 = 남자 / 여자 × 100 %임.

3) 니콜라스 에버스테트의 자료에는 군인들도 포함된 추계치며,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수임. 이 때 자료는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Research, U.S. Bureau of the Census의 컴퓨터 인구구조 모델로 추정한 것임.

자료 :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센터, 앞의 책, pp.20-22. ; 통일원, 남북한 사회·문화지표 1991, p.30., 북한개요 1992, p.25. ; 공보처, 도표로 본 북한의 오늘, p.38.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1995.11.), p. 172.

### (3) 지역별 성별 인구구조

1987년의 경우 북한의 지역별 남녀인구와 성비는 <표 5>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의 지역별 성비는 차이가 거의 없는 지역이 평북의 향산군으로 100.0 명이고, 그 다음이 자강도 88.6 명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에 비해 지역별 성비가 가장 낮은 곳이 개성직할시 78.9명이고, 그 다음이 양강도 79.9 명으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 이외의 모든 지역별 성비는 80-85 명으로 골고루 분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북한의 지역별 성비가 높게 나타난 자강도는 ‘정밀기계공업지역’으로서 특성을 갖고 있으며, 금·은·동·연·아연·흑연·모리브덴·안티몬·중석·인회석·명반석·석회석·철광석·무연탄 등의 광물이 많이 매장되어 ‘지하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1990년대초인 현재 자강도의 강계·만포·희천을 묶은 ‘강계·희천공업지구’는 북한의 정밀기계공업의 약 50 %가 이 곳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강도의 지방산업도 310여개 중소공장에서 생필품 1,300여종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이 점에서 자강도 전천군에서 ‘정춘실 운동’이 발상되었는지도 모른다). 그와 동시에 자강도는 ‘내륙고산지대’로 평균 해발 804 m이며 총면적의 98 %가 산지로 되어 ‘광업’과 수력발전·무기생산이 주력산업으로 발전되고 있다는<sup>17)</sup> 점에서 남성 노동력이 아주 필요해지기 때문에 성비가 좀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의 지역별 성비가 낮게 나타난 개성직할시와 양강도는 재미있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데, 일종의 ‘국경도시’로서 ‘김일성 우상화 선전중심지역’이란 점이다. 즉, 개성직할시는 남한에서 대표단의 입북이나 관문점을 가려면 반드시 개성을 통과해야 하듯이 양강도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잇닿아 있는데, 특히 도청소재지인 혜산시가 중국과 인접하여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지역은 ‘국경도시’라는 특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북한당국은 김일성과 그의 가계 우상화를 선전하는 지역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즉 개성직할시에는 ‘자남산’의 정상에 거대한 김일성 동상을 세워 휴전선 이남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하며 김일성-김정일의 현지도, 사적비, 개성방직공장 유래비 등으로<sup>18)</sup> 확산 ‘선전지역’이고 양강도는 김일성일가의 ‘혁명사적지’이자 ‘혁명전적지’로 조작되는가 하면 양강도의 지명도 김정숙군(김일성의 전처)·김형직군(김일성의 부)·김형권군(김일성의 숙부) 등으로 짓는가 하면 학교 이름도 김정숙여자고등학교·김형권고등학교·강반석(김일성의 모)혁명유자녀학원 등으로 명명함으로써 온통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 선전지역’으로 만들어 놓았다.

---

17) 중앙일보사, 북한소사전, 앞의 책, pp.34-35. ; 배기찬, 신북한지리지(서울 : 다나, 1994), pp.192-195.

18) 고태우, 앞의 책, pp.39-40.

<표 5> 지역별 남녀 인구와 성비(1987)

(단위 : 천명,명)

성 별 인 구 및 성 비 지역	남자	여자	소 계	성 비(명)
평양특별시	1,070	1,285	2,355	83.3
개성직할시	146	185	331	78.9
남포직할시	330	385	715	85.7
평안남도	1,222	1,431	2,653	85.4
평안북도	1,086	1,294	2,380	83.9
자강도	543	613	1,156	88.6
황해남도	873	1,041	1,914	83.9
황해북도	652	757	1,409	86.1
강원도	546	681	1,227	80.2
함경남도	1,161	1,386	2,547	83.8
함경북도	919	1,084	2,003	84.8
양강도	279	349	628	79.9
향산군	14	14	28	100.0
총계	8,841	10,505	19,346	84.2

주 : 평양특별시, 개성·남포직할시는 도 수준의 행정구역으로 이 지역의 인구에는 주변농촌 지역의 인구까지 포함되어 있음.

자료 :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북한의 인구동향과 전망, 앞의 책, p.9.

### 3. 연령별 인구구조

#### (1) 1986년말 북한의 연령별 인구구조

북한은 해방이후 처음으로 1986년말 인구에 관한 연령별 인구수를 다음 <표 6>과 같이 발표하였다.<sup>19)</sup> 이 자료에 의한 1986년말 북한의 연령별 인구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1986년말 북한의 총인구 19,060,100 중 북한 노동연령의 하한선인 16세를 기준으로 보면, 16세 미만의 인구수가 6,915,367 명(36.3 %)이고 16세 이상의 인구수가 12,144,733 명(63.7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는 연소자층의 비중이 작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1970년대 이후 북한사회의 전반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저출산과 저사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1986년말 16세 기준으로 연령별 남녀인구수는 16세 미만의 연소자층은 남자수가 3,518,415명이고(총

19)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op.cit., p.25.

인구의 18.5%), 여자수가 3,396,952명(총인구의 17.8%)으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지만 그 수는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다. 그에 비해 16세 이상의 인구층은 남자가 5,192,051명(총인구의 27.2%), 여자는 6,952,682명(총인구의 36.5%)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16세를 기준으로 이러한 남녀수간의 역전현상은 1970년대 이후 북한당국이 결혼연령의 상향조정, 강제피임수술, 기타 피임방법의 활용 등을 통하여 인구억제정책을 실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1986년말 현재에 16세이상의 인구층에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 이후까지 여성 노동인구는 북한의 주요 노동력을 이룰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6세의 연령의 성비 94.5 명을 기준으로 16세 이하의 성비가 6세-15세 103.3명, 4세-5세 104.1명, 1세-3세 103.8명, 0세 105.1명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점점 높아지나 16세 이상의 성비는 17세-54세 77.5명, 55세-59세 63.3명, 60세-89세 53.1명, 90세-99세 33.6명, 100세이상 16.7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점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추론할 수 있다.

<표 6> 1986년말 연령별 인구수

(단위 : 명)

연령구간(세)	총인구수	남자	여자	성비
0	387,300	198,423	188,877	105.1
1-3	1,204,785	613,739	591,046	103.8
4-5	923,078	470,713	452,365	104.1
6-15	4,400,204	2,235,540	2,164,664	103.3
16	544,355	264,536	279,819	94.5
17-54	9,817,072	4,286,768	5,530,304	77.5
55-59	574,469	222,639	351,830	63.3
60-89	1,197,352	415,227	782,125	53.1
90-99	11,436	2,874	8,562	33.6
100+	49	7	42	16.7
총 계	19,060,100	8,710,466	10,349,634	84.2

주 : 1-3세는 탁아소, 4-5세는 유치원에 6-15세는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에 등 록한 나이이고, 16세는 의무교육을 마치고 노동력에 포함되는 나이임. 더구 나, 북한의 연령구간의 구분은 북한당국의 편의에 따라 설정됐다고 UN의 전문가들은 말함.

자료 : 북한의 중앙통계국(CSB)이 1989년 유엔인구기금(UNFPA)에 제공한 발표 자료임. ;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북한의 인구동향과 전망, p.26. ; 한국경제신문사 부설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p.204.에서 재인용하되 약간 틀을 변형한 것임.

## (2) 1990년 연령별 인구구조

1990년 북한의 연령별 구조의 추계는 다음과 같이 <표 7>를 통해 볼 수 있다. 이 <표 7>의 자료에 의한 1990년 북한의 연령별 인구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16세를 기준으로 1990년 북한의 연령별 인구구조는 총인구수 21,411,618명 중 16세 미만이 6,725,185명(31.4%), 16세 이상이 14,686,433명(68.6%)으로 나타나 1986년말에 비해 더욱 더 16세 이하의 인구가 감소되고, 16세 이상의 인구가 증가되어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16세 미만의 인구가 1986년말에 36.3%였던 것이 1990년에 31.4%로 감소되고, 16세 이상의 인구가 1986년말에 63.6%였던 것이 1990년에 68.6%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그 하나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북한 인구의 출생률과 사망률이 점차 감소되고 있음을 함의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북한의 노동가능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둘째, 역시 16세를 기준으로 1990년 북한의 연령별 남녀인구구조는 16세 미만의 인구에서 남자수가 3,425,411명(총인구의 16.0%), 여자수가 3,299,774명(총인구의 15.4%)으로 나타나고, 16세 이상의 인구에서 남자수가 7,141,539명(33.4%), 여자수가 7,543,894명(총인구의 35.2%)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1990년 16세 미만의 성별인구는 남성 인구가 1986년말 총인구의 18.5%에서 1990년 총인구의 16.0%로, 여성 인구가 1986년말 총인구의 17.8%에서 1990년 총인구의 15.4%로 각각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균형된 분포를 유지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16세 이상의 성별인구는 남성인구가 1986년말 총인구의 27.2%에서 1990년 총인구의 33.4%로 급증하는데 비해서 여성인구가 1986년말 총인구의 36.5%에서 35.2%로 약간 감소하지만 거의 정체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체적으로 북한의 노동가능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여성노동인구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남성의 노동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그리하여 1990년 북한의 성비는 16세 102.9명을 기준해서 6-15세 103.6명, 0-5세 104.2명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아지고, 16-29세 101.9명, 30-49세 99.6명, 50-64세 76.1명, 65-79세 57.9명, 80세 이상 39.0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런 성비의 경향은 전체 성비가 1986년말 84.2명에서 1990년 97.5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통계상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표 7> 1990년 연령별 인구구조

( 단위 : 명, % )

연령구간	연 양 추 계 인 구			
	총인구	남자	여자	성비
0	493,552	252,079	241,473	104.4
1-4	1,808,316	922,501	885,815	104.1
5-9	2,046,355	1,042,714	1,003,641	103.9
10-14	1,949,407	991,168	958,239	103.4
15-19	2,531,943	1,283,591	1,248,352	102.8
20-24	2,658,012	1,342,791	1,315,221	102.1
25-29	2,041,534	1,024,064	1,017,470	100.6
30-34	1,875,169	939,853	935,316	100.5
35-39	1,380,927	691,191	689,736	100.2
40-44	1,100,728	548,727	552,001	99.4
45-49	900,998	446,532	454,466	98.3
50-54	757,991	345,978	412,013	84.0
55-59	620,179	269,532	350,647	76.9
60-64	450,494	181,397	269,097	67.4
65-69	329,689	125,824	203,865	61.7
70-74	223,830	82,942	140,888	58.9
75-79	137,636	47,668	89,968	53.0
80+	104,858	28,398	75,460	39.0
합 계	21,411,618	10,567,950	10,843,668	97.5

연령인구	연앙 추계 인구			
	총인구수	남 자	여 자	성비
0-3	1,865,960	952,299	913,661	104.2
4-5	862,949	439,987	422,962	104.0
0-5	2,728,909	1,392,286	1,336,623	104.2
6-15	3,996,276	2,033,125	1,963,151	103.6
16	469,646	238,215	231,431	102.9
16-29	6,803,934	3,433,497	3,370,437	101.9
16-64	13,890,420	6,856,707	7,033,713	97.5
17-26	5,191,462	2,623,183	2,568,279	102.1
17-54	12,350,101	6,167,563	6,182,538	99.8
15-49	12,489,311	6,276,749	6,212,562	101.0
60+	1,246,507	467,229	779,278	60.0
합 계	61,895,475	30,880,840	31,014,635	99.6

주 : 1) 총출산률 2.5명, 조사망률 5.6(1,000 명당), 총출생수 516,276, 자연증가율 18.6(1,000명당), 조출생률 24.1(1,000 명당), 순이민률 0, 총사망수 118,947, 인구성장률 1.9 %

2)

구 분	전 체	남 자	여 자
기대수명(세)	69.0	65.6	72.0
영아사망수	15,894	9,019	6,875
영아사망율(명:1,000명당)	31.3	34.7	27.8
평균연령(Median age)	23.4	22.8	24.0

3)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Reaserch, U.S. Bureau of the Census에서 북한이 발표한 자료로 추정된 것을 필자가 틀을 약간 수정함.

자료 : Nicholas Eberstadt, 북한의 인구와 노동력-그 현황과 의미-, 한국경제신문사 부설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앞의 책, pp.208-209.

### (3) 북한의 연령별 인구 추이에 따른 인구구조의 유형 변화

지금까지의 논의는 1986년말과 1990년 중반의 연령별 인구구조와 성비구조를 통해 북한의 연령별 인구구조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은 무엇보다도 전체 인구변화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의 통일원에서 추정된 다음 <표 8>를 통해 북한의 연령별 인구구조의 유형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표 8> 북한의 연령별 인구 추이

( 단위:천명)

연령구간 (세) 연도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65	2,045	1,877	1,249	1,194	1,200	1,034	824	615	499
1966	2,084	1,860	1,346	1,204	1,196	1,062	860	649	518	437
1967	2,122	1,893	1,450	1,218	1,192	1,091	896	667	537	448
1968	2,160	1,926	1,562	1,221	1,192	1,119	934	723	556	458
1969	2,224	1,959	1,680	1,228	1,182	1,148	972	763	576	469
1970	2,234	1,990	1,808	1,235	1,176	1,177	1,012	804	596	480
1971	2,319	2,033	1,842	1,348	1,185	1,174	1,041	841	633	498
1972	2,404	2,076	1,877	1,460	1,195	1,170	1,070	879	670	517
1973	2,490	2,119	1,911	1,572	1,204	1,167	1,100	916	707	535
1974	2,575	2,162	1,945	1,685	1,213	1,163	1,129	954	744	554
1975	2,660	2,205	1,980	1,797	1,223	1,160	1,158	991	781	573
1976	2,634	2,290	2,023	1,831	1,334	1,170	1,155	1,020	818	609
1977	2,607	2,375	2,066	1,865	1,446	1,179	1,152	1,049	855	644
1978	2,581	2,459	2,109	1,900	1,557	1,189	1,149	1,078	892	680
1979	2,555	2,544	2,152	1,934	1,669	1,198	1,146	1,107	929	716
1980	2,529	2,629	2,195	1,968	1,780	1,208	1,143	1,137	966	752
1981	2,502	2,603	2,279	2,011	1,814	1,318	1,153	1,134	994	788
1982	2,476	2,578	2,363	2,054	1,848	1,429	1,162	1,131	1,023	824
1983	2,450	2,552	2,450	2,097	1,883	1,539	1,172	1,128	1,051	860
1984	2,423	2,527	2,532	2,104	1,917	1,649	1,182	1,126	1,080	896
1985	2,397	2,501	2,617	2,183	1,951	1,760	1,191	1,123	1,109	931
1986	2,387	2,476	2,592	2,267	1,994	1,794	1,300	1,133	1,106	959
1987	2,378	2,450	2,566	2,351	2,037	1,828	1,410	1,142	1,104	988
1988	2,369	2,424	2,541	2,436	2,080	1,862	1,519	1,152	1,102	1,016
1989	2,359	2,399	2,516	2,520	2,123	1,896	1,628	1,162	1,099	1,044
1990	2,350	2,373	2,491	2,604	2,165	1,931	1,737	1,172	1,097	1,072
1991	2,326	2,364	2,466	2,579	2,249	1,973	1,771	1,280	1,107	1,070
1992	2,302	2,355	2,440	2,554	2,333	2,016	1,806	1,388	1,117	1,068
1993	7,040			4,947			8,554			
1994	2,255	2,338	2,389	2,504	2,501	2,102	1,874	1,603	1,137	1,065
1995	6,924			5,065			8,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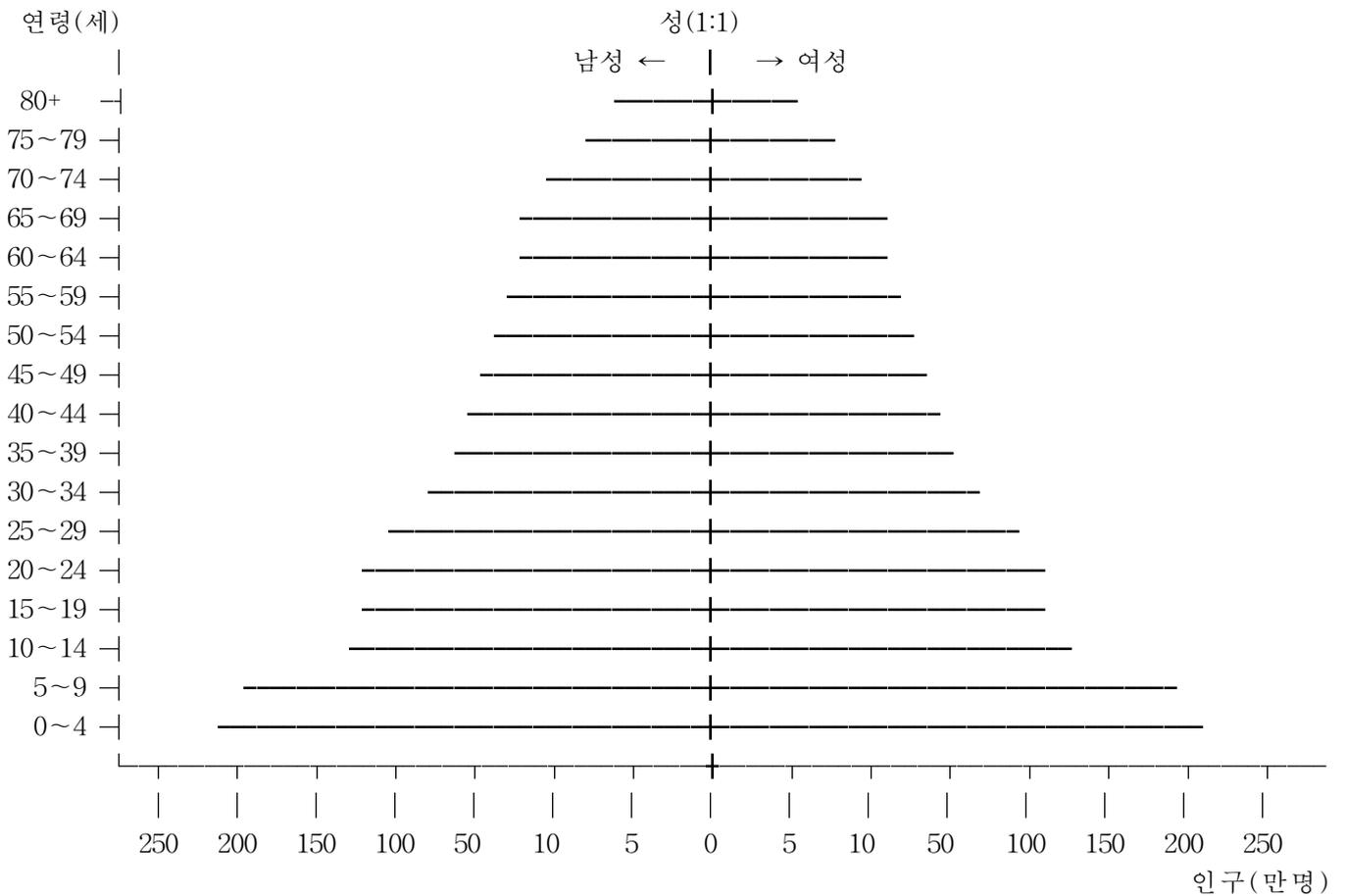
연령구간 (세) 연도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	총인구	
1965	368	291	209	205	135	82	50	12,252	
1966	376	301	219	198	141	84	51	12,584	
1967	383	301	229	193	145	86	51	12,924	
1968	390	321	239	187	149	88	54	13,274	
1969	397	331	250	182	148	90	55	13,633	
1970	404	342	261	177	158	92	57	14,002	
1971	414	347	269	185	153	94	60	14,436	
1972	423	353	271	192	148	97	62	14,870	
1973	433	359	284	199	143	99	65	15,304	
1974	442	364	292	207	138	102	68	15,783	
1975	452	370	299	214	133	105	70	16,172	
1976	470	379	305	221	139	102	73	16,572	
1977	488	388	310	227	145	99	76	16,971	
1978	505	397	315	234	151	96	78	17,371	
1979	523	406	320	241	156	93	81	17,770	
1980	541	416	325	247	162	90	84	18,170	
1981	575	432	334	252	168	94	84	18,535	
1982	610	449	342	257	173	98	84	18,900	
1983	644	465	351	261	178	102	84	19,265	
1984	678	482	359	266	183	106	84	19,630	
1985	712	499	367	270	189	111	84	19,995	
1986	747	531	383	278	193	115	87	20,340	
1987	781	563	398	285	296	118	89	20,685	
1988	816	595	413	293	200	122	91	21,030	
1989	850	627	428	300	204	126	94	21,375	
1990	884	659	443	307	208	130	96	21,720	
1991	912	691	472	320	214	133	99	22,028	
1992	939	724	501	333	220	136	103	22,336	
1993		2,104							22,645
1994	993	788	560	360	232	142	109	22,953	
1995		2,278							23,261

자료 : 통일원, 남북한 주요통계비교 1991, 남북한 주요경제지표 1991 · 1992 · 1993, 남북한 경제지표 1995 ; 공보처, 도표로 본 북한의 오늘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1995.11.).

1) 1960년대 연령별 인구구조의 유형(1965년 기준)

다음 <그림 1>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대 북한의 연령별 인구구조의 유형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피라미드형’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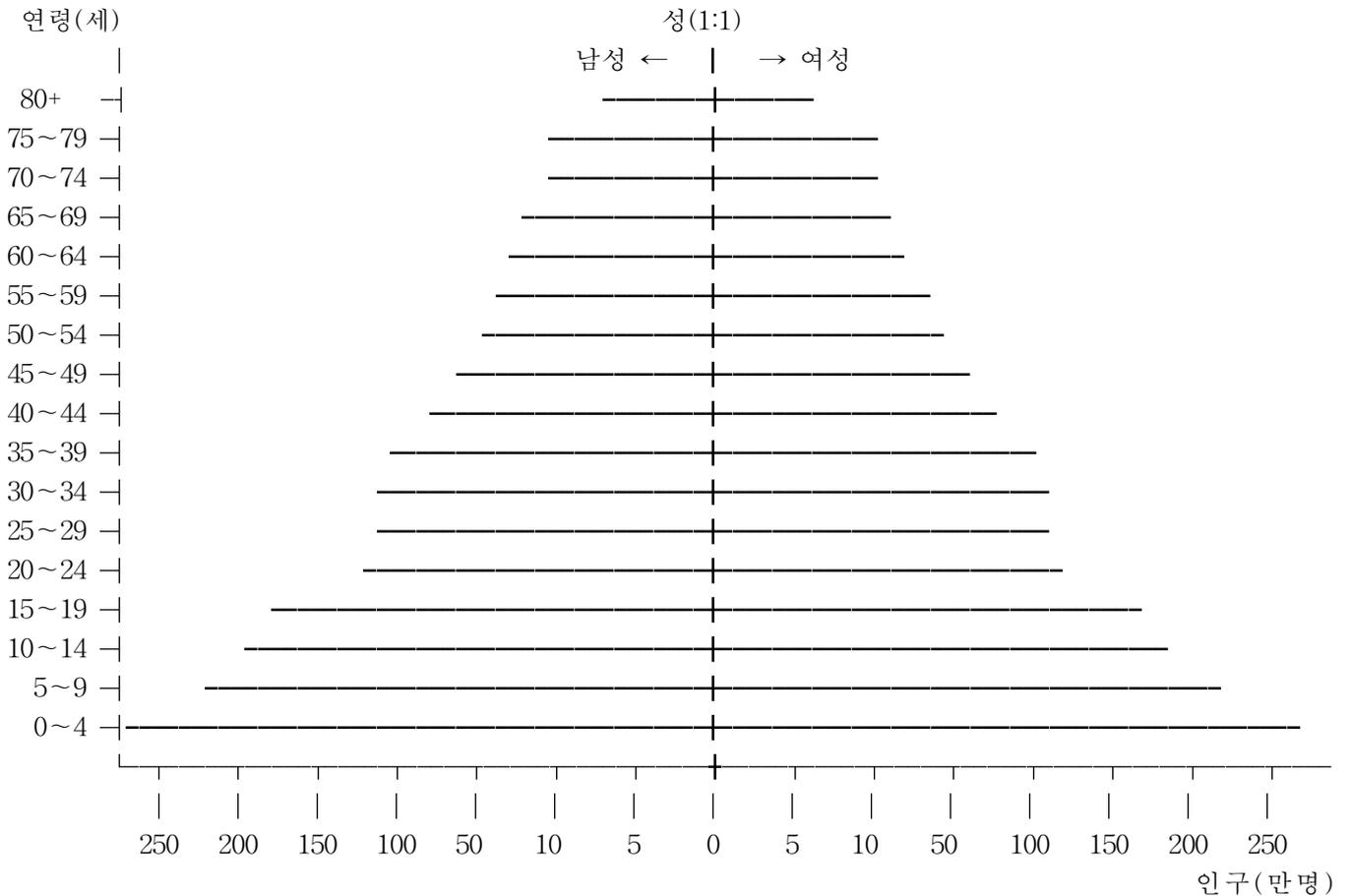
<그림 1> 1960년대 연령별 인구구조의 유형



2) 1970년대 연령별 인구구조의 유형(1975년 기준)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아래 <그림 2>에서 보듯이 1970년대에도 북한의 연령별 인구구조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피라미드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와 비교해서 1970년대에는 사망률은 비슷하지만 출생률이 급증하여 유년인구가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처럼 1960년대에 이어 1970년대에 급증한 유년인구는 수십년 후에 노동인구의 과잉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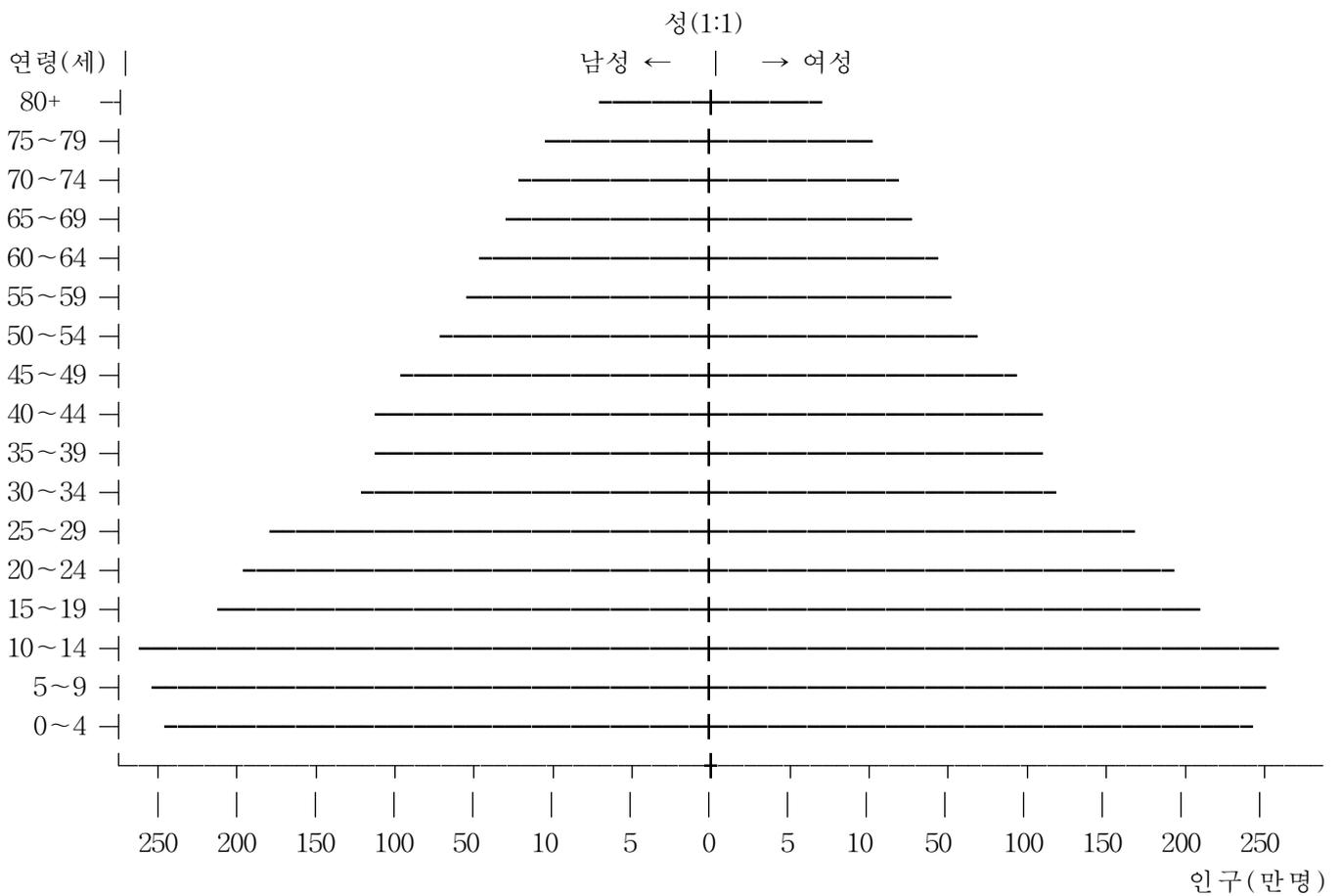
<그림 2> 1970년대 연령별 인구구조의 유형



### 3) 1980년대 연령별 인구구조의 유형(1985년 기준)

198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의 연령별 인구구조의 유형은 다음 <그림 3>처럼 1960년대-1970년대의 피라미드형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인 ‘크리스마스 트리형’으로 나타난다. 즉, 1980년대의 유형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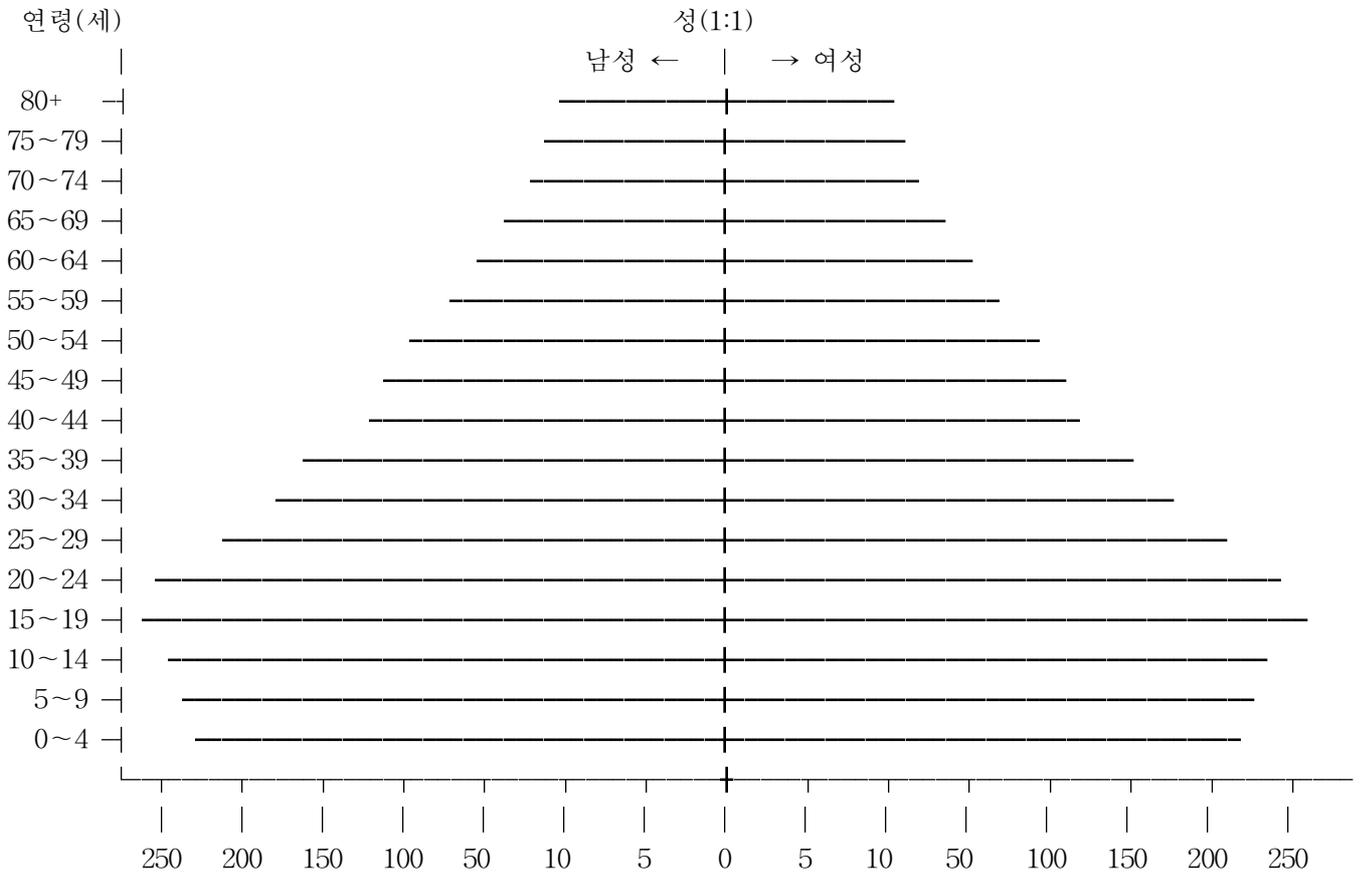
<그림 3> 1980년대 연령별 인구구조의 유형



#### 4) 1990년대 연령별 인구구조의 유형(1995년 기준)

북한의 1990년대 연령별 인구구조의 유형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지면서 ‘괘종형’의 모습으로 변형되고 있다. 1990년대의 이런 유형은 유년인구층이 얇아지면서 점차 인구증가율도 감소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연령별 인구구조의 유형은 장차 수십년 후에 청장년층과 노년층에 걸친 인구가 많아지게 됨으로써 과잉노동인구와 사회복지문제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림 4> 1995년 연령별 인구구조의 유형



#### 4. 지역별 인구분포

1945년 당시 북한에는 일제 통치 36년 동안 대륙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써의 발전의 산물로 10개의 시가 형성되어 있었다. 인구가동과 물류의 주축은 한편으로 부산 → 서울 → 신의주, 다른 한편으로 서울 → 원산 → 청진으로 향해 있었다. 그 결과 한반도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X자형으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도시는 두 개의 축(즉 경의선과 국도를 낀 개성 → 평양 → 신의주에 이르는 西軸, 그리고 서울을 출발해 원산 → 함흥 → 성진(김책) → 청진 → 나진으로 이어지는 東軸)에 따라 형성되었다.

1995년 현재 북한의 도시는 특별시 1곳(평양특별시), 직할시 3곳(남포직할시, 개성직할시, 나진·선봉직할시),<sup>20)</sup> 시 24곳(특히, 개성직할시에 포함된 개성시를 포함한 수치임) 총 28개의 시로 구성되었다. 이 때 평양·남포 공업지구에 들어가는 국제적 항구도시인 남포직할시는 평양의 관문이자 최대의 위성도시로서, 개성직할시는 대남전략적인 기능과 관련하여, 나진·선봉직할시는 외자유치를 위한 대외선전과 관련하여 직할시로 명명 내지 승격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방이후 북한은 내륙을 중심으로 도시를 형성해왔다. 평남의 경우는 평양에 인접하여 위성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면서 과학·기술 연구단지가 들어 앉아 있는 평성을 비롯하여 4곳의 대규모 탄광지대를 이루고 있는 안주·개천·순천·덕천 등이, 평북의 경우는 내륙 깊숙히 구성(龜城)이, 자강도의 경우는 새로 분립·통합되어 만들어진 군수공장 및 군수물자가 지하에 밀집되어 지하도시화한 회천·만포·강계 등이, 양강도의 경우는 혜산이, 함남의 경우는 단천과 신천이, 함북에는 회령이, 황북에는 송림과 사리원이, 강원에는 문천이 신도시로 형성되었다.

이처럼 북한에서 16여개에 달하는 신도시의 형성은 휴전선 부근이나 농촌을 제외한 내륙지역에 도시를 개발하고 주로 군수산업과 군수산업시설과도 직접·간접으로 연계된 기계공업을 배치하고자 한 군사경제정책의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다.

##### (1) 행정구역별 인구와 인구밀도

다음의 <표 9>와 <표 10>을 통해 보듯이 북한의 전체인구밀도는 1987년 158명<sup>21)</sup>, 1991년 179명, 1995년 189명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 1994년 3월말에 북한 당국은 1991년 12월에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한 나진-선봉 지역을 ‘나진·선봉시’로 이름을 변경시켜 직할시로 승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나진·선봉직할시’는 기존의 621 km<sup>2</sup>에 이르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부근에 위치한 함북 은덕군 일부지역 125 km<sup>2</sup>를 추가로 편입함으로써 총면적이 746 km<sup>2</sup>로 확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나진·선봉의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원래 이 지역을 포함하고 있던 옛 나진시와 옛 선봉군의 나머지 지역은 인근 시나 군에 편입되어 통합되었다고 한다. ;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종합판(51), pp.132-133.

21) 이 때 니콜라스 에버스테트(Nicholas Eberstadt)의 자료에서 1987년 북한의 전체인구밀도는 군인을 포함한 경우에 167명이지만 여기서는 군인수를 제외한 순수민간인의 수치 158명으로 보고 있다.;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앞의 책, p. 9.

각 지역별 인구밀도는 1987년부터 4년간격으로 1991년, 1995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북한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1 km<sup>2</sup>당 1987년 1,178명, 1991년 1,578명, 1995년 1,674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평양특별시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1 km<sup>2</sup>당 1987년 44명, 1991년 48명, 1995년 51명인 양강도 지역이다. 이 때 평양특별시는 가장 과밀인구지역으로써 1987년-1991년의 기간에 아주 높은 속도로 인구밀도가 높아지다가 1991-1995의 기간부터는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이 지역은 북한에서 가장 조밀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에 비해, 양강도는 1987-1995년 동안에도 인구밀도가 거의 변화 폭이 적은 경향을 띠면서 아직도 북한에서 가장 낮은 인구밀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평양특별시가 남포·송림·사리원 일대를 묶는 ‘평양·남포공업지구’로서 북한의 최대 공업지대를 형성하고 있거니와 북한의 실질적인 정치·경제·문화 등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밀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에 비해 양강도는 북한에서 공업발전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거니와 전체 도면적의 90.8%가 산악지역으로서 척박한 영농조건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히 인구밀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둘째, 북한에서 인구밀도의 지역별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부터의 지역별 우선순위는 1987년의 경우에 평양특별시-남포직할시-개성직할시-황해남도-평안남도-평안북도-황해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강원도’-자강도-양강도, 1991년의 경우에 평양특별시-남포직할시-개성직할시-황해남도-평안남도-평안북도-황해북도-함경남도-‘강원도’-‘함경북도’-자강도-양강도, 1995년의 경우에 평양특별시-남포직할시-개성직할시-황해남도-평안남도-평안북도-황해북도-함경남도-‘강원도’-‘함경북도’-자강도-양강도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1987-1995년간의 이러한 지역별 인구밀도의 우선순위가 거의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의 인구가 도시 중심으로 집중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 인구밀도의 지역별 우선순위는 대도시 중심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데, 다만 1987년의 경우에 ‘함북’ - ‘강원도’의 순서가 1991-1995년의 경우에 ‘강원’- ‘함북’의 순서로 바뀐 것은 군인수의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따라서 ‘강원도’에 인구밀도가 더 높다는 것은 대남병력배치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북한의 행정구역별 인구와 인구밀도는 장차 <표 10>처럼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9> 행정구역별 인구와 인구밀도 추계(1987-1991)

(단위 : km<sup>2</sup>, 천명, 명 / km<sup>2</sup>)

연도별 인구밀도  행정구역 (시도)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남한의 통일원				
	1987년			면적	1990년		1991년	
	면적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인구	인구밀도
평양특별시	2,000	2,355	1,178	2,113	3,288	1,556	3,335	1,578
남포직할시	753	715	950	829	790	953	802	967
개성직할시	1,255	331	264	1,309	379	290	385	294
평안남도	11,577	2,653	229	12,383	2,814	227	2,854	230
평안북도	12,191	2,408	198	1,2575	2,498	199	2,533	205
자강도	16,968	1,156	68	16,764	1,201	72	1,218	73
양강도	14,317	628	44	13,888	664	48	673	48
함경남도	18,970	2,547	134	18,558	2,845	153	2,886	156
함경북도	17,570	2,003	114	16,745	2,055	123	2,084	124
강원도	11,152	1,227	110	11,150	1,549	139	1,571	141
황해남도	8,002	1,914	239	8,294	2,023	244	2,052	247
황해북도	8,007	1,409	176	8,154	1,612	198	1,635	201
총계	122,762	19,346	158	122,762	21,718 (21,720)	1 7 7 (177)	22,028	179

- 주 : 1)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의 자료는 북한에서 지역별 면적이 발표되지 않았으나,북한이 발표한 전체면적의 122,762,338 km<sup>2</sup>를 근거로 지도(digitized map : 컴퓨터를 계산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방식으로 바꾼 자료)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계산하여 지역별 인구밀도를 추계한 것임.
- 2) 남한의 통일원 발표 자료는 북한의 면적(1990-1991년)을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88) ; 조선관광안내편집부 편, 조선관광안내(1991)의 책자에서 수치를 적용한 것임. 한편, 1990년 인구총계에서 통일원 인구추계 발표의 원래 수치는 21,720천명이나 이 도표에서 나타난 21,718천명의 수치는 천자리 이하에서 반올림한 수치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임.
- 3) 지역별 인구밀도 = 지역별 인구 / 지역별 면적으로 통일원의 수치는 필자가 계산한 것임.
- 자료 :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센터, 북한의 인구동향과 전망, 앞의 책, p.8. ; 통일원, 남북한 사회·문화 지표 1991, p.20. , 북한개요 1992, p.26. ; 고태우, 통일 미리 가 본 북녘땅(서울 : 우아당,1992), p.24.

<표 10> 북한의 지역별 인구와 인구밀도 추계(1994-2000)

(단위 : km<sup>2</sup>, 천명, 명/km<sup>2</sup>)

행정 구역	면적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인구	인구 밀도												
평양	2,113	3,486	1,650	3,537	1,674	3,576	1,692	3,620	1,713	3,664	1,734	3,706	1,754	3,749	1,774
남포	829	826	996	836	1,008	847	1,022	857	1,034	868	1,047	879	1,060	888	1,071
개성	1,309	390	298	395	302	400	306	405	309	410	313	415	317	419	320
평남	12,383	2,982	241	3,020	244	3,059	247	3,096	250	3,133	253	3,170	255	3,206	259
평북	12,575	2,638	210	2,672	212	2,706	215	2,739	218	2,772	220	2,804	223	2,836	226
자강	16,764	1,262	75	1,278	76	1,294	77	1,310	78	1,326	79	1,341	80	1,356	81
양강	13,888	711	51	715	51	729	52	738	53	747	54	756	54	765	55
함남	18,558	3,005	162	3,044	164	3,082	166	3,120	168	3,157	170	3,194	172	3,230	174
함북	16,745	2,179	130	2,207	132	2,235	133	2,262	135	2,290	137	2,317	138	2,343	140
강원	11,150	1,629	146	1,650	148	1,670	150	1,691	152	1,711	153	1,731	155	1,751	157
황남	8,294	2,133	257	2,161	261	2,188	264	2,215	267	2,241	270	2,268	273	2,294	277
황북	8,154	1,697	208	1,719	211	1,741	214	1,762	216	1,784	219	1,804	221	1,825	224
총계	122,762	22,939	189	23,235	189	23,527	192	23,817	194	24,102	196	24,384	199	24,662	201

주 : 1) 각 지역별 면적은 앞의 <표 9>에서 제시한 남한의 통일원 발표에 의한 것임.

2) 각 지역별 인구밀도는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앞의 책, p.525.에서 추계한 인구를 근거로 필자가 계산하여 추정된 것임.

## (2) 주요 도시별 인구 분포

북한의 주요 도시별 인구는 다음 <표 11>에서 보듯이 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도 거의 변동없는 정체현상 속에서 아주 완만한 증가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체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로 보더라도 대부분의 북한 도시들은 별로 인구비율이 증가하지 않고 정체하고 있거나 인구증가율은 고작 1%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평양특별시·남포직할시·개성직할시 만큼은 북한당국의 철저한 통제하에서도 인구집중화가 아직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1년 현재 이 세 도시가 북한 총인구의 20.3%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료의 신빙성 문제를 떠나서 1992년말로 추정된 다음 <표 12> 북한의 시군지역별 인구구조는 1992년 현재 북한의 총인구 약 22,205천명(추정) 중 10,325천명인 약 46.5%(추정) 정도가 인구 10만명이 상의 26개 시지역에 분포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1995년 현재 북한인구의 약 50%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11> 도시의 연도별 인구 변동(1980-1991)

(단위: 명, %)

연도-인구- 비율 도시명	1980		1982		1986		1987		1990		1991	
	인구	비율										
평양특별시	1,842	10.6	1,907	10.7	2,071	10.9	2,355	12.2	3,288	15.1	3,335	15.0
남포직할시	-	-	-	-	363	1.9	370	1.9	790	3.6	802	3.6
개성직할시	108	0.6	112	0.6	119	0.6	120	0.6	379	1.7	385	1.7
평성시	199	1.2	212	1.2	234	1.2	239	1.2	253	1.2	257	1.2
개천시	-	-	-	-	-	-	-	-	-	-	-	-
덕천시	-	-	-	-	215	1.1	217	1.1	-	-	-	-
순천시	-	-	-	-	340	1.8	356	1.8	474	2.2	481	2.2
안주시	-	-	-	-	-	-	186	1.0	-	-	-	-
신의주시	271	1.6	276	1.6	286	1.5	289	1.5	316	1.5	321	1.4
구성시	154	0.9	160	0.9	176	0.9	177	0.9	190	0.9	192	0.9
강계시	194	1.1	198	1.1	208	1.1	211	1.1	253	1.2	257	1.2
만포시	85	0.5	89	0.5	93	0.5	93	0.5	-	-	-	-
희천시	149	0.9	151	0.8	159	0.8	163	0.8	190	0.9	192	0.9
혜산시	150	0.9	152	0.9	160	0.8	164	0.8	221	1.0	224	1.0
함흥시	594	3.4	613	3.4	649	3.4	701	3.6	790	3.6	801	3.6
단천시	-	-	259	1.5	283	1.5	284	1.5	348	1.6	353	1.6
신포시	146	0.8	148	0.8	156	0.8	158	0.8	158	0.7	160	0.7
청진시	509	2.9	531	3.0	514	2.7	520	2.7	664	3.0	673	3.0
나진시	86	0.5	86	0.5	87	0.5	89	0.5	-	-	-	-
김책시	168	1.0	172	1.0	178	0.9	179	0.9	190	0.9	292	1.3
희령시	-	-	-	-	-	-	-	-	-	-	-	-
해주시	182	1.1	184	1.0	191	1.0	195	1.0	221	1.0	224	1.0
사리원시	174	1.0	187	1.1	216	1.1	221	1.1	285	1.3	289	1.3
송림시	103	0.6	104	0.6	107	0.6	108	0.5	95	0.4	96	0.4
원산시	233	1.3	242	1.4	265	1.4	274	1.4	285	1.3	289	1.3
문천시	-	-	-	-	-	-	-	-	-	-	-	-

주 : 1) 1980-1987년의 인구통계 자료는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앞의 책, p.14.에서 인용한 것임. 1990-1991년의 인구통계 자료는 통일원, 북한개요 1992, p.26 ; 고태우, 통일 미리 가 본 북녘땅, 앞의 책, pp.24-25.에서 인용한 것임.

2) 1980-1987의 총인구당 비율은 앞의 <표 1>에서 북한의 중앙통계국 발표자료로, 1990-1991년의 총인구당 비율은 같은 <표 1>에서 남한의 통일원 발표 자료로 필자가 계산한 것임.

<표 12> 북한의 시군지역별 인구 현황(1990년말 현재)

(단위 : 명)

시 지 역	지명	인구	지명	인구	지명	인구	지명	인구	총계(소계)	
	평양특별시	3,228,571	남포직할시	807,143	개성직할시	403,571	평성시	235,417		
	개천시	336,310	덕천시	134,524	순천시	437,202	안주시	201,786		
	신의주시	302,679	구성시	201,786	강계시	235,417	만포시	100,893		
	회천시	168,155	해산시	168,155	함흥시	739,881	단천시	336,310		
	신포시	168,155	청진시	605,357	나진시	100,893	김책시	235,417		
	회령시	134,524	해주시	235,417	사리원시	302,679	송림시	100,893		
	원산시	302,679	문천시	100,893					10,324,707	
군 지 역	평안 남도	대동군	67,262	대흥군	33,631	맹산군	67,262	문덕군	168,155	
		북창군	201,786	성천군	168,155	숙천군	168,155	신양군	100,893	
		양덕군	67,262	영월군	33,631	온천군	100,897	증산군	100,893	
		평원군	100,893	회창군	100,893					(1,479,768)
	평안 북도	구장군	168,155	곽산군	100,893	대관군	67,262	동림군	100,893	
		동창군	33,631	박천군	100,893	벽동군	67,262	삭주군	134,524	
		선천군	100,893	염주군	134,524	영변군	67,262	용천군	134,524	
		운산군	100,893	운전군	100,893	의주군	100,893	정주군	201,786	
		창성군	33,631	천마군	33,631	철산군	67,262	태천군	100,893	
		괴현군	100,893	향산군	100,893					(2,152,384)
	자강 도	고풍군	33,631	낭림군	34,118	동신군	33,631	성간군	100,893	
		송원군	33,631	시증군	33,631	용림군	33,631	우시군	33,631	
		위원군	67,262	자성군	33,631	장강군	67,262	전천군	100,893	
		증강군	33,631	초산군	33,631	화평군	34,118			(707,225)
	양강 도	갑산군	67,262	김정숙군	33,631	김형권군	33,631	김형직군	33,631	
		대흥단군	33,631	백암군	67,262	보천군	33,631	삼수군	33,631	
		삼지연군	33,631	운흥군	100,893	풍서군	33,632			(504,466)
	함경 남도	고원군	168,155	금야군	201,786	낙원군	67,262	덕성군	100,893	
		부전군	33,631	북청군	134,524	신흥군	134,524	영광군	67,262	
		요덕군	33,631	이원군	100,893	장진군	33,631	정평군	134,524	
		함주군	201,786	허천군	100,893	홍원군	100,893			(1,614,288)
	함경 북도	경성군	100,893	길주군	134,524	명천군	67,262	무산군	100,893	
		부령군	67,262	새별군	100,893	선봉군	67,262	어랑군	67,262	
		연사군	33,631	온성군	134,524	은덕군	100,893	화대군	67,262	
		화성군	67,262							(1,109,823)
	황해 남도	강령군	134,524	과일군	67,262	백천군	168,155	벽성군	67,262	
		삼천군	67,262	송화군	67,262	신원군	134,524	신천군	134,524	
		안악군	100,893	연안군	168,155	용진군	134,524	용연군	67,262	
은율군		67,262	은천군	67,262	장연군	67,262	재령군	134,524		
청단군		134,524	태탄군	67,262	평천군	67,262			(1,916,967)	
황해 북도	곡산군	67,262	금천군	100,893	봉산군	100,893	서흥군	100,893		
	수안군	33,631	신계군	134,524	신평군	67,262	연산군	33,631		
	연탄군	67,262	은파군	100,893	인산군	67,262	토산군	67,262		
	평산군	134,524	황주군	168,155					(1,244,347)	
강원 도	고산군	168,155	고성군	100,893	금강군	100,893	금화군	67,262		
	법동군	34,118	세포군	100,893	안변군	67,262	이천군	34,118		
	창도군	33,631	천내군	67,262	철원군	100,893	통천군	67,262		
	판교군	6,262	평강군	100,803	회양군	100,893			11,879,868 (1,150,600)	

자료 : 북한연구소 편, 북한총람<1983-1993>(서울 : 북한연구소, 1994), pp.82-84.; 북한문제조사연구소 간행, 북한인구통계자료 팜플렛에서 인구통계수치를 인용하여 재구성한 것임.

### (3) 북한에서 도시와 농촌 지역의 인구구조와 도시화율

북한에서 도시와 농촌 지역의 인구구조는 도시화율과 관계가 깊다. 다음 <표 13>을 통해 보면, 한국전쟁 이후 1956년(19.7 %)부터 1960년(12.0 %)에 걸쳐 북한의 도시인구증가율은 아주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나, 1965년에 들어서면서 5.9 %로 급감하더니 1970년까지 5.9 %로 유지되고 있다. 또 다시 1975년부터 북한의 도시인구증가율은 2.7 %로 감소한 이후 계속하여 1987년까지 평균 약 2.2 %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에 따라 북한의 도시화율은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즉, 1950년대-1960년대의 도시화율은 1953년 17.7 %에서 1956년 29.0 %로, 1960년 40.6 %, 1965년 47.5 %로 급증하여 무려 약 10년 동안에 무려 약 30 % 정도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도시화율은 둔화된 양상을 보이면서 평균 약 55 % 수준으로 진행되다가 1980년대에는 거의 약 59 % 정도에서 정체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도시화증가율도 1956년 21.4 %, 1960년 12.9 %로 1956-1960년까지 급증한 현상을 보이지만 1965년 5.6 %, 1970년 5.4 %로 급감되고, 또 다시 1975년 2.0 %로 감소된 이후부터 1987년까지 평균 약 1.4 %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도시지역 인구구조와 도시화율은 <표 14>에서와 같이 농촌인구수와 인구증가율과 관련되어 있다. 즉, 북한의 농촌인구수와 인구증가율은 1956년 이후 1960년대까지 평균 약 -2.6 %로 급감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1970년대에는 평균 약 0.6 %로 상승하다가 1980년대는 평균 약 1 %에서 정체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1980년은 농촌인구증가율이 1956년 이후 1987년까지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려 3.5 %로 급증했다.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부터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농촌으로의 강제적인 집단이주를 취한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sup>22)</sup> 따라서 이런 조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북한당국이 80년대에 농업제일주의라는 구호아래 노력동원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다음 <표 14>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농가인구비율은 198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초인 1992년 현재까지 평균 약 38 % 정도로 10년이 넘게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1993년 36.4%, 1994년 36.7%를 보여 1993년부터 약 36.5%대로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1994년말 현재 북한의 총인구 2,295만 3천명 중 농업인구가 842만명으로 총인구의 약 37 %를<sup>23)</sup>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1994년 현재 도시화율을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하면 약 63 % 정도로 도시화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관찰로는 북한의 도시화 수준이 주민의 문화·문명 생활과 관련해서 보면 30 %선에 머물고 있다고 하겠다.

22) 이 점에서 김일성 정권은 당 제 6차 당대회가 끝난 1981년 봄에 모든 당원의 당원증을 새 당원증으로 바꿔서 교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3) <표 15>가 남한의 통일원 추계이기 때문에 1994년 북한의 총인구는 남한의 통일원 추계인 2,295만 3천 명으로 추정된 것임.

<표 13> 도시와 농촌의 인구 및 도시화 증가율(1953-1987)

(단위 : 천명,%)

분석영역 연도	도시인구 증가율		농촌인구 증가율		도시화 증가율		인구총계
	인구수	인구증가율	인구수	인구증가율	도시화율	도시화 증가율	
1953	1,503	-	6,988	-	17.7	-	8,491
1956	2,714	19.7	6,645	-1.7	29.0	21.4	9,359
1960	4,380	12.0	6,409	-0.9	40.6	12.9	10,789
1965	5,984	5.9	6,514	0.3	47.5	5.6	12,408
1970	7,924	5.9	6,695	0.5	54.2	5.4	14,619
1975	9,064	2.7	6,922	0.7	56.7	2.0	15,986
1980	9,843	1.6	7,455	3.5	56.9	0.2	17,298
1982	10,362	2.6	7,412	-0.3	58.3	2.9	17,774
1985	11,087	2.3	7,705	1.3	59.0	1.0	18,792
1986	11,265	1.6	7,795	1.2	59.1	0.4	19,060
1987	11,530	2.3	7,816	0.3	59.6	2.1	19,346

주 : 1) 북한에서 '리'는 도시인구에서 제외됨으로 도시화 정도와 도시 및 농촌의 인구증가율에는 차이가 있음.

2)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도시화율이 1965년까지는 남한의 통일원 추계치와 같으나 1970년부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분석영역 연도	총인구	인구비율	
		도시	농촌
1953	8,491	17.7	82.3
1956	9,359	29.0	71.0
1959	10,392	38.0	62.0
1960	10,789	40.6	59.4
1961	11,042	56.7	43.3
1963	11,568	44.5	55.5
1965	12,201	47.5	52.5
1970	13,600	38.1	61.9
1975	15,940	42.7	57.3

자료 :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지표(1946-1985), p.834.

자료 :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센터 ; 한국경제신문사 부설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표 14> 농가인구 비율

( 단위 : 천호, 천명, % )

농가분석기준 연도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가인구비율
1965	1,096	4,999	40.8
1966	1,126	5,134	40.8
1967	1,156	5,273	40.8
1968	1,188	5,416	40.8
1969	1,220	5,562	40.8
1970	1,246	5,671	40.5
1971	1,285	5,847	40.5
1972	1,324	6,022	40.5
1973	1,362	6,198	40.5
1974	1,401	6,374	40.5
1975	1,435	6,501	40.2
1976	1,471	6,662	40.2
1977	1,506	6,822	40.2
1978	1,542	6,983	40.2
1979	1,577	7,144	40.2
1980	1,539	6,941	38.2
1981	1,570	7,080	38.2
1982	1,601	7,220	38.2
1983	1,623	7,320	38.0
1984	1,652	7,450	38.0
1985	1,684	7,492	37.5
1986	1,721	7,657	37.6
1987	1,748	7,778	37.6
1988	1,796	7,991	38.0
1989	1,820	8,101	37.9
1990	1,854	8,210	37.8
1991	1,893	8,327	37.8
1992	1,909	8,398	37.6
1993	1,919	8,443	36.4
1994	1,914	8,420	36.7

주 : 북한에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농업인구를 도시인구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도시인구는 비농업인구만을 의미하는 것임.

자료 : 통일원,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1991, 남북한 경제지표 1992·1993, 남북한 주요 통계비교 1993, 남북한 경제지표 1995.

## 5. 가구별 인구구조

1980년대 북한의 가구별 인구구조는 다음 <표 15>에서와 같이 지역별로 가구수와 평균가구원수로 고찰할 수 있다.

1980년대 북한의 가구수는 1980년 약 339만 6천에서 1982년 354만 5천, 1985년 381만 6천, 1986년 393만 3천, 1987년에는 405만 4천으로 점차 높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1982년에서 1985년에 이르는 3년 기간은 평균 가구증가수가 약 9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급격한 가구수 증가양상을 보여준다.

1987년말 현재 각 지역별 가구수는 40만 이상 지역에서 평안남도(약 55만 5천)-함경남도(약 54만 7천)-평양특별시(약 50만)-평안북도(약 48만 9천)-함경북도(약 42만 9천)의 순으로 5개 지역으로 나타나고, 20만 이하 지역에서 향산(약 5천)-개성직할시(약 6만 7천)-양강도(약 12만 9천)-남포직할시(약 14만 8천)의 순으로 4개지역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평양특별시, 남포직할시, 개성직할시 등이 가구수에서는 낮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음이 매우 흥미롭다.

또한 1980년대 북한의 총평균가족수는 1980년 5.09명, 1982년 5.01명, 1985년 4.92명, 1986년 4.85명, 1987년 4.77명으로 점진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7년말 현재 북한의 각 지역별 평균가족수는 향산(5.50명), 자강도(5.02명)가 높게 나타나고, 강원도(4.50명)가 제일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1980년대의 추세로 보면, 1993년말 북한의 가구별 인구구조는 주택건설과 주택보급률의 추이와 관련시켜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즉, 북한은 제3차7개년계획기간(1987-1993) 동안 주택건설을 105만-140만(매년 20만-30만)세대로 설정했지만, 이 계획의 실패로 인해 주택건설의 목표치의 30-50%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매년 약 15만세대 정도의 건설로 추정되고, 1993년말 현재 북한주민의 주택보급률이 약 60-65% 수준이라고<sup>24)</sup> 볼때 1993년말 북한의 총가구수는 약 495만 5천정도이고, 평균가족수는 약 4.6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

24)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앞의 책, p.579.

<표 15> 지역별 가구수와 평균가족수에 따른 총가구수 및 평균가족수(1980-1987)  
(단위 : 가구,명)

연도별 구분 지역	1980		1982		1985		1986		1987	
	가구수	평균 가족수								
평양특별시	369,031	4.99	388,582	4.91	462,519	-	479,323	4.32	499,793	4.71
개성직할시	56,750		58,986		63,435		65,532		67,166	4.93
남포직할시	114,177		126,519		134,910		140,507		147,734	4.84
평안남도	479,653		504,668		519,614		537,559		554,505	4.78
평안북도	420,300		438,492		464,038		476,195		489,433	4.86
자강도	201,108		208,059		218,852		224,676		230,100	5.02
황해남도	340,032		353,307		373,440		383,357		393,183	4.87
황해북도	241,565		251,699		272,415		280,342		289,877	4.86
강원도	229,411		237,812		254,853		264,885		272,373	4.50
함경남도	463,758		482,369		520,328		534,115		547,108	4.66
함경북도	370,112		382,442		405,831		417,527		429,211	4.67
양강도	109,737		112,541		120,814		124,170		128,702	4.88
향산	-		-		4,654		4,861		5,092	5.50
총계	3,395,634	5.09	3,545,476	5.01	3,815,703	4.92	3,933,049	4.85	4,054,277	4.77

주 : 민간인 가구수와 평균가족수임. ; 이 때, 평균가족수 = 총인구 / 총가족수로 1980-1986년  
의 평양특별시와 총가구수의 평균가족수를 계산한 것임.

자료 : Nicholas Eberstadt and Banister Judith, 한국개발연구원, 앞의 책, p.11 ; p.13 ; p.14.

## 7. 직업별 인구구조

### (1) 직업별 인구구조

북한의 직업별 인구구조는 북한의 노동력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영역이다. 다음 <표 17>을 통해서 보면 북한의 직업별 인구구조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1956년 이후 개인농민(사농), 수공업자, 기업가, 상인 등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 점은 무엇보다도 북한 당국이 1946년 3월 '토지개혁'과 1946년 8월 '중요산업국유화'를 발표한<sup>25)</sup> 이후 '농업협동화'와 '사영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1958년 8월말로 완결되었다는 북한의 주장과 연관된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아래 <표 16>와 같이<sup>26)</sup> 1958년에 농업협동화가 농가호수 100%·농지면적 100%로, 사영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100%로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

25) 과학원역사연구소, 조선통사 하권(서울 : 오월, 1989), pp.306-311.

26) 현대조선문제강좌편집위원회 편, 북한의 경제-사회주의 조선의 경제(서울 : 광주, 1988), p.83.

<표 16> 농업협동화와 사영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비율 추이(1953-1958)

(단위 : %)

연도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농업협동화	농가호수	1.2	31.8	49.0	80.9	95.6	100
	농지면적	0.6	30.9	48.6	77.9	93.7	100
사영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33.7	39.5	59.4	62.7	77.2	100

주 : 1) 농업협동화에 대해서 1957년까지는 연말, 1958년에는 8월말 현재의 수치임.

2) 사영상공업에 대해서는 매년 12월 1일의 수치임.

자료 :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조선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기초 건설, 신일본출판사, 1962,p.79.

둘째, 1946년부터 1987년까지 계속해서 국영기업노동자, 공무원 및 사무원 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북한이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한 이후 당과 행정부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관료기구가 팽창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개조작업으로 민간부문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국유화 내지 국영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경제관리의 중앙집권화과정에서나 행정업무를 중앙집권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붉은 귀족'을 양산하는 현상을 수반하게 된다.

셋째, 1959년을 기점으로 농업협동조합원 농민과 협동기업노동자 등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폭 감소하여 '국영기업노동자'로 흡수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경제생활영역에서 변화, 곧 사회일탈현상과 관련을 가진다. 일부 주민들은 불법퇴직 후에 수입이 좋은 자영업으로<sup>27)</sup> 상행위를 한다거나 암시장을 이용한다거나 잡상인으로 나선다거나 계(식량계나 현금계)를 하여<sup>28)</sup>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는 현상은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에 썩기를 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7) 이 때 '자영업'이란 사진찍기, 밀주제조, 재봉일, 편물일, 신발때우기, 산채물과 해산물의 채취 또는 재배 등의 상행위를 말함.

28)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앞의 책, pp.584-585.

<표 17> 직업별 인구비(1946-1987)

(단위 : %)

연도 \ 직종	1946	1949	1953	1956	1959	1960	1963	1965	1986	1987
국영기업 노동자	12.5	19.0	21.2	27.3	37.2	38.0	40.1	41.0	56.3	57.0
공무원 및 사무원	6.2	7.0	8.5	13.6	13.4	13.7	15.1	16.5	17.0	16.8
농업협동 조합원 농민	-	-	-	40.0	45.7	44.4	42.9	40.8	25.9	25.3
협동기업 노동자	-	0.3	0.5	1.1	3.3	3.3	1.9	-	0.9	0.9
개인농민 (私農)	74.1	69.3	66.4	16.0	-	-	-	-	-	-
수공업자	1.5	0.8	0.6	0.3	-	-	-	-	-	-
기업가	0.2	0.1	0	-	-	-	-	-	-	-
상인	3.3	1.7	1.2	0.6	-	-	-	-	-	-
기타	2.0	1.8	1.5	0.5	0.4	0.3	-	1.7	-	-

자료 : 1946-1965년의 통계수치는 북한연구소, 북한사회론(서울 : 북한연구소, 1977), p.150.에서,  
1986 - 1987년의 통계수치는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한국개발연구원, 앞의 책, p.63.에서 인용한 것임.

## (2) 군 인력구조

1970년이래 발표된 북한의 인구통계자료는 군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성비도 알려져 있지 않다고<sup>29)</sup>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군인력을 직업별 인구구조와 함께 분석한 이유는 16세 이상을 북한에서는 노동가능인구로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적지않은 군병력이 특히 건설부문의 노동력으로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에서 군인의 노동은 다음과 같이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sup>30)</sup> 투입되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유형은 도로, 댐, 터널, 제방과 같은 하부구조의 건설과 개간(開墾)공사나 군사시설의 건설 등에 투입되는 경우이다.

둘째 유형은 방직공장, 비료공장, 어장, 광산, 농장, 주택건설현장, 공장 등에 투입되는 경우이다.<sup>31)</sup>

29)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한국개발연구원, 앞의 책, p. 66.

30) Asia Watch and Minnesota Lawy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Human Rights in the DPRK, 송철복 외 역, 북한의 인권(서울 : 고려원, 1990), p.180.

31) 이 경우에 북한 당국은 언론을 통해 군인들의 군복무를 '6개 고지 점령'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즉 수확, 방직, 어로, 채광, 주택건설, 제강 등 6개 생산현장에 군인들의 노역(勞役)

셋째 유형은 김일성-김정일 지도자를 우상화하기 위한 기념물 건설에 투입되는 경우이다.

이처럼 북한의 군인들은 건설산업현장과 기타 경제활동에 투입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사회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원칙하에서 모든 공장은 전쟁터이고, 모든 주민은 “전시동원체제” 하에서 군인이 되고, 모든 국가의 목표는 승전(勝戰)을 위한 것처럼 느끼게끔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다.<sup>32)</sup>

다음 <표 18>과 앞의 <표 6>, <표 7>, <표 8>를 관련시켜 보면, 북한은 1987년-1992년 기간 동안에 17-54세의 인구 중 평균 약 9%가 군인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다음 <표 19>에서처럼 북한의 16세-29세의 연령층과 17세-26세의 남자 중 군인비율의 추이를 보면, 군인구가 1990년 46%, 1995년 49%, 2000년 59%로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앞의 <표 1>과 다음 <표 18>을 연관시켜보면, 북한은 1990년-1995년 기간 동안에 총인구의 평균 약 5%가 군병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북한이 너무 과도한 군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sup>33)</sup> 북한의 인력구조상 군인구를 제외시킬 수 없거니와 이미 앞의 <표 1>에서 보았듯이 1970년대 이후 계속된 인구증가율의 감소추세에 따라 북한의 군인들은 노동력 활용이란 의미에서도 노동현장에 대거 투입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근거는 먼저 북한의 군복무기간이 보통 10년으로 너무 길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북한은 의무병제도에 따라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군인으로 징집하고 있으며, 사병은 ‘내각결정 148호’에 의해 지상군 3년 6개월, 해·공군 4년의 복무기간을 갖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육해공군 모두가 통상 10년 동안 복무하여 26-27세 정도에 제대하고 있다.<sup>34)</sup> 여기서 총병력의 약 10% 정도인 10만-15만 정도가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sup>35)</sup> 사실을 지적할 수 있겠다.

---

을 독려하고 있다.

32) 윤황, ‘김일성의 정치적 리더쉽과 권력승계체제의 전망’, “북한” 1992년 10월호, p. 132.

33) 이 점에서, 1995년도 남한의 국방부 자료에 의한 북한의 정규군 총병력수는 약 104만명으로 중국(약 303만)명, 러시아(약 272만명), 미국(약 191만명), 인도(127만명)에 이어 많은 국가이고 세계 최고의 군병력밀도를 유지하고 있다.

34) 통일연수원, 민주통일론-북한실태-(서울 : 통일연수원, 1992), p. 215. ; 이 때 군계급 구조는 군관이 14종( ① 원수급 : 원수, 차수 ② 장령급 : 대장, 상장, 중장, 소장 ③ 상급군관 : 대좌, 상좌, 중좌, 소좌 ④ 하급군관 : 대위, 상위, 중위, 소위)이고, 사병이 6종( ① 하사관 :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 ② 병 : 상등병, 전사) 등으로 되어 있다.

35) Asia Watch and Minnesota Lawy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송복철 외, 앞의 책, pp. 178-179. ; 『조선일보』 1991년 4월 2일자.

<표 18> 군병력수 추계

(단위 : 만명)

추계기관 연도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	대한민국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총병력
1986	84.0	64.0	3.0	5.0	72.0
1987	83.8	-	-	-	-
1988	84.2	76.0	4.0	7.0	87.0
1989	104.0	-	-	-	98.0
1990	111.1	86.5	4.5	8.0	99.0
1991	111.1	86.8	4.5	8.2	99.5
1992	113.2	88.2	4.6	8.2	101.0
1993	113.2	90.0	4.6	8.4	103.0
1994	112.8	90.0	4.6	8.4	103.0
1995	112.8	91.0	4.6	8.4	104.0

자료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Military Balance 1986-7~1995-1996 (London) ; 대한민국 국방부의 통계자료는 1986년 수치가 국제문제연구소, 방위총서(서울: 국제문제연구소,1986), p.230.에서 육군, p.238.에서 해군, p.248.에서 공군으로 나타나 총병력이 72만명으로 추정됨. 그 이후 통계자료는 대한민국국방부, 국방백서, 1988, p.147., 1990, p.105., 1991, p.126., 1992-1993, p.62., 1993-1994, p.67, 1994-1995, p.74., 1995-1996, p.72.에서 추계한 것임.

<표 19> 16세- 29세의 연령층 추이수와 17세-26세의 남자 중 군인비율 추계

(단위 : 천명, %)

추이수와 비율 연도	16세-29세의 연령층 추이수	17세-26세의 남자 중 군인비율 추계
1990	6804	46
1995	6706	49
2000	6054	59
2005	5747	57
2010	6351	51

자료 :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 North Korea :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앞의 책, p.73. ; 한국경제신문사부설 북한경제연구소, 앞의 책, p.225.에서 필자가 약간 도표를 수정한 것임.

## 7. 학력별 인구구조

북한의 교육제도는 해방이후 소련군정하에서 1945년 11월 21일 ‘북조선학교교육실시조치법’을 제정 공포하고 종전의 ‘국민학교’를 ‘인민학교’로 개칭하면서 변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마디로 북한의 교육체계는 해방이후 1950년대까지 해방정국의 혼란과 한국전쟁의 참화로 인해 제대로 운용되지 못했고, 1960년대를 지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했다고 하겠다.

그런 이유로 1960년대부터 북한의 학력별 인구구조는 아래 <표 20>를 통해 몇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인민학교의 경우 학교수는 평균적으로 1960년대에 약 4,175개, 1970년대에는 약 4,510개, 1980년대 약 4,730개, 1990년대초 약 4,790개로 나타나고 있고, 학생수는 평균적으로 1960년대 약 105만 5천명(약 49.8%), 1970년대 약 162만 2천명(약 53.4%), 1980년대 약 182만 4천명(약 36.4%), 1990년대초 약 196만 5천명(약 37.9%)로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북한의 인민학교는 1970년대에 외형적으로 가장 괄목할 만한 교육규모의 양적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 즉, 1970년대 중반인 1975년은 학교수 4,700개교로 1970년의 4,320개교보다 380개교의 급증을 보이지만 1980년 4,700개교 이후 1992년 4,790개교로 거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인민학교 학생비율은 1960년대 평균 약 49.8% 이후 1970년 44.8%에 들어서면서 계속 감소하다가 1990년 36.4%에서 1992년 39.3%로 완만한 회복 징조가 나타난다.

둘째, 고등중학교의 경우 학교수는 평균적으로 1960년대 약 3,221개, 1970년대 약 3,715개, 1980년대 약 4,100개, 1990년대초 약 4,062개로 보여주고 있고, 학생수는 평균적으로 1960년대 약 95만 2천명(약 47.0%), 1970년대 약 200만 2천명(약 53.3%), 1980년대 약 262만 8천명(약 52.4%), 1990년대초 약 291만 1천명(약 56.1%)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에 인민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중학교는 1960년대 이후 1970년대에 양적인 교육규모의 확대가 뚜렷하며, 다만 인민학교와 달리 학생비율은 1970년대 중반인 1975년에 약 57.5%로 나타난 이래 1992년 까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등중학교의 교육역량이 1970년대에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겠다.

셋째, 대학의 경우 학교수는 평균적으로 1960년대 약 87개, 1970년 약 140개, 1980년대 약 202개, 1990년대초 약 277개를 보이고 있고,<sup>36)</sup> 학생수는 1960년대 약 12만 7천명(약 6.3%), 1970년대 약 14만 6천명(약 4.1%), 1980년대 약 26만 8천명(약 5.3%), 1990년대초 31만 4천명(약 6.0%)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 당국이 1980년대부터 급격하게 대학교육의 양적규모 및 교육역량을 확대함으로써 1990년대초에 들어와서도 계속 대학의 양적·질적 향상을 강화시키고 있음을<sup>37)</sup> 추측케 해준다.

---

36) 물론 북한의 대학수는 <표 20>에 근거하여 평균적으로 계산한 필자의 추정치와 북한의 주장과는 차이가 나고 있다. 즉,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대학수는 1940년대말 15개, 1950년대말 78개, 1960년대말 129개, 1970년대말 170개, 1980년대말 260개, 1990년대초인 1992년 현재 280개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세계일보』(1992.8.19.);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1993.12), p.438.에서 재인용함.

37) 특히 1987년 10월 평양 외국문출판사에 의해 해외선전용으로 발간한 『조선개관(일어판)』은 학생총수 492만 3천명으로 발표하고 학교수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통일연수원, 민주통일론, 앞의 책, 149.p.

이와같은 <표 20>에 의한 북한 교육의 시대별 특성은 교육체계상 기본학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북한의 교육제도에 있어서, 북한은 1947년 6월 8일 인민학교 예비제도를 폐지하고 인민학교를 5년제로 개편하고, 1948년 7월 7일에 종합대학 및 의과대학의 수학연한을 4년으로 결정한 이후,<sup>38)</sup> 현재의 기본 학제는 4-6-4(6)제로서 인민학교 4년(6-10세), 고등중학교 6년(중등반 4년, 고등반 2년:11-16세), 대학 4-6년(17-22세)으로 되어 있으며, 11년제 의무교육은 유치원 높은 반 1년과정(5-6세)과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으로 되어 있다. <sup>39)</sup>

그러나 앞의 <표 1>과 <표 6>과 연관지어 <표 20>에서 나타난 북한의 학생총수는 다음의 <표 21>에 연결되어 북한의 학력별 인구구조를 분석케 해준다.

다음 <표 20>에서 북한의 학생총수는 평균적으로 1960년대 약 213만 4천명(약 18.3%), 1970년대 약 377만 명(약 25%), 1980년대 약 502만명(약 26.4%), 1990년대초 약 519만명(약 23.4%)을 보이고 있다. 이 때 학생총수는 전체적으로 1970년대에 양적으로 급증하고, 인구비율에 의한 학생비율도 1970년대 평균 약 2.5 %로 증가 폭이 커진 이후 1990년대초까지 거의 이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물론,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앞의 <표 6> 1986년말 북한의 연령별 인구수와 같은 북한의 연령구간의 구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온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6-15세까지는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에서 공부하는 연령구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은 학제와 노동력의 구분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는데, <sup>40)</sup> 이 때 북한의 총학생수는 최근 북한의 중앙통계국 발표에 의하면 1986년 480만 2천명에서 1987년 466만 8천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up>41)</sup> 즉, 1986-1987년간 북한의 학교등록인원을 인민학교(4년:6-9세)의 학생수가 1986년 146만 6천명, 1987년 149만 2천명, 고등중학교(6년:10세-15세)가 1986년 284만 2천명, 1987년 265만 5천명, 전문학교(2-3년)가 1986년 21만 5천명, 1987년 22만명, 대학교(4-6)가 1986년 27만 9천명, 1987년 30만 1천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은 성인 중 고등교육(전문학교 이상)을 받은 졸업생수가 1988년에 135만 3천명(남자 87만 6천명, 여자 47만 7천명)이나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sup>42)</sup> 그렇다면, 1988년 현재 고등교육이수자는 앞의 <표 1>에서 니콜라스 에버스타트가 추정한 1988년 총인구 2천 65만명 중 약 6.6%에 해당하고, 앞의 <표 8>에서 남한의 통일원이 추계한 1988년 북한의 30세 이상의 인구 약 731만 9천명 중 18.5%에 이른다고 하겠다. 이런 사실과 다음 <표 21>를 통해 보면, 외형적으로 북한은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즉 <표 21>에서 처럼 교육지표상 북한은 문자해독률이 1989년에 99.9%, 취학률이 1990년에 100%을 보이고

교육기관	탁아소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전문학교	대학
학교수(개교)	28,358	19,262	4,792	4,738	235	473

한편 1994년 8월 29일 북한의 『중앙통신』 보도에 의하면, 1994년 9월에 대학 6개교와 고등 전문학교 15개교를 신설하여 개교한다고 전해진다. ;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종합판(53), pp.309-310.

38)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pp.1259-1267.

39) 통일원, 북한개요1992(서울 : 통일원 정보분석실,1993), pp.328-331.

40)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앞의 책, p.25.

41)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앞의 책, p.57.의 <표 24>.

42) Nicholas Eberstadt, 한국개발연구원, 앞의 책, p. 58.

있기 때문에 1990년대초 현재 교육기회의 정도가 아주 높거니와 문맹률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더구나 1993년 현재 의무교육기간이 11년이고 1990년 현재 취학율이 100%라는 점도 북한은 평등교육에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지표상 북한의 통계수치를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오늘날 북한의 학생들은 지력(知力)을 연마할 시간마저 빼앗기고 장시간 동안 노동현장에 강제동원되거나와 군사훈련에 시달리고 있고, 북한의 인민들은 강제학습의 장에서 시달리거나와 강제노력동원에 지켜있다는 현실에서 교육의 질과 교육에의 기회균등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마디로, 북한의 학력별 인구구조는 노동력의 노동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표 20> 학교수와 학생수

(단위 : 개교, 천명, %)

연 도	학 교 수			학 생 수(각급 학교 학생 비율)			학 생 총 수 (비율)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대학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대학	
1960	4,145	3,166	76	957(42.7)	1,186(58.5)	97(4.8)	2,240 (18.5)
1965	4,204	3,278	88	1,152	717(35.4)	158(7.7)	2,027 (18.0)
1970	4,320	3,568	129	1,528(44.8)	1,682(49.3)	200(5.9)	3,410 (24.5)
1975	4,700	3,861	150	1,715(42.5)	2,322(57.5)	92(4.1)	4,129 (25.5)
1980	4,700	4,100	170	1,748(36.4)	2,600(54.1)	256(5.3)	4,806 (26.5)
1985	4,760	-	234	1,900(36.3)	2,655(50.7)	280(5.3)	5,235 (26.2)
1990	4,790	4,062	273	1,908(36.4)	3,016(57.6)	314(6.0)	5,240 (24.1)
1992	4,790	4,062	280	2,022(39.3)	2,806(54.5)	314(6.1)	5,144 (22.7)

주 : 1) 인민학교는 분교를 포함한 4년제이고, 고등중학교는 분교를 포함한 중등반 4년제, 고등반 2년제이고, 대학은 방송대학, 농장대학, 공장대학, 어장대학 등을 포함한 수치임.

2)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대학의 학생수는 휴학자를 포함한 총재적학생수임.

3) 학생비율의 계산은 각급학교 학생비율= 각급학교(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대학) 학생 수/ 학생총수 x 100으로, 총학생 비율=학생총수/총인구 x 100으로 계산하되 소수점 두 자리 이하에서 반올림한 것임. 이 때, 북한의 총인구수는 이 <표>가 남한의 통일원에서 분석한 수치이므로 앞의 <표> 북한의 총인구 추계비교에서 제시한 남한 통일원 추계에 의거한 것임.

4) 표와 비율은 아래와 같은 자료의 수치를 통해 필자가 작성한 것임.

자료 : 1) 인민학교수에서 1975년은 조선중앙연감의 수치이고, 대학수에서 1970·1975·1980은 조선중앙연감, 노동신문의 수치임. 그 나머지 학교수와 학생수는 남한의 통일원 정보분석실에서 제시한 수치임.

2) 통일원, 남북한 사회. 문화지표 1991(서울: 통일원정보분석실, 1992), pp. 116-130; 공보처, 도표로 본 북한의 오늘(서울: 공보처, 1993)pp.126-130.;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 p.1284.;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국력추세비교연구(1993.12.), pp. 439-442.

<표 21> 교육지표

교육지표	평가기관	평가연도	비율 및 기간연수
문자해독률1)	World Almanac	1989	99.0 %
	UNDP	1985	90.0 %
취학률2)	Eberstadt and Banister ; 교육부	1986	97.9 %
	통일원	1990	100.0 %
의무교육기간	통일원	1993	11 년
학생비율3)	통일원	1992	23.0 %
고등교육기관 등록자 비율4)	Eberstadt and Banister ; 교육부	1987	2.6 %
	통일원	1992	1.4 %
고등교육이수자비율5)	Eberstadt and Banister ; 교육부	1987	10.0 %
	통일원	1992	14.0 %
평균교육연수6)	UNDP	1980	6.0 년
과학분야전공자비율7)	UNDP	1980	34 %

주 : 1) 15세이상 인구 중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인구의 비율

2) 6-16세 인구 중 취학자의 비율 ; 통일원 추계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11년제 무상의 무교육제도하에서 대학 미만에서 100 %로 추정 한 것임.

3) 전체인구 중 학생의 비율

4) 전체인구 중 대학교 및 전문학교 (교육대학 포함) 등록자의 비율 ; 통일원 추계치는 필자가 통일원발표의 1992년 총인구수와 대학생총수로 계산한 것임.

5) 전체인구 중 고등교육이수자 전체의 비율 ; 통일원 추계치는 필자가 통일원 발표의 1992년 총인구수와 중등대학생총수로 계산한 것임.

6)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교육연수

7)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학자 중 과학분야 전공자의 비율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경제신문사, 제4회북한경제국제학술회의 전환기의 북한경제 자료집, 조동호, 북한의 노동력 현황, p.19. ;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국력추세 비교연구 (1993.12), p.443. ; 공보처, 도표로 본 북한의 오늘(1993.11), p.24., pp.124-130.

## 8. 국내 인구이동

북한의 인구이동은 획일화된 사회, 폐쇄된 사회, 집단화된 사회, 통제된 사회, 전체주의화된 사회라는 북한 사회체제의 특수성 때문에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22>를 통해 보듯이 1980년대의 경우 북한의 국내인구이동은 평균 약 5% 정도에 불과하여 북한당국에 의해 철저히 인구이동이 억제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남자의 인구이동수에 비해서 여자의 인구이동수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표 30>에서 처럼 혼인과 이혼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1987년의 경우 총인구상 이동율이 5.9%정도이기 때문에 1995년말 현재는 약 6%대의 인구이동률을 보일 것 같다. 왜냐하면, 경제특구인 나진-선봉직할시 지역에 많은 인구를 이주시키는 정책과 1990년대초부터 심각한 경제난으로로 탈북자들의 수가 증가, 강제이주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2> 공민등록제도상 국내인구이동(1980-1987)

( 단 위 : 천 명 , % )

연도	성별 이동인구수		총이동인구수	총인구상 비율
	남자	여자		
1980	434	486	920	5.3
1982	433	494	927	5.2
1985	418	464	882	4.7
1986	474	523	997	5.2
1987	540	594	1,134	5.9

주 : 북한에서 이동인구는 한 리에서 다른 리, 한 도에서 다른 도로 이주한 것만 포함.

자료 :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한국개발연구원, 앞의 책, pp.17-18.

## 9. 출생과 사망 통계

1980년대 북한인구의 조출생률은 <표 23>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 21.6%에서 약 1%미만의 증가로 이어져 1987년 22.2%로 정체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 북한인구의 조사망율도 1985년 이전까지 약 4%에서 그 이후 5%로 약 0.5%의 증가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에 따른 1980년대 북한인구의 자연증가율은 계속 17%대의 수준에서 정지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1990년대초에도 계속 북한인구의 자연증가율은 17%대 이하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표 24>에서 남한의 통일원과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의 추계에 의한 1990년 이후 북한인구의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은 각각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표 23> 출생자수와 사망자 및 자연증가인구수에 따른 비율 : 1980-1987

(단위 ; 명)

인구동태 연도	출생자수	조출생률	사망자수	조사망률	인구자연증가수	인구자연증가율
1980	374,234	21.6	77,250	4.5	296,984	17.2
1982	386,641	21.8	75,916	4.3	310,725	17.5
1985	414,234	22.0	85,832	4.6	328,402	17.5
1986	433,407	22.7	94,630	5.0	338,777	17.8
1987	430,148	22.2	96,015	5.0	334,138	17.3

주 : 조출생률 = 당해년도 출생자수 / 당해년도 총인구 X 1,000 ; 조사망율 = 당해년도 사망자수 / 당해년도 총인구 X 1,000 ; 인구자연증가율 = 당해년도 인구자연증가수 / 당해년도 총인구수 X 1,000 ; 이 때 조출생률·조사망률·인구자연증가율은 필자가 북한의 중앙통계국 발표수치인 총인구(앞의 <표 1>)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자료 :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한국개발연구원, 앞의 책, p.27.

<표 24> 조출생률 및 조사망률의 추계비교

(단위 : % )

비교내용 연도	북한의 중앙통계국		남한의 통일원		니콜라스 에버스태트	
	조출생률	조사망률	조출생률	조사망률	조출생률	조사망률
1965	43.5	9.8	-	-	43.9	12.8
1970	44.7	7.0	-	-	45.2	9.7
1975	25.9	4.7	37.3	8.6	26.3	6.9
1980	21.8	4.5	31.1	7.8	24.0	5.9
1982	21.9	4.3	-	-	22.6	5.8
1985	22.2	4.6	26.4	7.3	23.0	5.7
1986	22.9	5.0	25.8	7.3	23.0	5.7
1987			25.2	7.2	22.9	5.6
1988			24.6	7.2	23.3	5.6
1989			24.1	7.1	23.7	5.6
1990			23.6	7.1	24.1	5.6
1991			23.0	5.9	24.3	5.6
1992			22.4	5.9	24.3	5.5
1993					24.1	5.5
1994					23.8	5.5
1995					23.3	5.5

주 : 1) 북한중앙통계국에서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은 연앙인구를 기준으로 한 인구 천명당 수인데, 총인구에는 군인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군인을 포함시킬 경우에 위의 비율이 낮아짐.

2) 남한의 통일원에서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은 1986-1990년의 동기간 중 연평균 감소율 -2.22 %(조출생률), -0.55 %(조사망률)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고, 1991-1992년의 통계수치는 1991-1995년 예상평균감소율 -2.59 %(조출생률), -0.28 %(조사망률)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 Nicholas Eberstadt and Banister Judith, 한국개발연구원, 앞의 책, p.28. ; pp.82-83. ; 통일원, 남북한사회지표 1991, 앞의 책, p.22. ; 공보처, 도표로 본 북한의 오늘, 앞의 책, p.26.

이러한 경향은 결국 북한의 기혼부인 1인당 평균출생아수와 영아사망률을 통해 북한인구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겠다. 즉, <표 25>처럼 북한의 기혼부인 1인당 평균출생아수는 1960년대 후반의 경우 약 6명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약 4명 이하로, 1980년대에 약 3명 이하 수준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영아사망률도 1965년 35.2명, 1975년 18.1명, 1985년 10.5명으로 계속 급감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추세로 가면, 통계적으로 1990년대초에는 북한의 기혼부인 1인당 평균출생아수는 약 2명 정도, 영아사망률은 약 6명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통계상 추정으로 보면, 1990년대에 북한 기혼부인들의 출생아수는 매우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더구나 1990년대 영아사망률도 아주 낮은 편으로 볼 수도 있다.

<표 25> 기혼부인 1인당 평균출생아수(MCER)와 영아사망률(IMR)  
(단위 : 명)

연도	M	C	E	R	연도	IMR
1966	6.5				1965	35.3
1971	6.3				1970	22.7
1974	4.5				1975	18.1
1976	3.5				1980	14.2
1982	2.8				1982	-
1985	2.6				1985	10.5
1988	2.5				1986	9.8

주 : 영아사망률은 천명당 사망자수임.

자료 : Nicholas Eberstadt and Banister Judith, 한국개발연구원, 앞의 책, p.28과 p.50.

그러나 <표 26>에 의한 북한 인구의 기대수명으로 보면, 이런 통계추정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왜냐하면 북한인구의 기대수명은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평균 약 62세 정도로 급증하면서도 사망률의 약 28%가 유지되고, 197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 까지 약 74세 정도로 정체되어 사망률의 약 10%가 고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통계조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문은 <표 27>에서 볼 때, 남한의 통일원 추정에 의한 북한인구의 1990년 평균수명이 64세라는 점에서 무려 10세 정도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확증된다. 이 확증은 1990년대 북한의 열악한 경제상황과 주요 경제지표에서 거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원 추정에 더욱 신뢰를 보내고 싶다. 즉 기대수명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북한인구에서 1990년 출산력과 사망률의 추정은 <표 28>과 같고, 2000년까지의 북한인구에 대한 출생과 사망에 대한 추정은 <표 31>과 같다.

<표 26>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

(단위 : 세,천분비)

지표구분 연도	기대수명			사망율
	전체	남자	여자	
1960	58.3	56.0	59.0	37.0
1965	61.0	-	-	35.3
1970	65.2	-	-	22.7
1972	66.0	62.9	68.9	-
1975	-	-	-	18.1
1976	73.0	-	-	-
1982	74.0	-	-	-
1985	-	-	-	10.5
1986	74.3	70.9	77.3	9.8

주 : 전체의 기대수명이 남녀의 기대수명과 일치하고 있지 않음.

자료 : Nicholas Eberstadt and Banister Judith, 한국개발연구원, 앞의 책, pp.28-31.

<표 27> 평균수명

(단위 : 세)

연도	남자	여자	평균수명
1975	59.39	64.39	61.89
1980	60.18	65.18	62.68
1985	60.99	65.99	63.49
1990	61.82	66.82	64.32

자료 : 공보처, 도표로 본 북한의 오늘, 앞의 책, p.106.

<표 28> 출산력과 사망력의 추정 지표(1990년)

(단위 : 명,천분비)

조출생률(CBR)	일반출산률(GFR)	모아비(母兒比 : CER)	총출산율(TFR)	조사망률(CDR)	영아사망률(IMR)
24.1	83.1	0.4	2.5	5.7	31.3

주 : 앞의 <표 7> 1990년 북한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기준으로 일반출산율 = 1990년

총출생아수 / 1990년 15세-49세 여자인구 × 1,000 : 모아비 = 0세-4세 인구수 / 15세-49세의 가임여자인구수 × 1,000에 의해 필자가 계산한 것임.

자료 : Nicholas Eberstadt and Banister Judith, 한국개발연구원, 앞의 책, p.83 ; pp.90-91.

<표 29> 출생과 사망 추계(1990-2000)

(단위 : 세, 천분비)

연도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아	유아	총출산율
1990	68.98	65.64	71.96	31.3	34.7	27.8	2.5000
1991	69.24	65.90	72.22	30.4	33.7	26.9	2.4650
1992	69.50	66.16	72.48	29.5	32.8	26.1	2.4360
1993	69.76	66.42	72.75	28.6	31.8	25.3	2.4040
1994	70.03	66.69	73.02	27.7	30.8	24.4	2.3725
1995	70.30	66.96	73.29	26.8	29.8	23.6	2.3395
1996	70.57	67.23	73.57	25.9	28.9	22.7	2.3140
1997	70.85	67.50	73.85	25.0	27.9	21.9	2.2880
1998	71.13	67.78	74.13	24.1	26.9	21.1	2.2620
1999	71.41	68.07	74.42	23.1	25.9	20.2	2.2360
2000	71.69	68.36	74.71	22.2	24.9	19.4	2.2100

자료 : 한국경제신문사 부설 북한경제연구소, 앞의 책, pp.214-215.

## 10. 혼인과 이혼의 통계

북한에서 혼인 연령은 1980년대 까지 주로 여자 27세, 남자 30세 정도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통 여자 24세, 남자 28세 정도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sup>43)</sup> 한다. 이러한 혼인 연령의 제한에 대한 해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한에서 이혼은 북한당국에 의해 크게 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sup>44)</sup>

이에 따라 <표 30>를 통해 보듯이 1980년대 이후 조혼인율의 급증에 비해 조이혼율은 0.2%로 거의 정지된 상태에 있다.

43)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p.596.

44) 북한당국은 1956년 3월에 내각결정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1990년 10월에 가족법 제정(제20조)으로 명문화하였음.

<표 30> 혼인과 이혼 통계지표(1949-1987)

(단위 : 쌍,천명당)

지표구분 연도	혼인		이혼	
	건수	조혼인율	건수	조이혼율
1949	46,368	4.8	4,763	0.5
1953	30,564	3.6	3,453	0.4
1956	107,098	11.4	4,124	0.4
1960	74,727	6.9	3,932	0.4
1965	107,493	8.7	3,021	0.2
1970	86,639	5.9	3,791	0.3
1975	84,819	5.3	3,714	0.3
1980	99,971	5.8	4,359	0.3
1982	138,673	7.8	4,182	0.2
1985	142,753	7.6	4,526	0.2
1986	177,443	9.3	4,650	0.2
1987	188,007	9.7	4,231	0.2

주 : 조혼인율(CMR) = 해당연도의 총혼인수 / 당해연도의 총인구 X 1,000 ; 조이혼율(CDR) =  
해당연도의 총이혼수 / 당해연도의 총인구 X 1,000 로 필자가 계산한 것임.

자료 : Nicholas Eberstadt and Banister Judith, 한국개발연구원, 앞의 책, p.48.

## 11. 북한의 향후 인구동향

지금까지 북한인구에 관한 통계분석은 니콜라스 에버스타트의 자료에 의한, <표 31>처럼 향후 북한의 인구동향을 추정케 한다고 보겠다. 이러한 북한인구의 통계분석은 결국 다음 장에서 고찰될 북한의 노동력 구조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공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말 이래 1995년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는 경제파국의 장기화(축소재생산의 가속화된 중단없는 진행)와 이에 따른 주민생활의 피폐화(주민들에게 확산되어 일반화된 영양실조현상과 육체적인 인간생명의 재생산 자체가 시시각각 위협받고 있는 상황의 지속) 등은 인구의 자연성장률에 적지 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결론지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맬더스(Thomas Robert Malthus)의 인구법칙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자에게도 하나의 상식에 다름 아니다. 인구발전에 관한 <표 31>에 표명된 낙관적 전망은 따라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1> 향후 인구동향 추정(1960-2050)

( 단위 : 명, % )

연도	연앙(Midyear) 인구수	증가율	역력자료(Calendar Year Data)						
			출생수	조출생률	사망수	조사망률	이민수	이민율	증가율
1960	10,568,165	-	413,631	39.14	177,318	16.76	49,000	4.64	2.700
1961	10,850,221	2.634	423,107	39.00	167,308	15.42	23,000	2.12	2.570
1962	11,140,074	2.636	461,985	41.47	164,080	14.73	3,000	0.27	2.701
1963	11,457,292	2.808	494,422	42.98	161,891	14.13	3,000	0.26	2.911
1964	11,802,545	2.969	512,953	43.46	158,978	13.47	3,000	0.25	3.025
1965	12,171,985	3.082	534,438	43.91	155,532	12.78	3,000	0.25	3.138
1966	12,565,486	3.182	555,044	44.17	152,947	12.17	3,000	0.24	3.224
1967	12,982,958	3.268	576,891	44.43	150,043	11.56	3,000	0.23	3.311
1968	13,424,476	3.344	600,039	44.70	146,851	10.94	0.	0.00	3.376
1969	13,891,669	3.421	624,581	44.96	143,384	10.32	0.	0.00	3.464
1970	14,387,321	3.509	650,744	45.23	139,638	9.71	0.	0.00	3.552
1971	14,880,990	3.370	611,717	41.11	136,484	9.17	0.	0.00	3.194
1972	15,338,408	3.024	570,900	37.22	131,299	8.56	0.	0.00	2.866
1973	15,758,824	2.704	527,033	33.44	125,801	7.98	0.	0.00	2.546
1974	16,139,977	2.390	481,169	29.81	120,096	7.44	0.	0.00	2.237
1975	16,479,865	1.084	432,989	26.27	114,285	6.93	0.	0.00	1.934
1976	16,787,716	1.851	408,213	24.32	111,216	6.62	0.	0.00	1.769
1977	17,083,749	1.748	404,264	23.65	109,194	6.39	0.	0.00	1.727
1978	17,379,365	1.716	403,967	23.24	107,803	6.20	0.	0.00	1.704
1979	17,682,020	1.726	415,967	23.52	106,822	6.04	0.	0.00	1.743
1980	17,999,265	1.778	431,535	23.98	106,189	5.90	0.	0.00	1.808
1981	18,314,415	1.736	411,931	22.49	106,976	5.84	0.	0.00	1.665
1982	18,623,324	1.673	420,545	22.58	107,681	5.78	0.	0.00	1.680
1983	18,940,581	1.689	430,621	22.74	108,972	5.75	0.	0.00	1.698
1984	19,266,833	1.708	441,184	22.90	110,327	5.73	0.	0.00	10717
1985	19,601,990	1.725	451,153	23.02	111,695	5.70	0.	0.00	1.732
1986	19,944,189	1.731	457,941	22.96	113,002	5.67	0.	0.00	1.730
1987	20,291,804	1.728	464,562	22.89	114,271	5.63	0.	0.00	1.726

연도	연앙(Midyear) 인구수	증가율	역력자료(Calendar Year Date)						
			출생수	조출생률	사망수	조사망률	이민수	이민율	증가율
1988	20,649,584	1.748	480,976	23.29	115,707	5.60	0.	0.00	1.769
1989	21,022,586	1.790	498,049	23.69	117,314	5.58	0.	0.00	1.811
1990	21,411,618	1.834	516,276	24.11	118,947	5.56	0.	0.00	1.856
1991	21,814,655	1.865	529,782	24.29	121,037	5.55	0.	0.00	1.876
1992	22,227,302	1.874	539,592	24.28	123,044	5.54	0.	0.00	1.874
1993	27,6458,10	1.865	545,439	24.09	124,972	5.52	0.	0.00	1.857
1994	23,066,571	1.841	547,870	23.75	126,814	5.50	0.	0.00	1.825
1995	23,486,548	1.804	547,478	23.31	128,580	5.47	0.	0.00	1.764
1996	23,904,122	1.762	546,536	22.86	130,286	5.45	0.	0.00	1.741
1997	24,317,002	1.712	541,493	22.27	131,985	5.43	0.	0.00	1.684
1998	24,721,312	1.649	532,765	21.55	133,655	5.41	0.	0.00	1.674
1999	25,113,682	1.575	520,944	20.74	135,314	5.39	0.	0.00	1.536
2000	25,491,317	1.493	506,611	19.87	136,973	5.37	0.	0.00	1.450
2001	25,852,547	1.407	492,284	19.04	139,461	5.39	0.	0.00	1.365
2002	26,196,917	1.323	477,983	18.25	162,066	5.42	0.	0.00	1.252
2003	26,524,849	1.244	464,756	17.52	144,809	5.46	0.	0.00	1.206
2004	26,837,516	1.172	453,077	16.88	147,690	5.50	0.	0.00	1.183
2005	27,136,532	1.108	443,338	16.36	150,692	5.55	0.	0.00	1.073
2006	27,424,152	1.054	436,329	15.91	153,738	5.61	0.	0.00	1.031
2007	27,702,241	1.009	430,531	15.54	156,942	5.67	0.	0.00	0.968
2008	27,971,942	0.969	426,129	15.23	160,314	5.73	0.	0.00	0.951
2009	28,234,490	0.934	423,121	14.99	163,841	5.80	0.	0.00	0.913
2010	28,491,025	0.904	421,275	14.79	167,486	5.88	0.	0.00	0.891
2011	18,743,585	0.883	422,449	14.70	171,120	5.95	0.	0.00	0.874
2012	28,994,318	0.869	425,052	14.66	174,916	6.03	0.	0.00	0.863
2013	29,244,076	0.858	428,228	14.64	178,847	6.12	0.	0.00	0.853
2014	29,493,237	0.848	431,792	14.64	182,852	6.20	0.	0.00	0.840
2015	29,742,015	0.840	435,476	14.64	186,860	6.28	0.	0.00	0.836
2016	29,990,199	0.831	440,598	14.66	191,846	6.40	0.	0.00	0.826
2017	30,237,591	0.822	443,968	14.68	196,936	6.51	0.	0.00	0.817

연도	연앙(Midyear) 인구수	증가율	역력자료(Calendar Year Data)						
			출생수	조출생률	사망수	조사망률	이민수	이민율	증가율
2018	30,483,878	0.811	447,700	14.69	202,157	6.63	0.	0.00	0.805
2019	30,728,059	0.798	450,291	14.65	207,473	6.75	0.	0.00	0.790
2020	30,968,793	0.780	451,463	14.58	212,314	6.87	0.	0.00	0.771
2021	31,205,339	0.761	452,360	14.50	217,918	6.98	0.	0.00	0.751
2022	31,437,062	0.740	452,137	14.38	223,136	7.10	0.	0.00	0.728
2023	31,662,569	0.715	450,552	14.23	228,535	7.22	0.	0.00	0.701
2024	31,880,315	0.685	447,564	14.04	234,088	7.34	0.	0.00	0.670
2025	32,088,812	0.652	443,240	13.81	239,722	7.47	0.	0.00	0.634
2026	32,287,178	0.616	438,305	13.58	245,092	7.59	0.	0.00	0.598
2027	32,474,731	0.579	432,550	13.32	250,656	7.72	0.	0.00	0.560
2028	32,650,508	0.540	426,148	13.05	256,489	7.86	0.	0.00	0.520
2029	32,813,740	0.499	419,330	12.78	262,524	8.00	0.	0.00	0.478
2030	32,963,992	0.457	412,346	12.51	268,649	8.15	0.	0.00	0.436
2031	33,100,733	0.414	405,464	12.25	275,678	8.33	0.	0.00	0.392
2032	33,223,638	0.371	398,926	12.01	282,902	8.52	0.	0.00	0.349
2033	33,332,855	0.328	392,872	11.79	290,463	8.71	0.	0.00	0.307
2034	33,428,597	0.287	387,391	11.59	298,316	8.92	0.	0.00	0.266
2035	33,511,242	0.247	382,548	11.42	306,332	9.14	0.	0.00	0.227
2036	33,581,861	0.211	378,796	11.28	313,776	9.34	0.	0.00	0.194
2037	33,641,531	0.178	375,749	11.17	321,430	9.55	0.	0.00	0.161
2038	33,690,708	0.146	373,413	11.03	329,379	9.73	0.	0.00	0.131
2039	33,729,891	0.116	371,728	11.02	337,396	10.00	0.	0.00	0.102
2040	33,759,848	0.089	370,607	10.98	345,023	10.22	0.	0.00	0.076
2041	33,782,320	0.066	369,918	10.95	350,594	10.38	0.	0.00	0.057
2042	33,798,583	0.048	369,538	10.93	356,300	10.54	0.	0.00	0.039
2043	33,808,680	0.030	369,366	10.93	362,410	10.72	0.	0.00	0.021
2044	33,812,471	0.011	369,279	10.92	368,654	10.90	0.	0.00	0.002
2045	33,809,902	-0.008	369,154	10.92	374,915	11.09	0.	0.00	-0.017
2046	33,801,250	-0.026	369,286	10.93	380,829	11.27	0.	0.00	-0.034
2047	33,786,954	-0.042	369,138	10.93	386,187	11.43	0.	0.00	-0.050
2048	33,767,149	-0.059	368,627	10.92	391,187	11.58	0.	0.00	-0.067
2049	33,741,762	-0.075	367,700	10.90	395,913	11.73	0.	0.00	-0.084
2050	33,710,608	-0.092	366,334	10.87	400,429	11.88	0.	0.00	-0.101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앞의 책, pp. 82-85.에서 재인용함.

### Ⅲ. 노동력 구조

#### 1. 노동력 공급구조

##### (1) 경제활동인구 추이

<표 32>에서와 같이 니콜라스 에버스타드(Nicholas Eberstadt)의 추정 자료에 의하면, 1990년 북한의 노동가능인구는 총인구(연앙인구) 2,141만 2천명 중 약 65%인 1,389만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1990년 이후 매년 약 1.8%의 증가율을 보인 북한의 총인구는 1995년에 2,348만 7천 여명인데, 이 중 1995년 노동가능인구는 16세 이상으로 볼 때 1990년에 비해 약 9%가 증가한 약 1,518만명으로 당해 연도 총인구의 약 65%에 해당된다.

이 때 <표 32>에 의한 10개의 연령구간을 다시 4개의 연령구간으로 구분해 보면, 1995년 현재 북한의 노동(또는 생산)가능인구는 16-29세(靑年)가 670만6천 명이고, 30-44세(壯年)가 524만5천 명이고, 45-59세(更年)가 266만1천 명이고, 60-64세(老年)가 56만8천 명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1995년 현재 노동(또는 생산)가능인구는 아직도 청장년층이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아직도 젊고 왕성한 노동(생산)가능인구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표 32> 노동(생산)가능인구 추계 : 1990-2010

(단위 : 천명)

연도 연령구간	1990	1995	2000	2005	2010
16-19	2,104	1,542	1,611	1,792	2,061
20-24	2,658	2,521	1,936	2,029	2,271
25-29	2,042	2,643	2,507	1,926	2,019
30-34	1,875	2,027	2,625	2,492	1,915
35-39	1,381	1,857	2,009	2,604	2,472
40-44	1,101	1,361	1,833	1,985	2,574
45-49	901	1,076	1,333	1,798	1,950
50-54	758	869	1,041	1,293	1,747
55-59	620	716	825	992	1,237
60-64	450	568	661	765	926
총계	13,890	15,180	16,381	17,676	19,172

주 : 본고에서는 북한의 노동가능인구연령을 16세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표>에서는 필자가 Nicholas Eberstadt의 추정치에서 15세인구를 제외하여 계산한 것임. 그러나, Nicholas Eberstadt의 추정치에서 2005년의 16-64세의 총계치가 17,675로 나타나고 있지만, 필자의 계산법에 따라 1,000명의 오차가 있어도 그대로 사용한 것임.

자료 : 한국경제신문사 부설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앞의 책, pp.225-228.

그러나 경제건설에서 노동력의 최대 동원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노동력의 효과적 동원은 자원의 투입 증가를 통한 양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외연적 성장전략에 특히 중요하다.

북한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력 동원 체제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생산과정에 모든 가치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사회주의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16세에서 60까지(여자의

경우는 55세까지로 되어 있다.) 이 연령계급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어 전국적 또는 특수적 계획에 따라 상이한 산업부문에 그리고 이들 부문의 필요에 따라 배분된다. 필요한 노동력(인력)의 공급원은 연령별로 보면 <표 31>과 같다. 이러한 노동법에 따라 매년 16살 이상이 된 수십만명의 노동력이 각급 생산부문에 투입된다. 고등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청소년들 가운데서 산업분야에 진출할 노동력이 선발된다. 모든 아동들은 11년제 의무교육을 받아 고등중학교 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고등중학교 과정을 마친 청소년들은 대체로 16살이 된다. 인민군에 입대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된 자들을 제외하고 모두 공장이나 기업에 그리고 협동농장에 집단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남한의 통일원 추계에 의한 <표 33>에 보듯이 북한의 노동가능인구(또는 생산가능인구)는 15세 이상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1960년대 중반이후 약 744만 6천여명, 1970년대 약 921만 8천여명, 1980년대 약 1,238만 7천여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노동가능인구는 1990년 이후 1994년말까지 평균 약 1,523만 9천명여명으로 1980년대비 약 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94년 북한의 노동가능인구는 당해연도 총인구 약 2,295만 3천여명 중 약 70% 정도인 1,597만 1천명으로 추정된다.

<표 32>와 <표 33>에 의한 자료가 연령상 구분 차이(15세-16세)에도 불구하고, 통일원 자료에 의하면 1995년말 현재 북한의 노동가능인구(또는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의 약 70%인 1,633만7천 명 정도에 이르고 있다.

<표 33>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 천명,%)

연도 구분	생산가능연령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1965	7,081	4,316(5,243)	61.0
1966	7,294	4,445	60.9
1967	7,459	4,578	61.4
1968	7,626	4,715	61.8
1969	7,770	4,856	62.5
1970	7,970	5,002(5,908)	62.8
1971	8,242	5,152	62.5
1972	8,513	5,307	62.3
1973	8,784	5,466	62.2
1974	9,056	5,766	63.7
1975	9,327	5,974(6,812)	64.1
1976	9,625	6,189	64.3
1977	9,923	6,411	64.6
1978	10,222	6,636	64.9
1979	10,519	6,861	65.2
1980	10,817	7,005(7,838)	64.8
1981	11,151	7,336	65.8
1982	11,483	7,578	66.0
1983	11,813	7,821	66.2
1984	12,148	8,072	66.4
1985	12,480	8,339(9,084)	68.4
1986	12,885	8,678	67.3
1987	13,291	8,868	66.7
1988	13,696	9,122	66.6
1989	14,101	9,383(10,174)	66.5
1990	14,506	9,652	66.5
1991	14,872	10,083	67.8
1992	15,239	10,430	68.4
1993	15,605	10,704	68.6
1994	15,971	11,047	69.2
1995	16,337	11,400	69.8

주 : 1) 생산가능연령인구와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이상 인구로 추계하되,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

연령인구 중 실업자를 포함한 취업자를 지칭함.

2) 경제활동인구에서 ( )은 FAO의 추정치임.

3)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100

4) 1995년의 경우 앞의 <표 8>에 의한 필자의 추계임.

자료 : 통일원, 남북한 사회·문화지표 1991, 남북한주요통계비교 1991, 남북한주요경제지표 1991·1992·1993, 북한의 「제3차7개년계획」 종합평가 1994, 남북한경제지표 1995 ; 공보처, 도표로 본 북한의 오늘 1993 ; 한국무역협회, 주요북한경제지표 1995. ; FAO, FAO Production Yearbook 1985·1990.

그렇다면, 이와같은 북한의 노동가능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 중에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인구(또는 경제활동인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에 따른 북한의 경제활동인구의 현황을 통해 북한의 노동력 참여율(또는 경제활동참가율)은 얼마나 될 것인지를 <표 33>를 통해 분석해보자.

1965년의 경우에, 북한의 경제활동인구는 총인구 1,225만 2천명 중 약 35%인 431만 6천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708만 1천여명 중 약 61%에 해당하고 있다. 그 후 1970년대의 경우 평균적으로 북한의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921만 8천여명 중 약 64%인 587만 6천여명이고,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63.7%로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에 비해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이 각각 약 3%의 증가를 보인 1980년대의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1,238만 7천명 중 약 67%인 824만여명이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6.5%에 이르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 1991년부터 북한의 경제활동인구가 약 1천만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약 68.5%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1994년말 현재 북한의 경제활동인구는 1990년의 965만 2천명에서 약 14.5% 증가한 1,104만 7천여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의 66.5%에서 약 3% 증가한 69.2%을 보이고 있다. <표 33>은 북한에 있어서의 노동력 동원실태와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노동인구의 구조를 시사해주고 있다. 즉 1994년 현재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노동인구는 총인구의 69.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1995년말 현재 북한의 경제활동인구는 약 1,140만 명,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69.8%로 추정될 수 있겠다.

## (2)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북한당국은 소위 ‘실업자가 없는 나라’라고 계속 주장해왔고, 또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상 거의 ‘노동력의 완전배치(완전고용)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통설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비경제활동인구는 거의 무의미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통설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찾을 수 있겠다.

첫째, 북한의 경제활동인구는 북한의 총인구 중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 해답은 곧 반대로 북한의 총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참여한 나머지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표 34>를 통해 보면, 북한의 총인구대비로 본 비경제활동인구는 1960년대 중반 이후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약 832만 6천명이며 비경제활동참가율이 약 64.5%에 이르고, 1970년대의 경우에 각각 약 1,004만 9천명과 약 62.7%, 1980년대의 경우에 각각 약 1,155만 2천명, 약 58.4%를 보여줌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수의 증가에 비해 비경제활동참가율이 약 2% 정도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 북한의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 총인구의 약 60%대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높은 편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그에 반하여 1990년대 초반의 경우에 총인구대비 북한의 비경제활동인구는 평균적으로 약 1,195만 3천명이고, 비경제활동참가율은

약 53.5%를 차지하여 1980년대에 비해 무려 약 3%정도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하여 1994년 총인구대비 북한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990년의 1,206만8천명에서 약 1.3% 감소한 1,190만6천명으로 나타나고, 비경제활동참가율도 1990년의 55.6%에서 약 3.7% 감소한 51.9%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총인구의 약 50%대에 근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1995년말 현재 총인구 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1994년의 1,190만6천명에서 약 -0.4% 줄어든 1,186만1천명 정도이고, 비경제활동참가율은 1994년의 51.9%에서 0.9% 줄어든 51.0%를 보여줌으로써 점차 경제활동인구수와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북한의 경제활동인구는 실제로 북한의 생산가능인구 중에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가?

실제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15세 이상 북한의 생산가능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학생, 순수가사종사자, 연로자, 기타(예를들어 군인, 노동불능자 등) 등이다. 북한에서 ‘실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가에 의해 노동력이 ‘과잉(또는 배치)’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표 34>를 보면 1965년에 생산가능인구의 39%인 약 276만 5천여명에 불과하던 비경제활동인구가 10년 후 197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932만 7천명 중 35.9%인 335만 3천명으로 약 21% 정도 증가하고 있다. 1985년의 경우에 생산가능인구의 1,248만명 중 31.6%인 394만 1천명이던 비경제활동인구는 1975년에 비해 약 18% 정도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1994년의 경우 북한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985년의 약 25% 정도 증가한 492만 4천여명이고, 비경제활동참가율은 0.8% 정도 감소한 30.8%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965년 이후 1994년까지 계속 증가한 반면 비경제활동참가율은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통계상 효율적인 노동력 활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처럼 199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의 비경제활동참가율이 1990년 33.5%, 1991년 32.2%, 1992년 31.6%, 1993년 31.4%, 1994년 30.8%, 30.2%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경향은 반대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 의미는 1987년부터 실시된 제3차7개년계획이 1993년 실패로 끝났음을 북한당국이 솔직하게 시인했듯이 1990년대의 북한경제는 원자재난, 외화난, 에너지난 등으로 축소재생산의 국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어느 경제부문의 생산활동에 노동인구를 배치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의문은 북한이 실업자가 없는 완전고용의 노동력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과 통설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노동인구 중 상당한 규모가 과잉배치되었거나 불필요노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노동력 과잉배치’나 거대한 ‘불필요 노동력’ 규모란 현상은 북한정권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라는 원시 기독교 윤리에 따라 수립된 배급제도와, 나아가서는 발전된 기술생산조건이 갖추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주로 근골노동(筋骨勞動)과 수노동(手勞動)에 의거하여 비능률적인 외연적 경제건설 전략을 부단히 추구해 왔다는 것, 경제잉여를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서가 아니고 신정(神政) 문화·문명의 건설과 부단한 군확(軍擴)노선의 추구에 탕진해 왔다는 것, 그리고 인간을 위한 생산력을 속박해 버렸다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 점에 관해서 여기서는 더 이상 상론(詳論)을 얹기로 한다.

<표 34> 총인구대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

인구-비율 연도	총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인구수	참가율	인구수	비참가율
1965	12,252	4,316	35.0	7,936	64.8
1966	12,584	4,445	35.3	8,139	64.7
1967	12,924	4,578	35.4	8,346	64.6
1968	13,274	4,715	35.5	8,559	64.5
1969	13,633	4,856	35.6	8,777	64.4
1970	14,002	5,002	35.7	9,000	64.3
1971	14,436	5,152	35.7	9,284	64.3
1972	14,870	5,307	35.7	9,563	64.3
1973	15,304	5,466	35.7	9,838	64.3
1974	15,783	5,766	36.5	10,017	63.5
1975	16,172	5,974	36.9	10,198	63.1
1976	16,572	6,189	37.3	10,383	62.7
1977	16,971	6,411	37.8	10,560	62.2
1978	17,371	6,636	38.2	10,735	61.8
1979	17,770	6,861	38.6	10,909	61.4
1980	18,170	7,005	38.6	11,165	61.4
1981	18,535	7,336	39.6	11,199	60.4
1982	18,900	7,578	40.1	11,322	59.9
1983	19,265	7,821	40.6	11,444	59.4
1984	19,630	8,072	41.1	11,558	58.9
1985	19,995	8,539	42.7	11,456	57.3
1986	20,340	8,678	42.7	11,662	57.3
1987	20,685	8,868	42.9	11,817	57.1
1988	21,030	9,122	43.4	11,908	56.6
1989	21,375	9,383	43.9	11,992	56.1
1990	21,720	9,652	44.4	12,068	55.6
1991	22,028	10,083	45.8	11,945	54.2
1992	22,336	10,430	46.7	11,906	53.3
1993	22,645	10,704	47.3	11,941	52.7
1994	22,953	11,047	48.1	11,906	51.9
1995	23,261	11,400	49.0	11,861	51.0

주 : 1) 경제활동인구비율 = 경제활동인구 / 총인구 × 100, 비경제활동인구비율 =

비경제활동인구 / 총인구 × 100

2) 앞의 <표 1> 북한의 총인구 추계비교에서 통일원 추정치와 위의 <표 33>

북한의 경제활동인구 추이수치를 근거로 필자가 비경제활동인구를 추정한 것임.

<표 35> 노동가능인구대비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인구-비율 연도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인구수	참가율	인구수	비참가율
1965	7,081	4,316	61.0	2,765	39.0
1966	7,294	4,445	60.9	2,849	39.1
1967	7,459	4,578	61.4	2,881	38.6
1968	7,626	4,715	61.8	2,911	38.2
1969	7,770	4,856	62.5	2,914	37.5
1970	7,970	5,002	62.8	2,968	37.2
1971	8,242	5,152	62.5	3,090	37.5
1972	8,513	5,307	62.3	3,206	37.7
1973	8,784	5,466	62.2	3,318	37.8
1974	9,056	5,766	63.7	3,290	36.3
1975	9,327	5,974	64.1	3,353	35.9
1976	9,625	6,189	64.3	3,436	35.7
1977	9,923	6,411	64.6	3,512	35.4
1978	10,222	6,636	64.9	3,586	35.1
1979	10,519	6,861	65.2	3,658	34.8
1980	10,817	7,005	64.8	3,812	35.2
1981	11,151	7,336	65.8	3,815	34.2
1982	11,483	7,578	66.0	3,905	34.0
1983	11,813	7,821	66.2	3,992	33.8
1984	12,148	8,072	66.4	4,076	33.6
1985	12,480	8,539	68.4	3,941	31.6
1986	12,885	8,678	67.3	4,207	32.7
1987	13,291	8,868	66.7	4,423	33.3
1988	13,696	9,122	66.6	4,574	33.4
1989	14,101	9,383	66.5	4,718	33.5
1990	14,506	9,652	66.5	4,854	33.5
1991	14,872	10,083	67.8	4,789	32.2
1992	15,238	10,430	68.4	4,808	31.6
1993	15,605	10,704	68.6	4,901	31.4
1994	15,971	11,047	69.2	4,924	30.8
1995	16,337	11,400	69.8	4,937	30.2

주 : 앞의 <표 33>에 의해 필자가 추정한 자료임.

## 2. 노동력 배치(“고용”)구조

### (1) 산업구조와 공업구조의 변화

북한경제의 산업구조는 <표 36>에서 처럼 1980년대까지 GNP(또는 GDP)에 대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고 하겠다. 즉, 북한경제의 산업구조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 평균 약 46%에서 1970년대

약 60%대로 급속하게 높아졌으나, 1980년대에는 여러 기관들의 통계 자료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로 50%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1980년대까지 북한경제는 산업구조에서 농업보다 공업, 경공업보다 중공업, 소비재보다 생산재 부문을 더 중점산업으로 발전시켜왔음을 감지할 수 있겠다. 그 이후 <표 36>에서 처럼 1990년대초의 산업구조는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상 평균 약 37%대로 농림수산업의 약 28%,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의 약 35%에 비해 아직도 공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6> 산 업 구 조 변 화

(단위 : %)

연도		1960	1965	1970	1975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농림수산업		28.9	24.4	21.5	21.8	20.0	21.2	21.2	26.8	28.0	28.5	27.9	29.5
공업	광공업	41.3	51.5	57.3	63.0	60.0	46.5	46.0	42.8	37.9	33.8	32.9	31.4
	제조 (중공업)	55.6	51.2	62.0	63.7	67.3	67.3	67.1	73.3	73.3	74.4	72.5	70.3
	업 (경공업)	44.4	48.8	38.0	36.3	32.7	32.7	32.9	26.7	26.7	25.6	27.5	29.6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29.8	24.1	21.2	15.2	20.0	32.3	32.8	30.4	34.1	37.7	39.2	39.1

주 : 광공업은 광업 및 제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은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84), p.422. ;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1993.12.), p.248 ; 한국은행 조사제2부, 1993년 북한 GNP 추정결과(1994.6), p.6. ; 한국무역협회, 1995년도 주요 북한경제지표, p. 28.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1995.11.), p. 185.

물론 북한경제의 공업은 소비재를 주로 생산하는 '경공업'과 생산수단을 주로 생산하는 '중공업'으로 구분하고, 남한의 '신국민계정'에 따른 산업분류에서와 같이 광업, 어업, 임업, 전기 및 가스, 건설 등을 북한의 공업구조에 포함시킬 때 1990년대초 북한경제의 공업 비중은 평균 약 45% 이상으로 되어 북한경제의 산업구조에서 공업의 비중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된다.

북한경제의 공업구조는 <표 36>를 통해 보듯이 중공업이 1980년대 중반 약 67%대에서 1990년대초 약 73%대로 약 6%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공업은 1980년대 중반 약 33%대에서 1990년대초 약 27%대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북한경제의 산업구조는 <표 37>에서 보듯이 1991년의 경우 아직도 1980년대처럼 중공업, 농림수산업, 광업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경공업,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 등의 비중은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2년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의 정체 상태에서 광공업의 비중이 대폭 감소하고 제조업 중 경공업보다 중공업의 비중이 급감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부문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3년의 경우에 북한의 산업구조는 농림수산업, 광공업, 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등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반해 제조업 중 경공업, 서비스업(특히 정부부문) 등은 약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1994년말 산업구조는 농림수산업이 29.5%, 광공업이 31.4%,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이 39.1%를 보여주고 있다. 1994년도에 농림수산업은 아직도 비중이 높아 산업구조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광공업은 -4.2%(1991년 -11.9%, 1992년 -15.0%, 1993년 -3.2%)로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은 특히 건설업 부문이 -26.9%로 4년 동안(1991년 -3.4%, 1992년 -2.1%, 1993년 -9.7%)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구조의 후진성, 광공업과 건설업 부문에서 계속된 마이너스 성장 등은 북한경제를 더욱 더 침체의 늪지대로 몰고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이런 주요 원인들은 북한당국이 1994년부터 농업제일주의·경공업제일주의·무역제일주의라는 경제운용의 방침으로 노동자들에게 기술적·물질적 토대를 강화시키고, 인민들에게 생활향상을 증진시키는 것마저 실패하도록 작용하고 있다.

<표 37> 1991-1993년간 산업구조부문과 산업별성장률 추이

(단위 : %,경상GDP = 100)

연도별 변 화 추 이 율 산업별 구분	산업구조			산업별 성장률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농림수산업	28.0	28.5	27.9	2.8	△2.7	△7.6
광공업	37.9	33.8	32.9	△11.9	△15.0	△3.2
광업	7.9	9.2	8.2	△6.8	△6.1	△7.2
제조업	30.0	24.6	24.7	△13.4	△17.8	△1.9
(경공업)	(8.0)	(6.3)	(6.8)	(△4.4)	(△7.3)	(5.0)
(중공업)	(22.0)	(18.3)	(17.9)	(△15.8)	(△21.0)	(△4.2)
전기 가스 수도	5.0	5.1	4.8	△4.5	△5.7	△8.7
건설	8.2	9.1	8.5	△3.4	△2.1	△9.7
서비스	20.9	23.5	25.9	2.5	0.8	1.2
(정부)	(13.0)	(15.0)	(16.8)	(4.4)	(2.4)	(2.3)
(기타)	(7.9)	(8.6)	(9.0)	(△0.3)	(△1.7)	(△0.5)
국내총생산(GDP)	100.0	100.0	100.0	△5.1	△7.7	△4.2
국민총생산(GNP)	-	-	-	△5.2	△7.6	△4.3

자료 : 한국은행조사제2부,1993년 북한 GNP 추정결과(1994.6),pp.5-6.

(2) 농업노동력 구조

북한의 농업인구는 이미 남한의 통계 자료에 의한 앞의 <표 14>에서 분석해 본 것처럼 1965년 이후 1994년 현재까지 양적으로 농가호수와 농가인구가 계속 점진적인 증가를 보여왔다. 즉, 1960년의 경우에 농가호수가 1,096천호, 농가인구가 4,999천명에서 1994년의 경우에는 농가호수가 1914천호, 농가인구가 8420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특이하게 1994년의 경우는 전년도 1993년의 농가호수 191만 9천호, 농가인구 844만 3천명에서 1994년의 농가호수 191만 4천호, 농가인구 842만명으로 감소되어 전년도에 비해 각각 0.3% 정도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식량기구(FAO)의 통계 자료에 의한 <표 38>은 남한의 통일원 통계수치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활동인구 중 농업종사자의 비중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농업종사자는 1965년의 경우에 경제활동인구수 524만 3천명, 농업종사자수 299만 8천명으로 농업종사자의 비중이 약 57% 정도였으나, 1975년의 경우에 경제활동인구수 681만 2천명, 농업종사자수 325만 4천명으로 농업종사자의 비율이 약 49% 정도로 급감하였다. 그 후 1986년의 경제활동인구 중 농업종사자의 비중은 1975년에 비해 -10.7%, 전년도 1985년에 비해 -1%로 나타나고 있어 1965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8> 농업인구 추정(1965-1986)

(단위 : 천명, %)

연도 구분	총인구	농가인구	경제활동인구(A)	농업종사자(B)	비율(B/A×100)
1965	12,100	6,919	5,243	2,998	57.2
1970	13,892	7,333	5,908	3,118	52.8
1975	15,853	7,574	6,812	3,254	47.8
1980	18,025	7,715	7,838	3,355	42.8
1985	20,385	7,741	9,084	3,450	38.0
1986	20,872	7,749	9,346	3,470	37.1

자료 : FAO, Production Yearbook, 1985·1987.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북한경제의 전개과정(서울 : 경남대출판부,1990), pp.83-114.에서 재인용함.

이와같은 북한의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필자의 추정에 의한 <표 39>처럼 1990년대 초반까지 추정하여 북한의 농업노동력 구조를 예측해 볼 수 있겠다. 필자의 추정에 의한 <표 39>를 살펴 보면, 북한의 농업노동인구는 1987년 337만명, 1989년 356만 6천명, 1991년 383만 2천명, 1993년 396만명, 1994년 408만 7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활동인구 중 농업노동인구의 비중은 1987년-1992년의 기간 동안에 약 38.0%로 정체되어오다가 1993년부터 37.0%로 감소되어 1994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표 38>과 <표 39>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업노동인구의 비중은 1965년의 57.2%에서 1994년에는 37.0%로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39> 농업부문 노동력 규모(1987-1994)

(단위 : 천명, %)

연도 구분	총인구	농가인구	경제활동인구(A)	농업종사자(B)	비율(B/A×100)
1987	20,685	7,778	8,868	3,370	38.0
1988	21,030	7,991	9,122	3,466	38.0
1989	21,375	8,101	9,383	3,566	38.0
1990	21,720	8,210	9,652	3,668	38.0
1991	22,028	8,327	10,083	3,832	38.0
1992	22,336	8,398	10,430	3,963	38.0
1993	22,645	8,443	10,704	3,960	37.0
1994	22,953	8,420	11,047	4,087	37.0

주 : <표 1>, <표 14>, <표 33> 에서 필자가 추정한 것임.

### (3) 산업별 노동력 배분구조

북한의 산업별 노동력 비율은 1960년-1987년 기간 동안에 <표 40>에서 처럼 각 자료마다 차이가 나지만, 농림수산업 노동자 비중은 1960년의 약 49%에서 1970년 약 46%, 1987년 약 35%로 계속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하여 공업노동자의 비중은 1960년 약 29%, 1970년 약 26% 에서 1987년 약 45%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은 1960년 약 22%에서 1970년 약 28%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87년에는 약 20%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40> 산업분야별 노동력 배분구조의 추이

(단위 : %)

추정자료 연도	남한의 통일원 자료			황의각의 자료			니콜라스 에버스타트의 자료		
	농림수산업	공업 및 제조업	기 타 서비스업	농림수산업	공업 및 제조업	기 타 서비스업	농림수산업	공업 및 제조업	기 타 서비스업
1953				67.0					
1956				40.0					
1960	57.6	21.8	20.6	45.5	23.2	(31.3)	44.4	41.6	13.7
1961	57.8	21.4	20.8						
1962	57.5	22.0	20.5						
1963	57.3	22.5	20.2				42.8	42.0	15.1
1964	54.9	20.5	24.7						
1965	56.3	21.1	22.6						
1966	55.5	21.7	23.0						
1967	54.3	22.3	23.4						
1968	53.3	22.9	23.8						
1969	52.3	23.5	24.2						
1970	51.3	24.3	24.4	41.4	27.6	(31.0)			
1971	50.0	24.9	24.6						
1972	49.5	25.6	24.9						
1975				43.0	30.4	(26.6)			
1980				45.9					
1983				44.0					
1985				40.5					
1986							25.9	57.2	17.0
1987	43.0	39.0	(18.0)	38.0	37.0	25.0	25.3	57.9	16.8
1988				38.0	37.5	24.5			
1989				37.5	38.0	24.5			

주: 1) 통일원의 자료와 황의각의 자료에서 기타 서비스업은 기타 생산부분과 비생산부분을 지칭한 것임.

2) 니콜라스 에버스타트의 자료에서 농림수산업은 농민,공업과 제조업은 국영기업노동자와 협동기업노동자, 기타 서비스업은 공무원 및 사무원의 수치를 말하는데,1960년대 수치에는 군인수를 포함하고 1980년대 수치에는 군인수가 제외됨.

3) ( ) 은 필자의 추정임.

자료: 통일원조사연구실, 남북한 사회문화역량 종합평가 1990, p.243.,남북한 사회문화역량 종합평가 1990, p.68. ; 황의각, 북한경제론(서울 : 나남,1993), p.276. ;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센터, 앞의 책, p.63.

한편, 이와같이 1987년까지 북한의 산업별 노동력 비중 추이에 근거하여 필자는 1988년 이후 1994년까지의 산업별 노동력 구조를 <표 41>과 같이 추정해본다. <표 41>를 통해 1988년-1994년 동안의 산업별 노동력 구조를 살펴보면, 농림수산업 노동력 규모는 1993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광공업 노동력 규모는 199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1991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2년 이후부터 급격한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1994년말 현재에도 광공업부분의 노동력 규모가 전체 노동인구의 약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기타 서비스업 노동력 규모가 약 26%, 농림수산업 노동력 규모가 약 25.7%로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1> 산업별 노동력(생산가능인구) 구조의 변화(1988-1994)

(단위 : 천명)

연도 \ 산업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농림수산업	3,492	3,568	3,699	3,866	3,977	3,964	4,105
광공업	7,807	7,882	8,268	8,031	7,635	7,646	7,666
기타 서비스업	2,534	2,651	2,655	2,974	3,657	3,995	4,200

주 : <표 33>, <표 36>, <표 37>, <표 40>에서 필자가 추정 한 것임.

또한, 북한의 직종별 노동력 구조는 이미 앞의 <표 17>에서 북한의 직업별 인구구조를 통해 자세히 분석해 보았듯이 국영기업노동자의 비중이 1946년 12.5%에서 비교적 높은 추세로 증가하여 1987년 57.7%로 늘어났고, 공무원 및 사무원의 경우는 1946년 6.2%에서 1965년 16.5%로 증가한 이후 1987년 16.8%에 이르기까지 정체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원 농민은 1956년 40.0%에서 1965년 40.8%로 거의 정체현상을 보이다가 1986년부터 약 25%대로 급감하고 있다. 그에 따른 협동기업노동자는 1949년 0.3%에서 1960년 3.3%로 증가하다가 1963년 1.9%이후 1987년 0.9%로 다시 격감하였다. 물론, 이미 앞에서 인구통계의 직업별 인구구조를 통해 분석했듯이 1958년의 소위 ‘농업협동화’와 ‘사영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료에 따라 개인농민(私農), 수공업자, 기업가 등은 1958년 이후 1987년까지 사라졌다. 그 이후 <표 45>에서도 언급되겠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직업별 노동력 구조는 농업부문과 광공업의 노동자는 정체내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비생산직 사무원 등 기타 서비스업부문의 노동자가 상당히 높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4) 성별 노동력 구조

이미 앞에서 인구통계의 성별인구구조를 통해 자세히 분석하였듯이 북한의 총인구 중 성별인구는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16년이 지난 1970년의 경우(45) 총인구 1,461만 9천명 중 남성이 712만 7천명, 여성이 749만 2천명으로 여성이 총인구의 약 51%를 차지하여 남성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후 앞의 <표 3>에서 처럼 1975년 이후부터 여성인구는 총인구의 약 54%를 차지하여 1987년까지 거의 이 수준을 보임으로써 여성이 남성보다 비중을 높게 차지하였다. 그러나, 앞의 <표 4>를 통해 보듯이 1992년에 북한의 총인구 중 여성과 남성의 성비는 각각 50%로 완전히 같은 비율로 나타난 이후 1993년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94년말 현재 총인구 2,295만 3천명 중 남성은 1,148만 5천명, 여성은 1,146만 8천명으로 완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비중을 더 높게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별인구 추이에 따라 <표 42>를 보면, 북한의 성별 노동자 비율 중 남성노동자는 1953년 73.7%에서 1956년 80%로 증가를 보이나 1959년 65%로 급감한 이래 1962년 65.1%에 이르기까지 정체현상을 보이고, 또 다시 1964년 61.5%로 감소한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내어 1987년 42.9%를 차지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여성노동자는 1953년 26.3%에서 1956년 20.0%로 급감하지만 1959년 35%로 급증하다 곧 1960년에 감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86년에는 무려 57.2%로 성장하여 1987년에도 같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1986년-1987년 동안의 노동가능인구 중 직업별인구에서 차지한 성별 노동자는 <표 43>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여성노동자가 모든 직종에 노동배치를 당하고 있다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즉, 1986년의 경우 여성노동자는 국영기업노동자의 전체종사자 683만명 중 56%를, 공무원 및 사무원의 전체종사자 85만 5천명 중 58%를, 농민의 전체종사자 314만 1천명 중 58%를, 협동기업노동자 11만명 중 63%를 차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1987년의 경우에도

45) 북한에서는 16세 이상을 생산가능인구 또는 노동가능인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고는 한국전쟁 이후 16년이 지난 1970년부터 성별 노동력 구조를 분석한다.

여성노동자는 국영기업노동자가 56%, 공무원 및 사무원이 58%, 농민이 59%, 협동기업노동자가 63%를 차지하여 각 직종의 전체종사자 가운데서 남성노동자 보다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 당국은 여성 노동력의 최대한 동원에 주목을 하거나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면 북한당국은 여성 노동력을 이들의 주거지 가까운 곳에 있는 직장이나 공장에 배치시키거나, 또한 가내수공업을 맡기는 것도 바로 부녀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금만 육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지 않아 노력동원이 가능한 노인들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동당은 선전선동을 통해 부녀자들과 노령자들이 육체적으로 노동할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도 날마다 노동전선으로 내몰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의 현실은 사실상 무의미한(순생산물의 산출에 아무런 기여도 못한다는 의미에서) 갖가지 노동으로 인민들을 휘몰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이러한 현실은 김일성-김정일 가계(家系)에 대한 우상숭배를 위해 제조·설치된 각종 우상물(偶像物) 관리에 할당된 노동력 배치를 강화시키는 데로 모아지고 있다. 이 때 각종 우상물 관리에 배치된 노동력 규모는 1995년 현재 약 18만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 주로 여성인력의 노동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력(또는 인간의 생명) 재생산과 직접·간접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런 노동은 비기초(非基礎) 노동으로 간주된다.<sup>46)</sup>

이런 사실들과 <표 42>에 따르면, 1995년말 현재 경제활동 여성 중 노동력의 수가 아직도 크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고 하겠다. 더구나 북한당국은 현재까지 여성 인력을 노동전선에 투입했지만 동원능력도 많은 난관에 봉착했었다.

그 중 전후복구시기에 북한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많은 북한 연구가들이 지적하여 왔다. 1950년대에 북한은 한국전쟁의 참화와 월남으로 인한 심대한 노동력 손실을 겪었다. 인력부족은 특히 전후 맨손과 근골노동에 의거한 경제복구사업에서 극심하게 나타났다. 인력부족 사태는 인구의 상당한 부분이, 특히 젊은 노동력이 군에 징발당하므로써 야기됐던 것이다.

한때 북한을 괴롭혔던 노동력 부족 문제는 지금은 사라지고, 그 사태는 반전돼 지금은 축소재생산, 생산설비가 노령화로 마손돼 점증적으로 폐기처분되는 엄중한 사태 등으로, 그리고 에너지난, 원자재난 등에 따라 유효노동력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장·기업소의 휴업사태의 속출과 생산설비의 엄청난 가동률 저하로 인한 엄청난 규모의 노동력의 유희화가 발생하고 있다. 즉 북한은 지금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력(조업단축을 당한 노동력, 유희노동력)의 생존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표 42> 성별 노동자 비율 추이(1953-1987)

(단위 : %)

연도 성별	1953	1956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71	1976	1986	1987
남성	73.7	80.0	65.0	67.3	66.7	65.1	63.8	61.5	54.5	52.0	42.8	42.9
여성	26.3	20.0	35.0	32.7	33.3	34.9	36.2	38.5	45.5	48.0	57.2	57.1

주 : 1) 1953-1964의 통계비율은 손봉숙, 북한의 여성-그 삶의 현장(서울 : 공보처, 1993)p,142.의 통계수치에서 필자가 계산한 것임.

2) 1971-1976의 통계비율은 이태영, 북한여성(서울 : 실천문화사, 1988),p.193에서 재인용함.

3) 1986-1987의 통계비율은 아래 <표 43>에서 필자가 계산한 것임.

46) 더 자세한 것은 Kil-Nam Oh, Das Paradis ohne Sonne, Seoul 1995, p.70.이하를 참조 바람.

<표 43> 16세 이상 직업별 남녀 노동자 구성 (1986-1987)

(단위 : 천명)

연도별 인구 직업별 구분	1986			1987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국영기업노동자	6,830	2,990	3,840	7,135	3,134	4,001
공무원 및 사무원	2,060	855	1,205	2,103	879	1,224
농민	3,141	1,305	1,836	3,167	1,312	1,855
협동기업노동자	110	41	69	112	42	70
총계	12,141	5,191	6,950	12,517	5,367	7,150

주 : ‘국영기업노동자’는 국영기업소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자이고, ‘공무원 및 사무원’은 정부기관이나 기타 기관에 근무하는 자이고, ‘농민’은 협동농장에서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는 자이고, ‘협동기업노동자’는 협동기업소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자를 지칭함. 노인·퇴직자 (retired), 노동불능자 등 모든 16세 이상의 인민들은 이상의 직업적 범주 중 한 군데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군인은 제외되어 있음.

자료 : 한국경제신문사부설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앞의책, p.221에서 재인용함.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추정한 <표 44>에서 보듯이 북한의 산업별 남녀 노동력 비중은 1986년 전체종사자 1214만 1천명 중에서 농림수산업부문의 경우 남성노동자가 10.7%, 여성노동자가 15.1%로 나타내고, 광업 및 제조업부문의 경우 남성노동자가 25%, 여성노동자가 32%로 나타나고, 기타 서비스부문의 경우 남성노동자가 7%, 여성노동자가 9.9%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7년의 전체종사자 1251만 7천명 중 각 산업별 남녀 노동력 비중을 보면, 농림수산업부문은 남성 10.5%, 여성 14.8%를, 광업 및 제조업부문은 남성 25.4%, 여성 32.5%를, 기타 서비스부문은 남성 7%, 여성 9.8%를 보여주고 있다.

<표 44> 산업별 남녀 노동자(생산가능인구) 구성(1986-1987)

(단위 : 천명)

구분 연도	농림수산업		광업 및 제조업		기타 서비스업		소계		총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86	1,305	1,836	3,031	3,909	855	1,205	5,191	6,950	12,141
1987	1,312	1,855	3,176	4,071	879	1,224	5,367	7,150	12,517

주 : 1) 이 추정치는 만 16세 이상의 인구 중 노인, 퇴역자, 노동불능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군인수는 제외하고 있음.

2) 이 자료에서 농림수산업은 농민, 광업 및 제조업은 국영기업노동자와 협동노동자, 기타 서비스업은 공무원 및 사무원의 고용수를 지칭함.

3) 필자의 추정자료는 <표 43>에 의한 것임.

지금까지의 1986-1987년 동안에 나타나고 있는 성별 노동력 구조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상당한 변화조짐을 보여주고 있다고 추정된다.

첫째, 이미 인구통계 중 1990년 북한의 연령별 인구구조에서 언급되었듯이 <표 7>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북한의 성별노동가능인구는 1990년의 전체노동가능인구 1,511만 4천명<sup>47)</sup> 중에서 남성의 노동가능인구가 735만 9천명으로

47) 1990년 북한의 노동가능인구의 추정에서, 니콜라스 에버스테트(Nicholas Eberstadt)는 15세 이상을 포함한 경우에 15,113,988명과 1431만 8천명으로 같은 글 중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이 점은 니콜라스 에버스테트, ‘북한의 인구와 노동력-그 현황과 의미-’, 한국경제신문사부설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앞의 책, p.208에서 <표 4-19>와 p.228.에서 <표 4-31>를 본 바와 같다.

4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가능인구가 775만 5천명으로 51.3%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1995년 9월 13일에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의 북한측 단장으로 참석한 윤기정 재정부장은 북경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전체노동자 중 여성노동자가 4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1990년대 북한의 성별 노동자 추정에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표 32>를 통해 추정하면, 북한의 성별 노동력 구조는 북한의 노동가능인구를 전체노동자로 보아 총 1518만명 중 여성노동자가 728만 6천명(48%), 남성노동자가 789만 4천명(5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북한의 윤기정 부장은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공업의 44%, 농업의 53%, 상업유통의 73%, 편의봉사의 76%, 교육의 56%, 보건의 65%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의 기술자와 전문가 숫자가 북한전체 인텔리겐차 총수의 40%로서 약 54만여명이라고 천명했다.<sup>48)</sup> 북한의 선전매체는 1995년 현재 북한의 인텔리겐차 총수가 170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기정의 주장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135만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는 윤기정 부장의 주장이 1995년 9월에 나왔다는 시기상 문제와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가 똑같은 글에서 노동가능인구를 두 가지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필자가 이 글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계속 노동력 구조의 추정치를 추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 41> 및 윤기정의 언급을 토대로 1995년 9월 현재 북한의 직종별에 따른 성별 노동력 구조를 <표 45>로 추정하였다.

<표 45> 1995년 직종별·성별 노동가능인구 구조 추정(9월 13일 현재)  
(단위 : 천명, %)

직종	성별				전체종사자수
	남성	비율	여성	비율	
농업	1,929	23	2,176	28	4,105
공업	4,293	52	3,373	44	7,666
기타 서비스업	2,083	25	2,117	28	4,200
총계	8,305	100	7,666	100	15,971

위의 1990년대 변화조짐인 첫째와 앞의 <표 42>와 위의 <표 45>를 통해 보면, 북한의 성별 노동자 비율은 1987년의 남성 42.9%, 여성 57.1%에서 1990년의 각각 49%, 51%로 나타나 근소하게 남성과 여성의 비중이 역전되고 있으며, 그 후 1995년 9월 현재 남성 52%, 여성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점에서 1995년 9월 현재 북한의 윤기정 부장에 의한 직업별 노동력 구성은 기이하게도 과거 1976년의 여성노동자 48%, 남성노동자 52%와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 때, 모순을 함의하고 있지만 북한의 윤기정 부장에 의한 언급을 토대로 주요 직종에 배치되어 있는 성별 노동자는 <그림 5>와 같이 분포돼 있다고 볼 수 있다.

48) 내외통신사, 내외통신종합판(57), pp.283-290.



## (5) 주요 기업소 및 공장별 노동력 배치 현황

여기에서 북한의 주요 기업소 및 공장별 노동력 배치를 추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차 북한의 노동력 구조에 관한 연구를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에 있다. 그리하여 이 분야는 많은 학자들이 계속 연구활동을 통해서 구명해야 할 숙제로 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력 관련 지표와 마찬가지로 이 부문에 대해서도 북한당국이 전혀 통계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거니와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할 능력도 의사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군수산업의 경우는 남한의 국방정책상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꾸준히 심도있게 자료의 조사, 수집, 정리, 분석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이유로, 이 글은 개략적인 시론으로 북한의 주요 기업·공장별 노동력 배치를 추정해본다. 이 때 추정된 노동력 배치의 통계수치는 필자가 수집가능한 모든 자료들과 만나 본 귀순자들의 증언들을 종합하여 나름대로 추정치를 계산하여 보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학자들의 수정과 보완을 기대한다.

### 1) 군수공장의 노동력 배치 현황

군수산업은 총포, 탄약, 무기 등을 생산하는 병기공장, 피복, 군화 등의 일반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일반군수공장 그리고 그 가운데 평시에 무기나 무기부품을 간헐적으로 생산하고 있거나 전시에도 즉각 무기나 무기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전시전환 공장으로 나뉘어진다.

지금까지 북한의 주요 군수장비와 병기 등의 제조공장에 배치된 노동자수는 <표 46>과 같다.

<표 46> 주요 군수공장의 노동력 규모

군수 부문	공장명	소재지	노동력 (명)	공장명	소재지	노동력 (명)
주 요 장 비 및 병 기 제 조 공 장	13호병기공장	자강도 만포시	-	26호병기공장	자강도 강계시	12,000
	32호병기공장	자강도 강계시	2,000	42호병기(전문)공장	자강도 장강	1,000
	61호병기공장	자강도 강계시	-	65호병기공장	자강도 전천	12,000
	66호병기공장	자강도 만포시	-	81호병기공장	자강도 전천	2,500
	삭주포공장	평북 삭주	-	영풍병기공장	평북 삭주	1,000
	용암포병기공장	평북 용천	300	철산병기공장	평북 철산	-
	대관포수리공장	평북 대관	-	곽산병기공장	평북 곽산	-
	구성전차공장	평북 구성시	-	915탱크수리소	평북 염주	-
	덕천포수리공장	평남 덕천	-	강동탄약공장	평양시 강동	-
	강동병기수리소	평양시 강동	-	67호병기공장	평양시 강동	7,500
	101병기공장	평양시 강동	2,000	일명'돼지'공장	평양시 역포구역	-
	대리방사포조립공장	남포시	-	17호병기공장	함남 함흥시	3,500
	강선포수리 및 조립공장	남포시	-	신흥탄약공장	함남 신흥	8,000
	신흥포수리공장	함남 신흥	-	경원병기공장	함북 셋별군	300
	97호(동해 弱電)공장	함북 청진시	-	중성병기공장	함북 중성	1,000
	191병기공장	황북 신계	1,000	황철병기공장	황북 송림시	2,000
일 반 군 수 공 장	9월방직공장	자강도 강계시	-	철산군수공장	평북 철산	1,000
	115호군수공장	평북 신의주시	2,000	315군수공장	평북 신의주시	2,000
	145호군수공장	평북 선천	300	205호군수공장	평북 삭주	300
	은성피복공장	함북 은성	1,000	111호군수공장	평북 삭주	1,500
	112호군수공장	평남 개천시	500	113호군수공장	평남 개천시	1,500
	백승담배공장	함북 회령시	-	군수용조개탄공장	평남 은산	3,000
조 선 소	나진조선소	함북나진선봉시	1,000	청진조선소	함북 청진시	7,500
	김책선박조선소	함북 김책시	1,000	신포조선소	함남 신포시	1,000
	육대조선소	함북 화(육)대	1,000	홍남조선소	함남 함흥시	1,000
	원산조선소	강원도 원산시	3,000	용암조선소	-	3,000
	남포조선소	남포시	3,200	함북조선연합기업소	함북 청진	15,000

주 : 조선소는 전시전환공장으로 분류될 수 있음 .

1985년 이후 1995년 현재까지 재건되거나 확장된 군장비 및 병기공장수는<sup>49)</sup> 약 200여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1967년에 종업원 규모가 550여명을 넘는 일반제조업체 114개소를 간헐적으로 군수물자도<sup>50)</sup> 생산 하도록 하고, 전시에 군수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정했고, 심지어 각 군 단위의 농기구나 기계공장이 유사시에 수류탄과 대검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 2) 기계공업부문의 주요 기업소 및 공장 노동력 배치 현황

기계공업은 금속공업과 함께 중화학공업의 유지, 발전의 중핵으로서 군수공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특히, 제3차7개년계획기간(1987-1993)에는 전자, 자동화 등과 같은 첨단기술도입을 시도했다.

지금까지 기계공업부문에 배치된 노동자수는 <표 47>과 같다.

49) 1985년까지 알려진 병기공장수는 17개의 총포공장, 35개의 탄약공장, 5개의 전차 및 장갑차공장, 5개의 함정건조소, 9개의 항공기공장, 3개의 유도무기공장, 33호공장, 평양전선공장, 대동강축전지공장, 성천통신장비공장,, 원산통신장비공장 등의 통신장비공장, 8개의 화생무기공장 등 총 137개였다.

50) 전시전환 준비를 완료한 공장과 기업소에서 생산이 가능한 군수물자는 전차 부속품 및 대형포차, 군용차량과 수송차량, 각종 포류, 소화기 및 군용차량 부속품, 각종 통신장비, 각종 병기부속품 및 공병장비품, 각종 함정, 화학장비 등이다.

<표 47> 북한의 주요 기계제작의 기업소 및 공장 노동력 배치 현황

기계공업부문	공장명	소재지	노동력(명)
일반기계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남포직할시 대안구역	25,000
	용성기계연합기업소	함남 함흥시 용성구역	20,000
	북중기계종합공장	평북 용천군 북중 노동자구	20,000
	낙원기계종합공장	평북 신의주시 낙원동	10,000
공작기계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자강도 희천시 전평동	20,000
	구성공작기계종합공장	평북 구성시 남산동	20,000
	만경대공작기계종합공장	평양특별시 만경대구역	7,500
	청진공작기계공장	함북 청진시 청암구역	2,500
	평양공작기계공장	평양특별시	2,500
정밀기계	희천정밀기계종합공장	자강도 희천시 추평동	13,000
	평양정밀기계종합공장	평양특별시	20,000
	평양도량형기공장	평양특별시	2,000
수송기계	승리자동차종합공장	평남 덕천시	10,000
	평양자동차공장	평양특별시	-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평양특별시	15,000
	원산철도공장	강원도 원산시	15,000
	청진철도공장	함북 청진시	15,000
농업용기계	금성트랙터종합공장	남포직할시 강서구역	15,000
	강계트랙터종합공장	자강도 강계시	13,000
광산기계	구성광산기계공장	평북 구성시	-
	회령탄광기계공장	함북 회령시	2,000
	평양탄광기계공장	평양특별시 동평양 선교구역	15,000

3) 금속공업의 주요 기업소 및 공장 노동력 배치 현황

1995년 현재 금속공업의 주요 기업소 및 공장에 배치된 노동력 규모는 <표 48>과 같다.

<표 48> 금속공업부문의 연합기업소 노동력 규모 현황

공장명	소재지	노동력(명)	공장명	소재지	노동력(명)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청진시	40,000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송림시	25,000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남포시	30,000	성진제강연합기업소	함남 김책시	25,000
청진제강연합기업소	청진시	15,000	문천제련연합기업소	강원도 문천	10,000
홍남제련연합기업소	함남 함흥시	15,000	남포제련연합기업소	남포시	10,000

4) 화학비료공업의 주요 기업소 및 공장 노동력 배치 현황

1995년 현재 북한의 주요 화학비료공장의 노동력 규모는 <표 49>와 같다.

<표 49> 주요 화학비료공장의 노동력 규모 현황

공장명	소재지	노동력(명)
2·8비날론연합기업소	함남 함흥시	35,000
홍남비료연합기업소	함남 함흥시	30,000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	평남 순천시	7,000
청수화학비료공장	평북 삭주	2,000
청년화학요소비료공장	평남 안주	30,000
아오지화학비료공장	함북 은덕	3,000
사리원칼리비료공장	사리원(건설중)	-

5) 주요 화력발전소의 노동력 배치 현황

1995년 현재 북한의 주요 화력발전소에 배치된 노동력 규모는 <표 50>과 같다.

<표 50> 주요 화력발전소의 노동력 규모 현황

발전소명	소재지	노동력(명)	발전소명	소재지	노동력(명)
북창	평남 북창	45,000	평양	평양시 평천구역	15,000
웅기	함북 선봉	6,000	청천강	평남 안주	6,000
순천	평남 순천	6,000	동평양	평양시 낙랑구역	10,000
남포	남포시	8,000	안주	평남 안주	30,000

6) 시멘트공업의 주요 기업소 및 공장 노동력 배치 현황

시멘트공업의 주요 기업소 및 공장에 배치된 노동력 규모는 <표 51>과 같다.

<표 51> 주요 시멘트공장의 노동력 규모

공장명	소재지	노동력(명)	공장명	소재지	노동력(명)
순천시멘트공장	평남 순천	15,000	상원시멘트공장	평양	10,000
2·8시멘트공장	황북 봉산	8,000	해주시멘트공장	함남 해주	5,000
승호리시멘트공장	평양	4,500	천내리시멘트공장	강원도 천내	4,000
구장시멘트공장	평북 구장	3,000	고무산시멘트공장	함북 구령	2,000
부래산시멘트공장	함남 고원	1,500			

독일(서독)에서 도입한 현대설비로 장치되어 현대화·자동화됐다고 할 수 있는 상원 시멘트 연합기업소의 경우 연간 시멘트 생산능력은 200만톤에 이른다. 이 연합기업소에 배치된 노동력 규모는 10,000명 (어떤 귀순자의 증언으로는 20,000명이라고 함)정도이고, 이에 반해 남한의 현대화·자동화된 시멘트공장 하나가 단지 800명의 노동력 규모만으로 북한의 연간 시멘트생산능력인 1,200만톤을 생산해낼 수 있다. 1992년 현재 북한의 시멘트생산 실적은 450만톤에 불과하다.

7) 화학섬유공업의 주요 기업소 및 공장 노동력 배치 현황

북한의 화학섬유공업에 배치된 노동력 규모는 <표 52>와 같다.

<표 52> 주요 화학섬유기업소 및 공장의 노동력 규모

공장명	소재지	노동력(명)
2.8 비날론연합기업소	함남 함흥시	35,000
청진화학섬유연합기업소	함북 청진시	15,000
신의주화학섬유연합기업소	평북 신의주시	20,000
청년화학연합기업소	평남 안주시	20,000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평남 순천시	55,000

8) 방직공업의 주요 기업소 및 공장 노동력 배치 현황

<표 53> 주요 방직공장의 노동력 규모

공장명	소재지	노동력(명)
평양종합방직	평양특별시	20,000-25,000
함흥모방직	함남 함흥시	4,700-5,000
신의주모방직	평북 신의주시	16,000-18,000
강계방직	자강도 강계시	10,000-12,000
사리원방직	황북 사리원시	12,000-15,000
개성방직	개성직할시	8,000-10,000
구성방직	평북 구성시	15,000
원산방직	강원도 원산시	10,000-15,000

3. 교육 수준과 노동력의 질적 구조

이미 앞에서 학력별 인구구조를 분석하였듯이 북한의 교육은 일찌기 소련식 교육제도를 모방하여 무상의무교육을 발전시켜온 결과 <표 54>에서 처럼 1990년부터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취학률이 100%에 이르러 양적으로 교육기회의 급속한 증대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1986년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총학생수가 430만 8천명으로 1986년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해당 연령 6세-15세의 인구수 440만명과 대비하여 보더라도 약 97.9%라는 높은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

<표 54> 각급 학교의 취학률과 취학인원수

(단위 : 천명, %)

각급 학교 구분 연도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대학	
				전문학교	대학교
취학률	1945	72.4	3.1	-	-
	1960	96.6	151.7	-	11.5
	1970	99.0	98.0	-	8.0
	1977	99.0	96.0	-	9.0
	1986	97.9		-	-
	1990	100	100	-	-
취학인원수	1986	1,466	2,842	215	279
	1987	1,492	2,655	220	301

- 주 : 1) 1986년의 취학률은 북한 중앙통계국 발표인 취학인원수(1986-1987)와 앞의 <표 6>에서 필자가 계산한 것임. 그러나 북한은 맹인이나 장애자학교, 고아 학교, 체육학교, 지방대학부속학교 등의 학생수를 합하면 취학률은 100 % 라고 주장함.
- 2) 1986년을 제외한 1945-1990년의 취학률은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1993.12.), p.443.에 의한 것이며, 1990의 경우는 현재 정확한 통계수치가 밝혀지고 있지 않음. 다만, 대학교 미만에서는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도에 비추어 100 %에 가까운 취학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3) 취학인원수는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한국개발연구원, 앞의 책, p.57.에서 재인용함.

이처럼 북한의 일반교육수준은 외관상으로 상당히 높은 것처럼 보인다.

우선 여기서는 북한의 교육수준을 추정하기 위해서<sup>51)</sup> <표 55>에서 처럼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중에 있는 학생수의 각 인구 대비 비중을 알아 본다.

<표 55>를 보면, 각 인구 대비 고등교육수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총인구 대비 고등교육 비중은 1965년 1.3%에서 1980년 1.4%로 증가한 이후 1992년까지 1.4%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둘째, 생산가능인구 대비 고등교육 비중은 1965년 2.2%에서 1970년 2.5%로 증가하나 1980년 2.4%로 감소하여 1992년에 2.1%로 떨어졌다.

셋째, 경제활동인구 대비 고등교육 비중은 1965년 3.7%에서 1970년 4.0%로 증가한 이후 1980년 3.7%, 1985년-1990년 3.3%, 1992년 3.0%로 감소하고 있다.

넷째,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고등교육 비중은 1965년 5.7%에서 1970년 6.7%로 나타난 이후 1985년에 잠시 7.1%로 증가하지만 다시 1980년 6.7%, 1990년 6.5%, 1992년 6.5%를 차지함으로써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특징들은 먼저, 교육수준이 1970년에 급격한 질적 향상을 보이기 시작하나, 1975년에는 교육수준의 질적 저하를 보이면서 1980년 이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또한 북한의 고등교육수준이 비경제활동 대비에서 비중을 높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곧 북한당국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즉 노무관리의 실체는 전문·특수 기술의 양성을 가로막고 전문화·특수화에 아무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고 능률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다.

북한의 고등교육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고등중학교과정의 비중이 <표 55>에서 처럼 인민학교와 대학교의 비중보다

51)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교육관련지표나 자료를 찾기 힘이 들기 때문에 일단 교육과정 중에 있는 학생수를 근거로 하여 교육수준을 측정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1970년부터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교육수준은 산업인력의 공급 측면에서 소비재 제조부문에 투입될 노동력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55> 각 인구 대비 교육과정 중의 학생 비중(1965-1992)

(단위 : 천명, %)

연도	구분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1965	인민학교과정	9.4	16.3	26.7	41.7
	고등중학교과정	5.9	10.1	16.6	25.9
	대학교과정	1.3	2.2	3.7	5.7
1970	인민학교과정	10.9	19.2	30.5	51.5
	고등중학교과정	12.0	21.1	33.6	24.1
	대학교과정	1.4	2.5	4.0	6.7
1975	인민학교과정	10.6	18.4	28.7	51.1
	고등중학교과정	14.4	24.9	38.9	69.3
	대학교과정	0.6	1.0	1.5	2.7
1980	인민학교과정	9.6	16.2	25.0	45.9
	고등중학교과정	14.3	24.0	37.1	68.2
	대학교과정	1.4	2.4	3.7	6.7
1985	인민학교과정	9.5	15.2	22.3	48.2
	고등중학교과정	13.3	21.3	31.1	67.4
	대학교과정	1.4	2.2	3.3	7.1
1990	인민학교과정	8.9	13.2	19.8	39.3
	고등중학교과정	13.9	20.8	31.2	62.1
	대학교과정	1.4	2.2	3.3	6.5
1992	인민학교과정	9.1	13.3	19.4	42.1
	고등중학교과정	12.6	18.4	26.9	58.4
	대학교과정	1.4	2.1	3.0	6.5

주 : 앞의 <표 1>, <표 20>, <표 33>, <표 34>를 통해 필자가 계산한 것임.

북한의 교육수준은 다음 <표 56>에서와 같이 고등교육수준에서 질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고등교육의 이수자는 1988년 135만명으로써 대학교과정의 학생수를 포함하더라도 총인구 대비 약 9.7%, 1990년 146만명으로 대학교과정의 학생수를 포함하여 약 8.1% 수준으로 1988년 대비 약 1.6%의 감소하고 있다. 북한의 고등교육수준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질적으로 저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고등교육의 이수자는 다른 어떤 인구별보다 경제활동인구에서 1988년 14.8%, 1990년 1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니와 1988년보다 1990년에 약 0.3%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고등교육 이수자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당국에 의해 주로 제3차산업의 노동력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그 반면에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고등교육 이수자가 1988년 11.4%, 1990년 12.1%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처럼 1988년 보다 1990년에 0.7%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경제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동력 배치상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표출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한편, 1990년대초 현재 성별 교육수준은 남성의 교육수준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표 56>에서 처럼 1980년대 후반인 1988년의 성별 고등교육졸업자는 남성이 87만 6천명으로 약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여성은 47만 7천명으로 남성보다 그 수가 적기 때문이다.

교육정도별에 따른 노동력의 질적 문제는 <표 55>와 <표 56>로 살펴 본 결과 1995말 현재 160만명 정도가 고급인력으로 추정됨에 따라 외형적으로 다소 양질의 노동력 규모는 많아야 150만 정도에 달한다고 하겠다.

<표 21>처럼 1990년대 교육지표를 고찰한 바도 있지만, 북한의 교육은 근본적으로 '사상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계발한다거나 보장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할 기능·기술 인력을 장기적 측면에서 육성하여 공급하는데는 커다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표 56> 고등교육수준의 현황(1988-1990)

(단위 : 천명, %)

분석구분 연도	고등교육 이수자수				총졸업생수	총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전문학교		대학교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88	455	306	421	171	1,353	21,030	6.4	9,122	14.8	11,908	11.4
1990	-	-	-	-	1,460	21,720	6.7	9,652	15.1	12,068	12.1

주 : 1) 북한의 고등교육수준이란 전문학교 및 대학교의 졸업생수를 말함.

2) 1988년의 고등교육 이수자수는 북한의 발표수치로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위의 책, p.58.에서 재인용함.

3) 1990년의 수치는 북한의 목표발표수치( 윤기정, “1989년 국가재정운영” ;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Daily Report. No. FBI - EAS - 89-067. 1989.4.7. p.12 ; FBIS-EAS-90-102, 1990, p.20)임.

4) 각 인구별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은 <표 54>의 근거와 같음.

#### 4. 보건수준과 노동력의 질적 구조

1992년 1월에 북한의 정무원부총리겸 문화예술부장 장철은 김일성의 보건의료관련문헌발표 제40주년기념행사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평균수명이 74.3세라고 발표하고, 1993년에 북한당국은 당중앙위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노동자들의 평균수명이 74.5세라고 주장하였다.<sup>52)</sup>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표 25>와 <표 26> 및 <표 28>에서 1990년 영아사망률은 31.3%로 나타나 아직도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표 27>에서 1990년 평균수명은 약 64.32세(남성이 약 61.82세, 여성이 66.82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북한 노동자들의 주요 사망원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때 주요 사망원인을 보면 <표 57>과 같다.

<표 57> 주요 사망원인과 입원환자 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연도	1960	1980	1986
	주요 사망원인	전염병 및 기생충병 질환	42.5	5.2
호흡기계통 질환			10.3	9.4
암 및 악성 신생물		2.6	12.0	13.9
순환기계통 질환		12.1	42.3	45.3
소화기계통 질환		-	10.6	10.4
정체불명의 병상		13.7	5.7	2.6
폭력,상해,사고,중독 등의 류		2.9	6.5	7.7
기타		26.2	7.4	6.8
총인구비 입원환자		-	11.0	9.3

자료 : 공보처, 북한경제와 주민생활(서울 : 공보처, 1993), p.120. ; 통일원, 남북한 사회·문화 지표 1991, pp.92-110.

52)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p.581.

<표 57>에 의하면, 1960년대에 북한의 노동자들은 주로 전염병 및 호흡기 계통의 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는 순환기 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특이한 점은 북한의 노동자들이 폭력, 상해, 사고, 약물중독 등에 의한 사망은 1960년 2.9%, 1980년 6.5%, 1986년 7.7%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1980년대 후반 이후 1990년대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보면, 1990년대 북한사회는 내적으로 범죄행위의 다양한 온상이 배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의 흥미있는 사실은 북한 노동자들의 주요 사망원인인 질환이 1960년대에 비해 1980년대부터 그 종류가 많아지고 있지만, 그에 반해 입원환자들의 비중이 1980년 11.0%에서 1988년 9.3%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특징은 결국 북한당국이 인구증가에 비해 의료시설의 확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거나, 환자들이 발생해도 방치되거나, 의료혜택을 일반계층이 아닌 특수계층에게 치중하고 있거나, 의약품 및 의료품 등의 심한 고갈난에 빠져 있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결국 북한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국가기관에 의한 의료혜택 자체를 불신하여 입원을 아예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표 58>를 통해 보더라도 북한의 병원과 의원의 수에서 1965년 이후 1986년 기간 동안 줄곧 외래치료 기관은 일반치료 및 예방기관보다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일반노동자들은 결과적으로 거의 외래진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표 58>를 계속 주시해보면, 노동자들은 병원과 의원보다 주로 보건소나 의약품 배급업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인구수나 인구증가율에 비해 그것들의 수가 너무 작고 그것들의 증가율도 거의 정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의 기회 폭이 좁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치과병원의 수가 너무 작고, 결핵병원의 수가 감소하는 비율도 작다는 것은 아직도 노동자들이 후진국형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표 58> 보건기관별수 현황(1965-1986)

(단위 : 개소)

기관별 연도	병·의원		한방병 · 의원	치과병 · 의원	보건소	의약품 배급업소	특수병원		
	일반입원 치료예방기관	외래 치료기관					결핵병원	나(癩)병원	정신병원
1965	483	5,092	14	1	236	354	224	-	11
1970	523	5,577	12	1	254	446	1,075	12	13
1975	1,556	4,928	13	4	220	512	585	12	130
1980	1,527	5,358	23	11	223	851	468	290	204
1982	-	-	26	14	223	965	430	285	-
1985	1,540	5,728	-	13	227	853	374	267	190
1986	1,528	5,644	-	13	228	846	338	263	189

자료 : 위 <표 57>의 통일원 자료임.

한마디로, 1980년대 후반 이후 1990년대에도 북한의 보건수준은 최악의 상태로 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에 따라 1990년대 북한의 일반노동자들은 문자 그대로 ‘보건’, 즉 ‘스스로 건강을 지켜야’ 살 수 있는 것이지만 약병들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그들이 북한당국의 의료혜택을 통해 예방하거나 치료하여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의 열악한 보건환경은 <표 59>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의 보건기관별 노동력 구조에서도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즉, 의사와 약사는 1965년 11,393명에서 10년 후인 1975년 28,298명으로 약 1.48배의 증가를 보였으나, 1975년 28,298명에서 10년 뒤인 1985년 52,600명으로 약 0.86배 정도의 증가에 불과하다. 준의료활동종사자수도 1965년 36,383명에서 1975년 71,795명으로 약 0.97배의 증가를 보이나, 1975년의 수치에서 1985년 85,600명으로 약 0.19배의 증가에 머물고 있다.

<표 59>에서 1965년부터 1986년까지 의사, 약사, 준의료활동종사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보건기관의 노동력 배치가 아니라 외래진료를 위한 보건기관과 단순한 의약품배급업소에 배치된 노동력 구조의 변화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표 58>에서 보았듯이 보건기관수는 주로 외래진료기관과 의약품배급업소에서 증가현상을 높게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표 59> 보건기관별 노동력 규모(1965-1986)

(단위 ; 명)

연도 \ 노동력 규모	1965	1970	1975	1980	1985	1986
의·약사수	11,393	16,380	28,298	42,881	52,600	54,918
준의료활동종사자수	36,383	48,020	71,795	78,858	85,600	87,696

자료 : 위 <표 57>의 통일원 자료임.

## 5. 과잉(過剩) 노동력 추정

오늘날 북한당국은 ‘실업자가 없는 나라’라고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라는 기독교적 윤리에 따라 16세 이상인 주민은 군복무를 하는 자나 교육과정에 편입된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모두 국가가 지정해준 직장에 배치돼 노동하도록 돼 있으니 완전고용이 보장된 셈이다. 그 선전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이 연상되어 진다.

첫째, 북한당국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직업을 갖도록 각 직장에 강제로 노동배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북한의 노동력 구조는 실업률이 0%라고 하겠으며, 곧 북한의 노동자들은 완전고용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업과 반(半)실업, 불안과 불안전이란 상태에서 전혀 일자리를 잃게 될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야말로 ‘노동자의 천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개인의 적성·소망·선호도를 무시한 마구잡이 인력 배분·배치 정책은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노동조건(환경)은 지역이나 직종에 따라 아주 상이하다. 사회적인 인정이나 직업상의 위신(프레스티지)도 따라서 다르다. 강압적이고 전횡이 지배하는 환경 아래서는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사회적으로 홀대를 받는 직장에 배치될 때 불만을 품게 되고 내심으로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몇 가지 점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다.

북한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희망여부에 따라 직업의 선택이나 직업의 이동을 어느 정도 요구하여 배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일자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전혀 없는가 ?

모든 노동자들은 각자의 능력에 알맞는 직장에 제대로 배치되고 있으며, 동종동업에 배치된 노동자들이 많게 일하거나 적게 일하지 않도록 평등하게 다루어지는가?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은 근원적으로 북한의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 강제배치를 당하고 있으며, 또한 강제배치를 당하고 있는 그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데로 압축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노동력 구조는 본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언제나 필요한 일자리를 얻거나 자기 의사에 따라 언제나 일자리를 바꿀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북한의 노동자들이 의무적이거나 권리적이거나 노동현장에 강제로 배치당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과잉노동 또는 불필요노동이란 용어와 같은 뜻으로 과잉배치노동력이란 용어를 사용한다.<sup>53)</sup>

53)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과잉배치노동, 과잉노동, 불필요노동을 혼용하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경제의 근대경제학에서 과잉인구란 비경제활동인구 중에 직업을 구하거나 임시직 노동에 종사자 등이 일자리를 찾는 경우

이러한 인력배분 패턴은 큰 문제를 야기했다. 문제의 근저에는 중앙정부가 노동력을 배치하고 이곳 저곳으로 이전하는데서 내리는 자의적이고 고압적인 결정이 있다. 이것은 종업원의 특수성(개인적 자질)과 경력을 폄하(貶下)하는 데로 귀결됐다. 예를 들면 1966년에 600 여명의 용성기계공장 기술자들이 원광처리 직장에서 제철량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는 이유로 다른 공장으로 전보되고 뜻내기 노동자들을 그 직장에 배치했다. 언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어떤 지방에 어떤 공장에서 필요한지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객관적인 판단도 하지 않고 노동력을 배분하는 당중앙이나 정무원 부서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결정을 내렸던가는 그 구체적인 예를 많이 들 수 있다. 국영기업이나 공장은 인력과잉현상이 (당 중앙에서 파견된 당간부들인 지배인, 부지배인, 감독관,분조장 등등의 행정처리를 하는 간부가 많이 배치돼!)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교조적인 인사관리의 적체로 도, 시, 군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동자를 배분·배치하는 노동행정을 맡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이 전반적인 인력관리에 관한 권한을 포기했던 것은 아니다.

농업부문의 과잉배치노동력은 앞에서 분석한 <표 9>에서 <표 14>까지 북한의 지역별 인구분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표 13>과 <표 14>에 의한 북한의 도시와 농촌 지역의 인구구조와 도시화율, 또한 앞의 경제활동인구분석과 농업노동력 구조 등과 과잉 노동력은 직접 관련된다.

이미 앞의 <표 38>과 <표 39>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경제활동인구 중 농업노동력의 비중이 1965년부터 1970년까지 각각 57.2%, 52.8%로 나타나고, 1975년-1980년에 각각 47.8%, 42.8%로 보이고, 1985년의 38%와 1986년 37.1%에서 1994년 현재까지 거의 같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기간들 중에 그 어느 기간보다 많은 노동력을 농업에 배치한 것은 1965년-1975년의 기간이었다.

그 이후 농업 노동력 규모는 1985-1994년의 약 10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총인구에 대한 농가인구비율이 1965년-1979년 기간까지 줄곧 약 40.5%로 나타났으나 1980년 이후 1992년 현재까지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표 13>에서 처럼 총인구에 대한 농업인구 비율이 1953년 82.3%, 1960년 59.3%, 1965년 52.5%, 1975년 57.3%로 나타나고 있다. 1975년 이전까지 북한의 농촌지역은 공업 노동력의 공급원이었고, 주로 단순노동력이 공업부문에 공급됐던 시기였다고 하겠다.

<표 60>에서는 농가인구(A) 중에서 농업종사자(B)를 제외한 것은 일하지 않는 자(D)로 보고, 다시 <표 34>의 근거인 비경제활동인구(C)에서<sup>54)</sup> 일하지 않는 자(D)를 제외한 것을 농업부문의 과잉 노동력(E)이라고 정의하기로 하자. 이 정의에 따른 <표 60>를 보면, 북한에서 농업의 과잉 노동력은 1987년의 경우에 1만 5천명, 비경제활동인구(C)의 약 0.3%에서 1990년에 31만 2천명, 6.4%로 나타나 무려 3년 동안 약 19.8배인 29만 7천명이나 급증하고 있다. 곧바로 1990년에서 3년 후인 1993년의 기간 동안에도 농업의 과잉 노동력은 1990년에 비해 1993년에는 약 7.1배로 늘어난 10만 6천명을 기록하고 있다. 1994년 현재 농업의 과잉 노동력은 전년도 1993년에 비해 1.4배나 증가한 17만 3천명으로 증가하여 59만 1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농업의 과잉 노동력이 1987년 이후 1994년 현재까지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북한의 노동력 구조가 1987년부터 1994년 현재까지 줄곧 과잉 노동력을 확대재생산하고 있음을 뜻한다.

에 과잉인구로 보지 않고, 실업자는 완전히 일자리만 찾아 활동하는자를 의미한다.

54) 이 때, <표 35>에서 필자는 비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인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 60> 농업부문의 과잉 노동력(1987-1994)

(단위 : 천명, %)

구분 연도	경제활동인구	농가인구 (A)	농업종사자 (B)	비경제활동인구 (C)	일하지 않는 자(D) (A-B=D)		과잉 노동력(E) (C-D = E)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1987	8,868	7,778	3,370	4,423	4,408	56.7	15	0.3
1988	9,122	7,991	3,466	4,574	4,525	56.6	49	1.1
1989	9,383	8,101	3,566	4,718	4,535	56.0	186	3.9
1990	9,652	8,210	3,668	4,854	4,542	55.3	312	6.4
1991	10,083	8,327	3,832	4,789	4,495	54.0	294	6.1
1992	10,430	8,398	3,963	4,808	4,435	52.8	373	7.8
1993	10,704	8,443	3,960	4,901	4,483	53.1	418	8.5
1994	11,047	8,420	4,087	4,924	4,333	51.5	591	12.0

주 : <표 1>, <표 14>, <표 33>, <표 35>에서 필자가 계산한 것임.

1987년 이후 1994년 현재까지 북한의 농업노동력 구조에서 과잉 노동력이 놀라울 정도로 높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표 61>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작물생산량 관련지표에서 마이너스(負) 성장률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식량(작물) 생산량이 1990년대 중반에 진입하면서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가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장악하여 농업을 관리하기에 농민들은 근로의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표 61> 농업관련지표 추이(1985-1994)

연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농업관련지표										
농가인구(천명)	7,492	7,657	7,778	7,991	8,101	8,210	8,327	8,398	8,443	8,420
농가호수(천호)	1,684	1,721	1,748	1,796	1,820	1,854	1,893	1,909	1,919	1,914
경지면적(천ha)	2,140	2,140	2,140	2,140	2,140	2,141	1,974	1,974	1,974	1,992
농가호당면적(ha)	1.27	1.24	1.22	1.19	1.18	1.15	1.04	1.03	1.03	1.04
식량작물재배면적(ha)	1,728	1,728	1,728	1,728	1,728	1,734	1,593	1,588	1,586	1,485
식량작물생산량(천M/T)	4,193	4,024	4,130	4,345	4,572	4,013	4,427	4,268	3,884	4,125
농가인구 1인당식량작물생산량(M/T)	0.56	0.53	0.53	0.54	0.56	0.49	0.53	0.51	0.46	0.49
정보당 식량작물생산량(M/T)	2.32	2.22	2.39	2.51	2.65	2.31	2.77	2.69	2.45	2.78

자료 : 통일원, 남북한경제지표 1995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이미 앞의 <표 35>에서 시사되었듯이 비경제활동인구는 1987년 442만 3천명 이후 1995년말까지 평균 약 32.2%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표 62>에서와 같이 경제활동인구 중 차지하는 과잉 노동력 규모는 1990년 약 275만 3천명, 1992년 약 350만 6천명으로 추정해 보면, 1995년 현재 약 519만 5천명 정도가 과잉 노동력 규모로 경제활동인구 중 무려 약 45.6%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2> 1990년대 과잉 노동력 규모(1990-1992)

(단위 : 천명)

연도	인구지표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65세이상 노령인구	대학이상 학생수	군인수	과잉노동력 추정치
1990		14,506	9,652	4,854	741	314	990	2,753
1992		15,238	10,430	4,808	792	314	1,010	3,506
1995		16,337	11,400	4,937	850	314	104	5,195

주 : 과잉노동력 추정치=경제활동인구수-(비경제활동인구+65세 이상 노령인구+대학이상 학생수+군인수)

자료 : 앞의 <표 8>, <표 18>, <20>, <표 35> 에 의해 필자가 추정한 것임.

한편, 북한에 있어서 불필요(redundant : 過剩!) 노동력 규모에 관한 曹東昊의 추정 및 논거에 대하여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측면에서 논점을 제시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조동호는 그의 논문 “북한의 노동력 현황(1994)”에서 통일원이 추산한 1990년도 북한의 경제활동인구 965.2만명 가운데서 568.2만명을 불필요(過剩!) 노동력의 규모(Umfang der redundanten Arbeitskraefte)로 보았다. 이하 그의 논의를 개괄하기로 한다.

(1) 조동호는 1990년 북한의 자본량(정확히 말하자면 생산과정에 투입된 생산재 규모)은 1985년도 한국에서의 불변가격으로 약 469,893억원으로 환산될 수 있으며, 이 자본규모는 1975년 한국의 자본량 추정치 458,223억원(1985 년도 한국에서의 불변가격으로 역환산)과 근사하다는 이유로 1990년도 북한경제가 1975년 한국경제로 환원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KDI는 1990년도 북한의 경제가 1990년 북한의 기술발전 수준은 1970년대 중반의 한국의 경제에 근접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1992)도 북한에 있어서의 7개의 주요산업의 기술발전 수준이 1970년대 중반의 한국의 경제에 근사하다고 보고 있다. 조동호는 1975년도 한국에서의 취업자수(die Zahl der Beschäftigten) 대비 1975년도 한국 GNP규모와 같다고 보고 1990년도 북한에서의 불필요(過剩!) 노동력 규모를 아래 <표 64>와 같이 추산했다.

<표 64> 1990년 북한의 불필요(過剩) 노동력 규모

구 분	지 표(단위)
효율적으로 이용가능한 노동력의 최대수(L)	397(만명)
불필요(과잉) 노동력 규모	568.2(만명)
전체경제활동인구 대비 불필요(過剩) 노동력 비율	약 58.9(%)

주 : 1) 1975년도 한국의 취업자수 : 1975년도 한국의 GNP 규모 = 1990년도 북한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의 최대수 : 1990년도 북한의 GNP규모

2) 11,692천명 : 371,433억원 = L : 126,113억원

3) 1990년 북한의 불필요(過剩) 노동력 규모 = 1990년 북한의 경제활동인구 965.2만명 - 1990년 북한이 효율적으로 이용가능한 노동력의 최대수 397만명 = 568.2만명

(2) 위에서 추산된 1990년도 기준 북한의 불필요(과잉) 노동력 규모는 한편으로는 북한경제체제가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한국에서 처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될 때까지를 상정한 경우 북한지역에서 현재화될 불필요 (과잉) 노동력 규모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불필요 노동력 규모의 최대치로서 해석할 수 있다. 1990년 현재 북한의 실제 불필요(過剩) 노동력 규모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30 % 내지 40 %로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3) 위에서 추산된 1990년도 기준 북한의 불필요(과잉) 노동력 규모는 북한경제가 한국경제에 연동돼 흡수·통합된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 지역에서 사라지게 될 일자리 규모(Umfang der Arbeitsplaetze)로 간주할 수 있다. 자본의 이동(Kapitalwanderung)이나 기술이전(Technologietransfer)은 중장기에 걸쳐 일어나므로 북한지역에서의 자본규모(생산재 규모)나 기술발전수준(Technisches Entwicklungsniveau)은 단기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하지 않을 것이지만,

시장경제에로의 체제전환, 이에 따른 기업운영방식의 변경을 통한 생산요소 또는 생산력의 효율적 사용으로 불필요(과잉) 노동력 규모가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대량의 노동자·농민 등은 여태까지의 신체적 예측상태에서 해방돼, 새로 형성될 노동시장에로-노동력을 자유롭게 판매할 기회를 기대하며- 진출할 준비를 마련할 것이다. 노동력 방출은 급류의 홍수를 이룰 것이지만, 이 홍수를 막아낼 새로운 노동(력)시장은 느린 템포로 형성돼 중기적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 부녀자들이나 연로한 자들은 새로 형성될 노동(력) 시장으로의 진출을 포기할 것이지만 인민군이나 당·정기구의 해체로 길거리에 방출될 젊은 단순노동력은 새롭게 형성될 노동(력)시장에로 편입되기 위해 격렬한 경쟁전을 전개할 것이다.

(4) 불필요(過剩 또는 過剩保護를 받아왔던) 노동력은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방출될 것이며 새로운 형태의 기업 창설, 새 경영기법의 점진적인 관철과 함께 노동력 배분을 담당할 노동(력) 시장이 서서히 형성되는 가운데 다시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5) 불필요(과잉) 노동력 규모에 관한 조동호의 추정 결과는 통일 이후 북한에서 실제로 나타날 실업규모로 볼 수 없다고 해도 북한지역에서 사라지게 될 일자리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관한 전망을 제공해준다고 하겠다.

불필요(과잉) 노동력 규모에 관한 조동호의 추정이 타당성을 가진다면, 1990년대초인 현재 불필요(과잉) 노동력 그 자체가 구조적 실업인구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북한의 시장경제에로의 전환시기나 통일 이후 시기에 있어서 거대한 잠재적 실업인구가 그 정체를 유감없이 드러낼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과 실업이란 측면에서 노동력이 상품으로 판매되지 않는 북한지역은 한국에서 장단기적 경제발전과 더불어 나타나는 그런 노동시장문제는, 노동력이 이에 대한 적정 이윤의 창출, 획득과 관련한 수요가 없어 팔리지 않아 발생하는 고용문제나 실업문제가 없다. 반대로 기술진보가 관철되지 않거나 기계나 설비 따위의 생산도구가 효율을 낼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되어 폐기되어야 하지만 갱신·교체되지 못해 근골노동이나 공수를 많이 요구하는 소위 노동집약적 생산에의 강제가 항상화됐던 것이 북한 지역에서 언제나 오늘도 지배하는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생활수단을 배급하여 노동력 재생산을 보장해 주지 못하면서도 직장만은 행정적으로 보장하는 “소위 사회주의에 있어서 노동에 대한 기본권 Grundrecht auf Arbeit im Sozialismus”이 노동력의 만성적 과잉배분, 배치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다. 체제붕괴나 화해·협력을 통한 남한에의 북한 지역의 평화적 통합·흡수 등의 변화된 정치적 상황은 현재 북한 지역에서 운영돼 왔던 소위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지령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폭파해 버릴 것이며 따라서 방방곡곡에서 대량의 노동력이 방출되어 떠도는 북한주민의 심각한 생존문제는 물론 고용·실업문제와 같은 노동시장문제를 남한에 안겨줄 것이다.

이런 정치적 상황 변화의 초기에는 잠시 동안만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이 현재화될 것이지만 실업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대대적인 “정치범”의 석방에 따른 노동력 방출이 일어날 것이다. 아래의 다섯 가지 사항을 참조하여 추산해 본 결과 1995년말 현재 특별독재대상구역에서 수용되어 있는 북한의 “정치범”은 약 20만명에 이르고 있다.

첫째, 1958년 북한의 내각결정 제149호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약 7만명의 정치범이 산간벽지로 추방당했다.<sup>55)</sup>

둘째, 1988년 아시아감시위원회, 미네소타 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강제노동수용소마다 약 500-2,500명이 수감되어 있다.<sup>56)</sup>

셋째, 1990년 구소련의 정치주간지인 「노보에 브레마(新時代)」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강제수용소 12-16개에 10여만명의 인원들이 수감되고 있다.<sup>57)</sup>

넷째, 1990년 현재 통일원 자료에 의하면, 다음 <표 63>와 같이 북한의 12개 수용소에 15만 2천명이 넘는 인원들이 수감되고 있다.

55)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종합판(47), P.189.

56) 송철복 외 역, 북한의 인권(서울 : 고려원, 1990), p.114.

57)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종합판(41), P.386.

<표 63> 특별독재대상구역 현황

수용소 지역별 위치		수용인원(명)
함북	은성군, 회령군, 경성군	62,000
함남	요덕군, 정평군, 덕성군	33,000
평남	개천군, 북창군	20,000
평북	용천군, 영변군	20,000
자강	희천시, 동신군	17,000
총계	12개 지역	152,000

자료 : 통일원, 북한개요(1992), pp.275-276.

다섯째, 1993년 현재 북한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약 15만 2천이 넘고 있다.<sup>58)</sup>

그와 함께 북한의 전 산업분야가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로 특정 지역에 집중된 실업사태라는 홍수가 야기 될 것이다. 즉 인구가 밀집된 탄광지대나 공업지대에 [예를 들면 평양·남포 공업지구와 평남의 광산지대, 신의주·구성 공업지구, 원산·문천 공업지구, 함흥 공업지구, 김책·단천공업지구, 청진·무산 공업지구, 강계·희천 공업지구 등에서] 노동자들이 해방을 맞이하면서 대량으로 방출돼 고용(Beschaeftigung: employment)이나 실업 등 견잡을 수 없는 시장경제에 특유한 노동시장 문제가 [노동시장 자체가 형성된 적이 없는] 북한 지역을 증폭적으로 혼돈·파국상태로 휘몰아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과 임산(林産) 지역에서도 협동농장, 수산·임산 사업소 등이 해체되면서 실업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이밖에 노동력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방출될 것이다:

- 1) 당·정기구의 감축 또는 해체
- 2) 인민군 해체<sup>59)</sup>
- 3) 노동당의 인전대(사노맹, 직맹, 농근맹 따위)로서의 각종 사회단체들의 해체
- 4) 기존의 각종 어용 학술·문학 단체, 김일성·김정일 별장에 항상 대기하던 3,000여명의 기쁨조, 김일성-김정일 가계(家系)의 개인승배의식에 동원되는 각종 예술단체 등의 해체
- 5) 재소노동인구(institutionalized labour force)의 방면

## 6. 임금구조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성별과 연령별의 차이가 나고 있지 않지만, 분배형태에서 <표 65>와 같이 노동의 질과 양에 대한 분배로 노동평가를 하여 주로 정액지불제와 정액지불제, 작업반우대제와 가급금 및 임금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58)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p.246.

59) 북한의 정규병력은 사회안전부 소속의 경비대를 포함하면 120만에 달함 (비정규 무력은 650만이 됨).

독일이 통일을 이룩할 당시 동독 인민군 병력은 국경 경비대를 포함하여 18만 미만으로 북한의 1/7 정도의 수준임.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어 통합될 때, 북한 인민군의 해체는 엄청난 노동시장문제를 포함하여 심각한 사회통합문제를 야기할 것이므로 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표 65> 임금형태별 노동평가

임금형태	노동평가방법	비고
정액임금제	노동시간과 노동질(기술등급)에 따른 평가	· 노동기준량 제정불가 · 작업결과를 숫자로 계산 곤란 · 도급노동적용시 제품의 질 저하 우려
도급임금제	생산물의 구량 또는 작업량으로 평가	· 비기술적인 육체노동 · 2,600여종의 작업량에 대한 노동기준량 설정
작업반우대제	계획목표달성여부에 따른 노동평가 계획목표에 기초우대제 설정	· 주로 탄광, 광산, 제염 등 생산부문에 적용
가급금 및 임금	특수노동조건과 기술고려 노동평가	

자료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p.419.

따라서 북한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결정기준은 정액임금의 경우 각 산업에 대하여 임금기준액을 정하여 노동별로 일정한 수의 기능등급으로 구분하고 난 후 각 등급에 임금계수를 더하여 기준자급, 임금계수 및 노동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 또한 <표 66>과 같이 도급임금의 경우는 임금계산의 단위가 도급단가로 기능급수별에 상관없이 일정한 작업과 제품의 복잡성 정도의 작업등급별로 같은 작업이나 제품에 대해 똑같이 적용하는 방법이다.

<표 66> 임금결정기준

구분	계산방법
정액임금(시간제 임금)	월간 총노동시간 × 해당급수의 시간당 임금 = 월임금액
도급임금	· 작업규준 적용시 : 제1급노동자 시간당노임 × 해당급의 노임을 × 1일 작업시간 $(8) \div 1일작업규준량 \times 생산량 = 임금액$ · 시간규준 적용시 ; 제1급노동자 시간당노임 × 해당등급의 노임을 × 제품당 시간규준 × 생산량 = 임금액
	i. 방법 : 작업반 성원의 총시간당 노임액 × 1일작업시간(8) ÷ 1일도급량 × 총생산량 = 작업반도급임금총액 ii. 방법 : 작업반 도급임금총액 ÷ 작업반성원의 임금단순총액 × 개별노동자 등급별 노임액 = 임금액

자료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p.419.

그러나 북한의 노동자들은 <표 67>에서 처럼 각 직종별로 차등지위져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1992년 북한의 일반노동자·사무원은 1개월 약 70원(북한 원) 정도의 평균임금을 받고 있다. 그에 비해 당정기관 및 공장기업소의 특급노동자들은 일반노동자와 사무원들보다 무려 3배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편의시설 관련종사자들은 1개월 평균임금이 50-80원으로 일반노동자·사무원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받고 있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부터 서비스업종이 왜 일반주민들에게 인기직업으로 부상하고 있는지를 짐작케 해준다.

또한 북한의 노동자들은 각 급수별로 차이가 난 보수를 받고 있다. 그 예로써 아래 <표 68>에서 처럼 철도노동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표 67> 직종별 임금변화 추이(1990-1992)

직종별 구분	직책명	연도별 임금	
		1990(단위 : 한국 천원)	1992(단위 : 북한 원)
당 · 정 기관	당 · 정무원부장	101-117	300-350
	정무원부부장급 · 도인민위원장급	84-101	250-300
	도인민위 부위원장 및 군인민위원장급	57-67	170-200
공장 · 기업소	특급기업소 지배인	84-101	250-300
	1-2급 기업소 지배인 및 기사장	50-67	150-200
노동자 · 사무원	광부, 제철, 제련공	30-34	90-100
	일반기계공, 운전기사	25-27	75-80
	일반노동자	23-27	70-80
	사무원	20-23	60-70
편의시설 관련종사자	여관, 식당, 이발소, 상점 등	17-27	50-80

- 주 : 1) 1990년 임금기준은 북한화 1원 = 한국화 335원으로 환산한 것임.  
 2) 1992년 임금기준은 북한이 1992년 2월 13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발표한 전체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평균인상률 43.4 %를 적용하지 않은 것임.  
 3) 북한 화폐는 극심한 물자부족으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자료 : 통일원, 남북한 사회 문화지표 1991, p.62. ; 통일원, 북한개요 1992, p.286.

<표 68> 철도노동자의 급수별 임금

증기 및 전기기관 조수		증기기관사		전기기관사	
급수(급)	임금(원)	급수(급)	임금(원)	급수(급)	임금(원)
무	40	5	93	5	93
1	50	6	103	6	103
2	63	7	113	7	113
3	73			8	123
4	83				

자료 : 공보처, 북한경제와 주민생활(1993),p.94.

그와 더불어 북한의 임금수준도 각 계층별, 직책별로 차등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강도(중노동이나, 경노동이나)에 따라서도 다음과 같이 5부류로 나뉘어지고 있다.

- 1) 제1부류 : 조립 등을 맡은 경노동자
  - 2) 제2부류 : 전기공, 선반공 등 전체노동자의 70 %
  - 3) 제3부류 : 건설분야에 배치된 중노동자(1일 식량배급량 800 g)
  - 4) 제4부류 : 기관사 등 유해분야에 배치된 노동자(1일 식량배급량 900 g)
  - 5) 제5부류(특수부류) : 용해공, 염산공 등 유해분야에 배치된 노동자(1일 식량배급량 900 g, 노동시간 1일 6시간)
- 또한 <표 69>와 같이 연령별로 식량배급의 차이가 있거니와 특히, <표 70>에서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듯이 식량 및 부식물까지도 5계층으로 구분돼<sup>60)</sup> 양과 질은 물론 가격에서조차도 차등배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60) 특히 이 점에서 심지어 5계층별로 담배도 차등배급되고 있다고 한다. 더 자세한 것은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p.572.를 참고 바람.

<표 69> 1인당 1일 식량배급량

(단위 ; g)

연령	0-4세	5-14세	15세 이상		
			일반노동자	중노동자 · 군인	병 · 노약자
배급기준량	300	500	700	800	400
1973년 이후 전쟁비 축미 월 4일분 공제	260	433	607	695	347
1987년 이후 절약미 10% 공제(식량사정 악화시)	234	390	547	624	324

자료 : 통일원, 북한개요 1992,p.280.

최근 식량배급제도가 제 기능을 상실하여, 주민들의 경제생활영역에서 사회일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생활영역에서의 사회일탈현상으로 무엇보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집단주의에서 일탈하는 사적·개인주의적 이해관계의 관철로 ‘암거래 및 지하경제(Schleichhandel & Untergrundwirtschaft)’, 개인부업, 폐기발 농사 등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암시장에서 돈을 끌어모아(빌어) 살아가는 생활양식을 취하는 사람들, 개인부업이나 폐기발 농사에 나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곧 순탄한 기능을 이미 상실한 배급제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집단주의 가치관에서 일탈하여 자구책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포함하여 전체인구의 60%에 이르렀고, 인구의 약 40%만이 기존의 집단주의적 배급제도에 의거하여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북한경제가 축소재생산 국면(마이너스 성장) 속으로 빠지면서 암울한 생존조건 아래서의 체념, 절망을 박차고 자구책으로서 암거래나 지하경제에 참여하거나 개인부업, 폐기발 농사에서 생존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의 수가 급속히 성장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1995년 현재 북한사회는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어 먹고, 굶어 죽어도 같이 굶어 죽는다”라는 집단주의 사상이나 소위 “정치사상적 자극”을 사실상 거부하는 주민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긍정적인 큰 변화·전환 과정이 시작하고 있다는 징조로 볼 수 있다.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중시하는 개인(소유)주의가 저변으로 확대돼 가고 있다는 것은 북한사회가 내부에서 부터 드디어 집단주의나 배급제도를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질곡으로 느끼면서 그것들을 거부·부정하며, 해체해버리는 데에 작지 않은 역할을 담당할 갖가지 힘(諸力)과 열정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지금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회일탈현상은 단순히 병리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생존의 한계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이 변화·전환을 요구하는 내적인 외침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사회일탈현상은 아직 반체제적 저항으로 볼 수는 없다.<sup>61)</sup>

61) 물론 현재 북한의 사회일탈현상은 개체의 생존문제가 무시되고 독재자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집단주의, 전체주의가 강요되는 북한사회에서 사적 영역이 제 자리를 찾는 실용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성적인 경제위기와 합리성의 위기에 대한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반응으로 나타난 사회일탈현상은 사적 영역이 확대·관철되지 않으면 북한주민들의 생존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실물(實物)로 교육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런 사실은 북한의 변화방향을 적시(暗示)한다.

< 표 70 > 북한의 5계층별 식료품 배급제도

성분·공급 계층	해당성분	공급량	공급처	비고
매일공급대상자	◎ 당중앙위 정치국 정·후보위원, 당중앙위 비서, 중앙당부장(단,조직지도부는 부부장까지), 비서실 요원, 김정일의 사진사·채봉사·이용사·제2호위부고급장교(김정일 호위담당) 등	● 쌀 700g, 두부 2모, 육류·야채·담배·맥주 등 필요량(1일 1인당)	◇ 호위총국 공급과	◆ 특별계층
1주공급대상자	◎ 중앙당 부부장(단, 조직지도부는 과장급까지), 정무원 부총리, 제1호위부 고급장교, 인민무력부·사회안전부의 장령급 군인 등	● 식량 700g(백미 6 : 잡곡 3)<1일 1인당>, 육류·야채·맥주·담배 등 (1주 1인당)	◇ 당재정경리부	
2주공급대상자	◎ 당중앙부서 지도원·책임지도원 과장급 등	● 식량 700g(백미 6 : 잡곡 4), 육류 4kg, 생선 10kg, 담배 30갑, 기타 야채·기름 등		
월공급대상자	◎ 매일, 1주, 2주 공급대상자 이외의 당간부들(직위·직종에 따라 다름) ◎ 정무원 부장·부부장급 등	● 월 1일 1인당 차별 ● 식량 700g, 육류 6kg, 생선 10kg, 계란 30개, 기름 3ℓ, 담배 30갑, 야채·맥주 등(월 1일 1인당)	◇ 공급소에 공급카드 제시 ◇ 1호공급소	
인민반공급대상자	◎ 최고인민회의부의장, 연합기업소 지배인급 등	● 식량 700g, 육류 6kg, 계란 15개, 기름 2ℓ, 생선 5kg, 담배 30갑, 야채·맥주 등(월 1일 1인당)	◇ 2호공급소	
	◎ 정무원 각부처 국장·책임지도원급 등	● 식량 700g, 육류 1kg, 계란 15개, 기름 1ℓ, 생선 1kg, 담배 30갑, 야채 등	◇ 3호공급소	
인민반공급대상자	◎ 정무원 각부처 과장급, 항일투사유가족, 영웅칭호자 등	● 식량 700g, 육류 1kg, 계란 15개, 기름 1ℓ, 생선 1kg, 담배 30갑, 야채 등	◇ 4호공급소	
	◎ 노동자·농민 등 일반주민	● 식량 : 15일에 1회, 1일 1인당 700g (백미 3 : 잡곡 7, 농촌 1 : 9) 중 2일분의 전쟁비축미 공제후 수령 ● 기타식료품 : 부식구매카드를 식료품 상점에 제시후 구입, 생선가구당 1개월 1kg(실제로 3-4개월 1kg 정도임), 육류는 명절에 특별 조달(1-2kg정도)	◇ 동 배급소	

자료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p.570. 재인용함

## 7.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

1990년대 북한에서 노동인구 1인당 GNP는 <표 71>에서 처럼 1990년 2,393 달러에서 1993년까지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1993년 현재 북한의 노동인구 1인당 GNP는 전년도 1992년보다 5.3% 감소한 1,921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1993년 현재 북한의 경상GNP도 전년도 보다 2.8% 감소한 205억 달러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표 71>은 북한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sup>62)</sup> 말해 준다.

<표 71> 노동인구 1인당 국민총생산

연도	경상 GNP(U.S. 억 달러)	경제활동인구 (천명)	노동인구 1인당 GNP(U.S.달러)
1965	19	4,316	440
1966	20	4,445	450
1967	23	4,578	502
1968	25	4,715	530
1969	26	4,856	535
1970	32	5,002	640
1971	35	5,152	679
1972	42	5,307	791
1973	52	5,466	951
1974	59	5,766	1,023
1975	65	5,974	1,088
1976	77	6,189	1,244
1977	86	6,411	1,341
1978	105	6,636	1,582
1979	124	6,861	1,807
1980	135	7,005	1,927
1981	136	7,336	1,854
1982	136	7,578	1,795
1983	145	7,821	1,854
1984	147	8,072	1,821
1985	151	8,539	1,768
1986	174	8,678	2,005
1987	194	8,868	2,188
1988	206	9,122	2,258
1989	211	9,383	2,249
1990	231	9,652	2,393
1991	229	10,083	2,271
1992	211	10,430	2,023
1993	205	10,674	1,921

주 : 경상GNP의 자료는 앞의 <표 33> 북한의 경제활동인구 현황과 같은 자료이며, 노동인구 1인당 GNP = 경상GNP / 경제활동인구 로 필자가 계산하여 작성한 것임.

62) 반세기에 걸친 끊임없는 노력동원으로 북한주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기진맥진(氣盡脈盡)한 상태에 처해 있다. 그들이 국가에게 바칠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공(人共)”의 성립 초기에 북한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혁명적 열정으로 당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던 모습은 더 이상 부분적으로나마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판매대가 들어 서있는 상점, 사무실, 공장에는 적극적인 노동동기를 유발하는 기풍 또는 메카니즘은 사라졌다. 노동력의 재생산에 꼭 필요한 물질적 자극이나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표 72>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노동인구 1인당 평균생산지수는 1986년 이후 1989년까지 약 100.7의 수준으로 정체현상을 보였으나, 1990년 94.2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6.0%로 급감하기 시작하여 1993년 71.4 수준으로 계속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1993년 현재 북한의 노동인구 1인당 평균생산성은 71.4 정도로 1992 수준보다 6.8%의 급감추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표 72> 북한의 1인당 평균생산지수와 증가율

구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인당 평균생산지수	100.0	101.0	101.2	100.7	94.2	85.4	76.3	71.4
전년비증가율(%)	-	0.9	0.9	-0.9	-6.0	-14.7	-11.1	-6.8

주 : 1인당 평균지수 = 당해년도 실질GNP / 당해년도 경제활동인구 ÷ 기준년도 실질 GNP / 기준년도 경제활동인구 × 100

자료 : 통일원, 1994년도 하반기 북한경제 동향 ( 1995.3), p.33.

## 8. 1990년대 북한의 주요경제지표

1990년대 북한경제의 <표 73>은 모든 분야에 걸쳐 물질적 재화의 재생산 조건이 침체내지 악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남한의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1년도 남한의 경상 GNP가 북한의 12.3배였으나, 1992년 14.0배, 1993년에는 16.0배를 기록함으로써 남북의 경제규모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남한의 1인당 GNP는 북한에 비해 1991년 6.3배, 1992년 7.2배, 1993년 8.3배로 신장함으로써 역시 경제규모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국민총생산은 1965년 19억 달러, 1975년 65억 달러, 1985년 151.4억 달러에서 1994년에는 212억 달러의 신장에 그치지만, 1994년 남한의 국민총생산은 1965년 30억 달러, 1975년 209억 달러, 1985년 897억 달러에서 1994년에는 3,769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1994년 현재 남한의 국민총생산은 북한의 17.8배에 이르고 있다. 또한 북한경제는 1994년 현재 -1.7 %의 실질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1990년 -3.7% 이후 1991년 -5.2%, 1992년 -7.6%, 1993년 -4.3%로 장장 5년 동안 부(마이너스)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경제총량은 노동력의 재생산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하여 1990년대 이전까지 구소련을 위시하여 구(舊)동구사회주의국가들과 중국 등의 경제·기술 원조에 의존하여 겨우 명맥을 유지해 왔던 북한의 자립(또는 주체)적 민족경제모델은, 제3차7개년계획(1987-1993)이 실패(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축소재생산)로 돌아가자, 허구로 끝났고 대내외적 요인에<sup>63)</sup> 의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김일성 자신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얼마 후 사거(死去)하고 말았다.

결국 북한정권은 분업·협업체계의 지체(肢體)가 산산조각으로 떨어져 나가고 만신창이의 동체(胴體)마저 뼈동뼈동 마비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3년간의 완충기(조정기 : adjustment period)를 설정하고 그 동안 선행부문(전력·석탄·금속·운송)의 정상화와 이에 의거하여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란 소위 3대혁명적 경제전략의 관철을 위해 다시금 2년 동안 영양실조와 정치사상적 쇄뇌(이데올로기 “폭력 테러”!)로 기진맥진한 주민들에게 총동원력을 내려 노력투쟁으로 휘몰았다. 김정일 세습권력은 허망한 목표달성을 위해 주민을 독려하는 것이나 “혁명정신(자력갱생·艱苦奮鬪)”과 “혁명적 열정”을 고무하는 것이나 “고난의 행군”을 강권하는 것이 건전한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아직 대신할 수 있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북한권력의 사고(思考) 즉 유훈통치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잉태하고 생산하고 있는가. 이 점에서 오늘날 북한의 노동자들이 겪는 구래(舊來)의 온갖 고난의

63) 이 때 ‘대외적 요인’은 소련 및 동구 공산당 정권의 몰락에 따른 경제·기술 원조의 단절이고, ‘대내적 요인’은 신정(神政)체제의 문명·문화 건설과 군사경제건설에 따른 엄청난 자원고갈임.

상황을 어떤 말로 서술할 수 있겠는지.

제 아무리 1990년대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를 하나하나 눈을 몇 번이고 비비고 관찰하여 봐도 벼랑에서 추락하여(즉 축소재생산의 궤도를 따라 가속화된 누진적 하향운동을 하다가) 이젠 침체의 계곡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북한경제가 완충기 최종년도인 1996년에 들어와서도 기사회생(起死回生)에로의 반전을 할 기미(機微)나 징조를 어느 한 섹터에서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바로 현재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물질복지증진은 아득한 시계(視界)에 놓여 있을 뿐이다.

<표 73> 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비교추이(1991-1993)

구분	단위	북한(A)			한국(B)			배율 (B/A)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 인구	천명	22,028	22,336	22,645	43,268	43,663	44,056	2.0	2.0	1.9	
2. 경상 GNP	억 \$	229(231)	211(229)	205(211)	2,808 (2,422)	2,945 (2,817)	3,287(3,057)	12.3(10.5)	14.0(12.3)	16.0(14.5)	
3. 1인당 GNP	\$	1,038 (1,064)	943 (1,038)	904(943)	6,498 (5,659)	6,749 (6,518)	7,466 (7,007)	6.3(5.3)	7.2(6.3)	8.3(7.4)	
4. 경제성장률	%	-5.2(-3.7)	△7.6(△5.2)	-4.3(-7.6)	8.4(9.3)	4.7(8.4)	5.6(5.0)	-	-	-	
5. 대외경제	1) 무역총액	억 \$	27.2	26.6	26.4	1,534.0	1,584.1	1,660.4	56.4	59.6	62.9
	(수출)	억 \$	10.1	10.2	10.2	718.7	766.3	822.4	71.2	75.1	80.6
	(수입)	억 \$	17.1	16.4	16.2	815.3	817.8	838.0	47.7	49.9	51.7
	(무역총액/경상GNP)	%	11.9	12.6	12.9	54.6	53.8	50.5	-	-	-
	2) 대미환율	원 / \$	2.15	2.13	2.15	733.6	780.84	802.73	-	-	-
	3) 외채	억 \$	92.8	97.2	103.2	391.3	428.2	440.8	4.2	4.4	4.3
	(외채/경상GNP)	%	40.5	46.0	50.3	13.9	14.5	13.4	-	-	-
6. 예산 규모 (대GNP 비율)	1) 규모액	억 \$	171.7	184.5	187.2	427.8	429.0	474.0	2.5	2.3	2.5
	(대GNP비율)	%	75.0	-	-	15.2	-	-	--	-	-
	2) 군사비	억 \$	51.3	55.4	56.2	105.9	111.9	119.2	2.1	2.0	2.1
	(대GNP비율)	%	22.4	-	-	3.8	-	-	--	-	-

7. 에너지 산업	1) 석탄	만 ton	3,100	2,920	2,710	1,500	1,197	944	0.5	0.4	0.3
	2) 발전용량	만kw	714	714	714	2,111	2,412	2,765	3.0	3.4	3.9
	3) 발전량	억kwh	263	247.0	221	1,186	1,310	1,444	4.5	5.3	6.5
	4) 원유 도입량	만ton	189	152	136	5,448	6,930	7,568	28.8	45.6	55.6
8. 농수산물 생산량	1) 곡물	만ton	530.7	426.8	388.4	623.6	620.6	557.4	1.2	1.5	1.4
	(쌀)	만ton	217.6	153.1	131.7	538.4	533.1	475.0	2.5	3.5	3.6
	2) 수산물	만ton	120	114	109	298	329	334	2.5	2.9	3.1
9. 광산물 생산량	1) 철광석	만ton	816.8	574.6	476.3	22.1	22.2	21.9	0.0	0.04	0.05
	2) 비철금속	만ton	22.7	17.8	16.4	50.0	64.1	68.2	2.2	3.6	4.2
10. 중화학공업생산량	1) 자동차	억 臺	1.2	1.04	1.0	150	172.5	205.0	125.0	165.9	205.0
	2) 조선	만G/T	4	5.5	5.1	443	456.7	338.3	110.8	83.0	66.3
	3) 강철	만ton	316.8	179.3	186	2,600	2,805	3,325	8.2	15.6	17.9
	4) 시멘트	만ton	516.9	474.7	398	3,833.5	4,265	4,680	7.4	9.0	11.8
	5) 비료	만ton	143.5	138.5	160.9	332.4	3,999.0	411.3	2.3	2.9	2.6
11. 경공업생산량	1) 직물	억m	2.1	1.7	1.9	110	73	60.4	52.4	42.9	31.8
	2) 섬유	만ton	5.4	4.2	5.3	144	158	159.6	26.7	37.6	30.1
12. 사회간접자본	1) 철도총연장	km	5.59	5,096	5,112	6,462	6,496	6,517	1.3	1.3	1.3
	2) 도로총연장	km	23,000	23,219	23,219	58,088	58,905	61,295	2.5	2.5	2.6
	3) 항만능력	만ton	3,490	3,501	3,501	24,836	25,766	26,894	7.1	7.4	7.7
	4) 선박보유	만ton	60	85	88	727	691	638	12.1	8.1	7.3

자료 : 한국은행조사제2부, 1991년(1992.8) · 1992년(1993.6.) · 1993년(1994.6.) 북한 GNP 추정결과

#### IV. 평가 및 결론

본 조사·연구 보고서는 “어떤 국가나 어떤 사회에서든 인구가 노동력의 공급원이고 노동력 규모가 인구 및 그 구조, 경제활동가능인구(또는 노동가능인구) 규모와 경제활동참가율에 의해 곧 장기적으로 인구학적 요인(demographische Faktoren)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인구학적 접근법을 채택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발전되어 온 노동경제학적 접근법(arbeitsökonomische Vorgehensweise)을 적용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이 노동경제학적 접근법은, 북한지역이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 처럼 다소간 순조롭게 한국에 흡수·통합된다면, 적극적으로 원용(援用)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경제(또는 생산)활동에 실제 참가하는 노동력(또는 인력) 구조에 관한 조사에 앞서 먼저 북한 중앙통계국, 한국 통일원과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하여 북한지역에 있어서의 인구발전과 인구구조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여 보았다.

북한의 노동력 구조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인구발전과 그 구조를 관찰한 결과로 획득된 중요한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

(1) 1995년말 현재 통일원 자료로 보면 북한의 총인구는 2,326만1천 명(에버스타트의 자료를 근거로 하면 2,348만7천 명)이고, 인구성장률은 1.34%(에버스타트 : 1.76%)로 추정된다. 북한지역의 총면적은 122,762km<sup>2</sup>(임야는 91,323km<sup>2</sup>로 74.4%, 농경지는 20,123km<sup>2</sup>로 16.4%, 공장 및 사회간접자본용 敷地는 11,306km<sup>2</sup>로 9.2%)이고, 그에 따라서 인구밀도는 1km<sup>2</sup>당 190명(에버스타트 자료 : 191명)으로 추정된다.

공식적으로 북한 중앙통계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1987년 총인구는 1,934만6천 명, 인구성장률은 1.5%였다. 그 이후 북한당국의 발표 자료가 없는 관계로 한국 통일원의 추정 자료에 의하면, 1990년 총인구는 2,172만 명((에버스타트 : 2,141만2천 명), 인구성장률은 1.61%(에버스타트 : 1.87%)이고 1993년 총인구는 2,264만5천 명(에버스타트 : 2,264만6천 명), 인구성장률은 1.38%(에버스타트 : 1.84%)이다. 따라서 1990년대 북한의 총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나 연(年)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1980년대말에서 1995년까지의 북한의 경제실상(70% 이상의 기업소와 공장이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관련시요 보면, 비록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노동력 공급원으로서의 인구가 증가일로에 있다는 것은 북한지역에서 공급되는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축적수요(新投資: Netto-Investition)가 현실화될 수 없기에 과잉 노동력 공급이란 압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2) 1995년 성비(性比)는 100.2%(남성 : 1,164만3천 명, 여성 : 1,161만8천 명)로 남성의 인구수가 여성의 인구수를 약간 추월하고 있다. 1987년도의 경우 여성의 인구수가 남성의 인구수를 훨씬 능가하여 성비가 84.2%(북한 중앙통계국의 발표 자료)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성비가 균형을 이룬 1992년을 기점으로 하여(한국 통일원 추정 자료에 따라) 불과 10년도 못되는 사이에 그 역전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 현상은 남아선호사상이 북한지역에서도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일런지도 모르겠다. 또한 강제노역장(強制勞役場)·건설노동현장에 동원되지 않게된, 즉 집단주의적 배급제도에서 탈락한 “귀부인(貴婦人)”의 수가 증가일로에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3) 1995년도 연령별 인구구조(통일원 자료)를 보면 0-14세 구간에 들어가는 인구수는 692만4천(1990년 721만4천, 1993년 704만)명, 15-24세 구간의 인구수는 506만5천(1990년 476만9천, 1993년 494만7천)명, 25-54세 구간의 인구수는 899만4천(1990년 789만3천, 1993년 855만4천)명, 55세 이상의 구간에 들어가는 인구수는

227만8천(1990년 184만3천, 1993년 210만4천)명이다.

1990년대 인구의 연령구조(Altersaufbau der Bevoelkerung)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북한 인구의 물질적 생존조건(die materiellen Existenzbedingungen der nordkoreanischen Bevoelkerung)이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는데도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인구가 정말로 낮은 출생률과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면, 출생률의 경향적 저하는 맬더스(Malthus)의 인구법칙을 확증시키고 낮은 사망률은 인간 생명의 끈질긴 내구성(耐久性)을 말해 주는 것일런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주의를 돌려야 할 북한지역에 있어서의 인구발전의 한 현상은 1990년대에 15세 이상의 청장년층(곧 노동가능인구)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기업소와 공장의 아주 낮은 가동도(稼動度) 때문에 기존의 기업소나 공장에 사실상 엄청난 규모의 노동력이 유향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노동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력이 과잉 배치된 상황 하에서 직장에 새로 배치될 수 없고, 집단주의적 배급제에 편입될 수 없는 이들 청장년층은 당장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자신의 사적 노동에 입각한 영세한 개인적 상업·농업·공업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생존의 한계상황에서 1990년대 중반의 북한사회는 소위 사회주의 경제에 모순되는 사회일탈현상의 경향적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4) 1995년 현재 농가인구(약 850만 명)가 총인구의 36% 내지 37%를 접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북한지역에서의 도시화 정도(Verstaedterungsgrad ; urbanization rate)가 60%를 넘어선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학자들이<sup>64)</sup>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 현실이 아닌 추상적 숫자(abstrakte Zahlen)가 유발하는 망상의 괴력 때문이다. 역으로 북한당국에 의해 도시로 분류된 곳에 사는 인구수가 통계 수치상 60%이상으로 포착(捕捉)된다고 해도 북한지역의 도시화 정도(또는 도시화율)는 아직 30% 미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심지어 평양특별시의 경우에서 도시화 정도(또는 도시화율)가 3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별 인구분포에 관한 지식은 지역별 노동력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역할을 할 것이다.

1995년 현재 총가구수는 500만 정도로, 가구당 평균가족수는 4.6명 정도로, 그리고 북한주민의 주택보급률은 약 60% 내지 65% 수준으로 추정된다.

(5) 북한의 중앙통계국 발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에버스테트에 의해 추계된 1990년대초 북한의 직업별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 중 국영기업소 및 공장 노동자는 57%를, 공무원 및 사무원은 16.8%를, 협동·국영농장의 농민은 25.3%를, 협동기업 노동자는 0.9%를 차지하고 있다.

1995년 현재 인민군 병력은 104만 명인데 여기에다 상비군 10만 명을 더하면 114만 명(총인구의 약 5%)이 된다. 그 중 병력인원의 13% 정도인 15만 명이 상시적(常時的)으로 각종 건설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6) 1992년 현재 북한의 총학교수는 9,132(인민학교 4,790·고등중학교 4,062·대학 280)개교, 총학생수는 514만4천 명으로 총인구(1992년 통일원 추계)의 약 22.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학이나 대학생의 교육수준 및 지적(知的)수준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이 열악하다. 평균적인 대학졸업자의 교육 정도나 지적 능력은 한국의 평균적인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훨씬 더 낮다고 보아도 과장이 아니다.

(7) 1980년대의 인구가동률은 6% 미만이었었고, 1990년대 중반인 현재는 약 6%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낮은 국내 인구가동률은 각종 재화의 생산이 원만한 매매관계 또는 시장관계를 경유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말고도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없다는 사정

64) 김문조 편, 북한사회론(서울 : 나남, 1994).

(노예제 사회나 봉건제 사회에 특유한 人身奴隸!)에, 곧 노동(력)시장의 미발달에 기인한다. 또한 인구이동률이 극도로 낮다는 사실은 노동력의 이동성(Mobility der Arbeitskräfte)이 심히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어떤 노동자가 일단 어떤 기업소·공장이나 협동농장에 배치되어 일터를 갖게 되면, 그는 거의 일생 동안 “해고되지 않고” 배치된 직장에서 일하며 이 직장과 관련된 집단주의 배급제에 의거하여 살아야 한다는 ‘북한식 종신고용제(a North-Korea variant of lifetime employment system)’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이동률(노동력의 이동을 포함하여)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현재 북한의 과국적인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인간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강구되어 확산되고 있는 경제생활 영역에서의 사회일탈현상에 대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태동하기 시작하는 전(前)국면에 특수한 상품생산사회의 맹아(萌芽)가 - 예를 들면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는 단계에 이르르지 않았지만 자신의 노동력을 스스로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회의 내적인 발전 국면에 특수한 - 급격한 템포(tempo)로 싹트고 있다는 것과 그에 따른 국내 인구이동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예고해 준다고 하겠다.

(8) 노동력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인구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무시되어선 안 될 출생과 사망, 그리고 혼인과 이혼에 관해 에버스태트에 의한 인구학적 접근법에 따라 정리·작성된 통계자료를 훑어 본 후<sup>65)</sup> 2050년까지의 북한 인구발전에 관한 향후 전망을 살펴 보았다. 미국의 인구학자이며 북한전문가인 에버스태트는 2000년도 북한의 연앙(mid-year)인구는 2,550만 정도로 내다 보았다. 그의 전망에는 북한경제에 대한 그의 “의도되지 않은 낙관”이 많은 적든 간에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노동력 구조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꼭 참조되어야 할 그의 인구학적 조사·연구 결과가 소련이나 동구권에서의 가속화된 경제·사회 풍토의 황폐화를 아직 발견할 수 없었을 때 나왔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인구발전과 그 구조에 관한 자료에서 출발하여 노동력 구조에 관해 가능한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하여 평가할 수 있겠다. :

(1) 본 조사·연구 보고서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간격으로 북한지역의 생산(또는 노동)가능인구를 인구학적 접근법에 따른 에버스태트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하여 보았다. 이 때 북한 노동법 규정에 따라 생산(또는 노동)가능연령을 16세 이상부터 64세까지로 보았다.<sup>66)</sup> 그리고 10개의 연령계급으로 구분된 연령구조를 고려하였다. 1995년도의 경우 생산(또는 노동)가능인구는 1,518만 명으로 추계됐는데, 10개의 연령구간을 다시 4개의 연령구간으로 나누어 고찰했을 때 16세에서 29세까지 생산가능인구(靑年)는 670만6천 명으로, 30세에서 44세까지(壯年)는 524만5천 명으로, 45세부터 59세까지(更年)는 266만1천 명으로, 60세부터 64세까지(老年)는 56만8천 명으로 추산돼, 생산(또는 노동)가능인구의 연령구조는 아직도 비교적 젊은 것으로 분석됐다. 15세 이상의 청소년을 노동가능연령인구에 포함시켰을 때, 1995년 현재 생산(또는 노동)가능인구는 총인구의 약 70%인 1,140만 명 정도에 이른다.

그러나 15세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통일원 자료에 의거했을 때, 1994년의 생산(또는 노동)가능연령인구는 1,597만 명이고, 그 중에 경제활동인구가 1,104만7천 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69.2%(총인구 대비)이었으나

65) 이 때 1995년 조출생률은 23.3%이며 조사망률은 5.5%이고, 1990년대에 들어와 기혼부인 1인당 평균출생아수는 약 2명,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약 6명이다.

66) 그러나 15세 이상의 연령을 포함하고 있는 한국의 통일원 자료에 의한 추계 내용도 본고에서는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1995년말 현재 경제활동인구가 1,140만 명 정도이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9.8%로 각각 증가 추세라고 추정됐다. 이의 해석에는 상당한 주의를 요구한다. 북한 병력(인민군 104만)이 경비대 10만을 포함하면 114만 명에 달한다고 볼 때, 1995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76.8%(1994년 약 74.4%)로 나타난다. 이것은 노동력 부족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한국이 목표로 정한 1996년 경제활동참가율이 62.3%(1992년의 경우 약 61%)라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얼마나 높은 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노동가능한 거의 모든 인력이 각종 노역(勞役)에 동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노동력이 이런 저런 산업부문이나 기업소·공장에 과잉으로 배치되고 있다. 경제를 총관리하는 북한경제계획기구의 축적에 대한 주관적 욕구(소위 투자 마인드)가 높아 이런 저런 기업소·공장을 확장하고 신설했지만, 북한경제가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장장 10년 동안 단순재생산이라는 정체의 늪에서 축적률 “0”으로 허우적거리다가 1989년 이래 1995년 현재까지 줄곧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축소재생산의 궤도 위에서 하향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에 넣을 때 노동력이 얼마나 과잉 배치돼 있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엄청난 규모로 사실상 유향되어 있겠는가 하는 것은 명백해진다(a huge scale of redundantly allocated/allotted labour powers). 특히 전시동원체제의 북한에서 경제 메카니즘(mechanism)은, 생산영역(노동력 재생산)에서 뿐만 아니라 생산영역(물질적 재화의 재생산)에 물자가 만성적인 부족을 겪게 되어 악화된 사태가 심화되면 될수록, 노동력이 경제회생에 아무런 기여도 못하는 무의미한 각종 노역에 더욱 더 많이 동원되고 더욱 더 과잉 배치되고 그리하여 생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인간 노동이 더욱 더 탕진되게끔 작용하기 마련이다.

(2) 본 조사·연구 보고서에서는 본론의 핵심부분(노동력 배치구조 : “고용?”구조)에 육박하여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국은행 조사제2부의 1993년 북한 GNP 추정결과를 토대로 하여 북한경제의 산업구조와 그 변동에 관해서 알아 보았다. 1993년 현재 북한의 산업구조에 있어서 농림수산업 부문의 생산실적은 GNP 대비 27.9%, 공업부문은 32.95(중공업 ; 경공업 = 72.5 : 27.5),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부문은 3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산업구조에 노동력 배치구조(산업별 고용구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생산능력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다고 한다면(bei normaler Auslastung der Produktionskapazitaet), 북한의 산업구조에 있어서 부문별 비중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북한경제를 제1차산업(Primaersektor), 제2차산업(Sekundaersektor), 제3차산업(Tertiaersektor)으로 구분하고, 석탄 및 철강 따위를 위시한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광업부문과 농림수산업을 합쳐서 제1차산업으로, 생활자료(生活資料)로서의 소비재와 생산재를 생산하는 제조업 부문을 제2차산업으로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부문을 제3차산업으로 분류했다더라면, 부문별 비중(산업구조)는 달라졌을 것이다.

농업부문에 배치된 노동력 규모를 1987년부터 1994년까지 연도별로 추산해 본 결과 농가인구도 농업노동자도 연년세세(年年歲歲)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 대비 농업 노동자 비중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4년 현재 농가인구는 840만명 정도로, 농업 노동자는 410만명 정도로, 농가인구는 총인구 중 37%로 추정된다. 봄, 가을의 농한기에는 석 달 동안 11세 이상의 북한주민 거의 모두가 농업전선에 동원돼 농사에 매달리는 데도 농업부문의 생산실적은 암울하기만 하다. 북한지역에 있어서 인간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이(곧 자연 제어능력이) 경향적으로 저하하는데 기인한다. 생산력이 저하하고 있다는 심상(尋常)치 않는 사태는 북한지역에서 지배하고 있는 생산관계가 생산력 발전에 질곡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3) 1994년의 경우 생산(또는 노동)가능인구 1,597만1천명을 각 산업의 GNP에 대한 비중을 근거로 배분했을 때, 농림수산업 부문에 배분될 노동력 규모는 410만5천명, 광공업 부문의 경우는 766만6천명, 기타 서비스

업 부문에는 420만명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산업별 노동력 배치구조(고용구조)로 본다면, 이것은 명백히 오관(Trugschluss)이다. 즉 1994년 경제활동인구 1,104만7천명에서 114만의 군인력을 빼면, 990만7천명이 남게 된다. 필자는 북한의 1,104만7천명이 아니라 990만7천을 북한지역의 실제 경제활동인구의 규모로 간주하고 싶다. 실제 경제활동인구 대비 농업부문의 노동력 규모는(408만7천명)의 비중은 41.2%로 계산한다. 산업별 노동력 구조에 관한 한, 황의각이나 에버스테트의 자료 보다는 통일원의 자료가 보다 더 신빙성 있는 자료로 원용(援用)하고 싶다. 통일원의 자료를 원용했을 때, 1994년도 산업별 노동력 배치구조(“고용?” 구조)에 대한 실제 경제활동인구 990만7천명 중 408만7천명(41.2%)이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전력공업·광업을 포함한 제조업 부문에는 약 404만2천명(40.8%)의 노동력이, 기타 서비스업 부문에는 177만8천명(18%)의 노동력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성별 노동력 배치구조(“고용?”구조)에 관한 한, 윤기정 노동당 재정부장의 1995년 북경 발언에 의하면 여성 노동력의 비중은 농업부문에에서는 53%, 공업부문에에서는 44%, 상업유통부문에에서는 73%, 편의봉사부문에에서는 76%, 교육부문에에서는 56%, 보건부문에에서는 65%에 달한다고 했다. 그녀의 발언을 근거로 하여 산업별 여성 노동력 배치구조(실제 경제활동인구의 규모 중 485가 여성으로 총수는 475만5천명)를 밝혀 본다면, 1994년도 농업부문에에서 실제 종사하고 있는 여성 노동력 규모는 216만6천명으로, 공업부문에 실제로 배치된 여성 노동력 규모는 177만9천명으로, 당정행정관리부문(중앙과 지방을 포함하여), 상업유통부문·편의봉사부문·교육부문·보건부문 등 기타 서비스업부문에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노동력 규모는 81만명으로 추계된다.

여성 노동력이 전통적으로 많이 배치된 부문은 어느 나라나 경공업과 보건, 교육, 상업, 유통 등의 서비스 부문이다. 북한도 주로 섬유, 방직, 의류 따위의 경공업부문에 여성 노동력이 많이 배치돼 있는데, 이 점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교육(주로 유아원이나 인민학교), 보건(의사, 약사, 간호사), 당·정 행정관리부문(중간간부)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력을 고등교육을 받은 인텔리겐차에 속한 것으로 본다면, 특히 이들 부문에 약 50만의 여성 인텔리겐차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상업유통부문이나 편의봉사부문에 배치된 여성 인텔리겐차의 수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윤기정의 북경 발언을 진실로 받아 들인다면 고등교육(전문학교 및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118만 내지 120만 명의 남성 인텔리겐차가 교육부문에에서는 교원으로, 보건부문에에서는 의료진으로, 당·정기구의 행정관리부문에에서는 당·정의 일꾼 및 사무원으로, 기업소 및 공장의 기사·기술자·기능사 등으로 그리고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종사한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북한지역의 중앙 및 지방에서 통치 조직망을 형성하고 있는 당·정기구의 하급, 중간급, 고급 관료의 총수(지도원급 이상)는 60만 내지 70만명 정도로 보면 좋을 것이다.

(5) 노동력 구조를 파악하자면 노동통계자료에 의거할 수 밖에 없는데, 노동통계자료는 조사방법(Ermittlungsverfahren ; survey method)과 자료원천(Datenquelle ; data source)에 의해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사업장별 조사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가구별 조사자료이다. 북한의 노동력 구조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그 자료원천이 사업장별 조사(betriebsbezogene Ermittlung ; establishment survey) 보다는 가구별 조사(haushaltsbezogene Ermittlung ; household survey)에 의존하여 전개돼 왔다고 할 수 있다. 노동력 구조에 관한 조사·연구가 경제활동참가나 비경제활동참가에 관한 것에 국한된다면 “공민등록제”에 따른 조사결과나 가구별 조사결과를 이용하면 충분할 것이다. 일정 규모에 달하는 사업체 총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그 중 일부분을 표본으로 뽑아 사업장 단위별로 취업자의 규모 등 여러가지 분야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장별 조사도 노동력 구조의 파악에 필요불가결하다고 보고, 주요 기업소 및 공장에 배치된 노동력 규모에 관해서 알아 보기로 했으나, 북한당국이 이에 관해 어떤 통계자료도 발표한 적이 없어 탈북자의

한정된 증언이나 기업소나 공장이 자리잡은 지역의 인구분포 등을 참조하여 기업소 및 공장별 노동력 규모에 관한 정보를 얻어 내고자 노력해 보았다.

북한-하나의 국가로 본다면-은 '4대군사노선'을 부단히 추구하여 온 전시동원체제의 병영국가로 특징지우고 따라서 산업구조가 군사경제원칙에 따라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형성·편성돼 왔다고 보고, 먼저 군수공업에 배치된 노동력 구조에 관한 사업장별 조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자료조사·수집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역부족을 절감했다. 북한에서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산업구조의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면, 첨단기술과 과학기술인력이 집중적으로 포진돼 있고 방대한 규모의 자원을 민수(民需)부문의 희생에 의해 최종적으로 당진해 버리는 북한 군수공업의 해체나 민수전환은 통일과정의 진행에 필수적이다. 군수공업에 배치된 노동력을 와해된 경제기반의 정비(Sanierung)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수공장, 군사시설 현황을 포함하여 동(同)부문의 노동력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조사·연구는 우리 두 사람만으로는 너무 지난(至難)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1985년 이후 1995년까지 포착된 군수공장수는 총포 공장 17, 탄약 공장 35, 전차 및 장갑차 공장 5, 함정건조소(艦艇建造所) 5, 항공기 공장 9, 유도(誘導)무기 공장 3, 화생방 공장 8 곳 등을 비롯하여 33호공장, 평양전선공장, 대동강축전지공장, 통신장비 공장(성천통신장비공장 및 원산통신장비공장 등) 등을 합하면 총 137개 정도였다. 또한 1995년 현재 병기 및 군장비공장수는 200여개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밖에 일반군수공장들과 평상시에도 각종 군수물자·병기·군장비를 제조하는 직장(Werkhalle oder Werkstaette)를 갖추고 있는 전시전환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불지기수(不知基數)다. 이들 군수공장들 중 일부분(54개)를 뽑아 노동력 구조를 조사해 보았는데, 병기·군장비·일반군수물자 등을 최종재(Endprodukte ; final goods)로 제조하는 군수공장들과 직접·간접으로 연결돼 있는 기계제작부문, 금속공업부문, 화학비료공업부문, 화력발전소, 시멘트, 화학섬유부문 등에 있어서의 주요 기업소·공장들에 비해 “덜 노동집약적(wenigerarbeitsintensiv ; less labour intensive)”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수공장들 안에 들어 앉은 기계나 설비만은 현대화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군수공장들에 배치돼 있거나 병기·군장비·군수물자 등을 제조하는 전시공장의 군수직장들에 배치돼 있는 노동력 규모는 적어도 60만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의 8대공업지구(①평양·남포공업지구 ②청진·무산공업지구 ③함흥공업지구 ④김책·단천공업지구 ⑤원산·문천공업지구 ⑥신의주·구성공업지구 ⑦강계·회천공업지구 ⑧안주·순천공업지구)의 주요 기업소 및 공장에 배치된 노동력 규모에 관해 조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작업이 완결되지 않아 본 조사·연구 보고서의 본론 부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조사·연구는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질 것이다. 물론 북한지역에는 민수부문에 들어가는 소비재공업 또는 생필품 제조업의 발달은 너무나 한심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극도의 생필품 부족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114만의 인민군 병력과 650만의 준군사병력 유지와 군수공장의 운영에 사회의 전(全)역량이 집중되다 보니 소비재에 관한 한, 생필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은 ‘북한에서 1년간 체류(滯留)한 바 있는 보고자의 실제 관찰로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말할 수 있다. 군수공업과 이것과 직접·간접으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공업부문의 노동력 구조 실태는에 관한 조사도 본 조사·연구 보고서는 시간을 갖고 계속 추적할 것이다. 사업장별 조사대상은 중앙당 및 정무원 경제관련부서에 의해 직접 지도·통제되는 3급 이상의 주요 기업소·공장에 국한됐다. 각 도·시·군 당위원회와 각 도 행정위원회에 의해 통괄(統括)되는 지방공업에 들어가는 기업소나 공장은 노동력 규모나 생산설비의 규모도 영세하고 실적도 유명무실하여 사업장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6) 북한 노동력의 질은 교육수준이나 교육기간(유치원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의 11년제 무상의무교육)이 한국의 것에 비해 낮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양호하다고 대북(對北) 경제교류문제

담당 실무자들이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문자해독률, 평균교육년한, 고등교육담당기관별 학생수 등 교육관련 지표만을 근거로 하여 노동력의 질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남북한 간에 큰 차이는 외관상으로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북한에 있어서 노동력 공급원으로서의 인구상 교육수준의 문제를 다룰 때 고찰한 교육관련지표가 곧장 노동력의 질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등중학교생을 포함하여 전문학교·대학교 학생들의 과학기술교육 습득수준을 향상시키자면 이들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배우는 자들과 가르치는 자들에게 물질적·기술적인 교육훈련조건들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자원을 배분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교육투자는 반세기에 걸쳐 군확노선(軍擴路線)만이 인민경제(Volkswirtschaft)의 희생아래 관철된 전시동원체제에서 뒷전으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학습장이나 필기 도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과서마저 변변히 갖출 수 없는 조건 아래서 배워야 하는 각급 학생들에게 제공된 것은 개인의 창조력(Innovationskraefte)과 자발성(Entscheidungsfreiheit) 계발을 목표로 한 인적 자원의 개발교육이 아니고, 내용상 체제순종형 인간육성을 위한 강도 높은 정치사상 위주의 세뇌(洗腦)교육-즉 사이비 종교교육에 가까운 소위 인간개조교육-이었다. 북한의 지배집단은 노동계급의 인텔리화를 말하면서 전(全)주민의 백치화(白痴化)를 끊임없이 획책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산과 생활에 관한 정보의 흐름이 차폐(遮蔽)된 북한주민에게 새로운 것을 듣고 보고 싶어하는 “내적인 귀와 눈”이 닫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생존조건을 개선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단순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나 기능은 그러나 학교교육의 내용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행지학(實行之學 : learning by doing)”을 요구하는 인간에게 유용한 노동생산물을 창조하는 기업이나 공장의 노동현장 또는 노동세계의 일반적인 기술조건에 더 크게 의존하여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학교교육은 정치·경제·사회 생활을 위한 기초물질을 함양한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1994년 현재 북한지역에는 명목상 290개의 대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대학은 단지 김일성대학과 김책공대 2개교 뿐이다. 이공계 대학은 58개교(북한은 이공계 대학 중 “성균관 : 구(舊)개성경공업대학을 종합대학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기준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필자는 단언함), 사범·교원대학은 38개교, 농·수산대학은 26개교, 의과대학은 17개교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 밖에 특수 목적의 교육훈련기관들은 150개교(공장대학 100개, 예체능대학 16개, 인문대학 13개, 공산대학 12개, 농장대학 5개, 어장대학 1개, 방송대학 1개, 김일성고급당학교 1개교 등) 정도이다. 이 때 특수교육훈련기관들의 교육내용을 일별해 볼 때, 도저히 대학(Hochschule)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호의적으로”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은 140개교 정도가 된다는 산술적(算術的)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우리가 본 대학개념의 보편적 기준을 적용할 때, 대학수준의 고등교육기관은 종합대학이 2개교, 단과대학급이 90개교 정도로 모두 합해 100개교도 못된다. 이들 대학의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하겠다. 한편으로는 전시동원체제 하에서의 방대한 군사력의 유지·확장이라는 압력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한 신정(神政) 문화와 문명의 보지(保持)·건설 때문에 북한의 경제력은 너무 버거운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논점은 교육통합문제를 취급하는 북한교육문제 전문가들이 꼭 유념해야 할 것이다.

(7) 1990년 북한주민의 평균수명은 약 64.32세(남성 61.82세, 여성 66.82세)로 통일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1930년대-1940년대나 전후시기인 1950년대-1960년대초 한국사회에서 지배했던 그런 열악한 일반주민의 생존조건 아래서는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론(異論)을 제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간 생명은 정말 모질고 모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다. 1970년대말-1980년대초 이래 북한의 무상의료제도는, 병원 등의 의료·보건기관이나 의료인력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마비됐다고 본다. 의약품 등의 의료혜택은 당·정·군 간부와 그의 가족 등의 극소수 특수층에게만 주어지고 있다. 북한주민의 평균수명이 매우 높다고 말한 것은, 인구가 몇몇 특수부류를 제외하고 한결같이 영양실조 상태에

서 갖가지 후진국형 질병에 노출돼 있는 비참한 상황을 실제로 목격도 하고 몸으로 겪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나 농민은 외래진료나 입원치료를 포기한 지가 이미 오래된다. 예방의료제도가 잘 발달돼 무병장수의 나라가 됐다는 말은 상투적인 기만선전이다. 노동력 자체를 생리적으로 겨우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없어 그들의 건강이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받는 생활환경 속에서 근로의욕(Arbeitsmoral)이 나올리 만무하고 작업규율을 준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노동자들은 가혹한 처벌이 따르는 체제 저형적인 발언을 피하는 보신주의(補身主義)에 철저하지만 북한식 무사안일이나 요령주의(適當主義)이나 사보타쥐(sabotage)에 능하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는 건강을 다쳐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건강과 관련한 노동의 질은 너무나 열악하다.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없는 노동력으로 부터 노동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8) 한국개발연구원의 조동호(曹東昊)는 1990년 북한의 경제활동인구(965만2천명) 중 과잉배치노동력 규모를 568만2천명 정도로 추정하여, 경제활동인구 대비 과잉노동력 규모가 58.9%에 이른다는 추정결과를 내놓았다. 사업장별 노동력 규모의 조사를 통해 보았을 때, 조동호의 추정결과 자체는 납득이 감을 거의 확인할 수 있었다. 초과과잉(Ueberbeschaeftigung ; over-employment)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고 하겠는데, 초과고용이란 현상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한국)에서는 유효수요(특히 축적수요)가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노동력 공급이 노동력 수요보다 작아 노동력 공급부족을 겪어서 나타나고, 소위 사회주의 경제(북한)에서는 신(新)투자가 경제규모의 확대(생산설비의 확대)로 연결되지 않아 노동력 공급과잉이 나타난다는 상반되는 의미를 갖는다. 재생산 연관관계가 균열현상(龜裂現象)을 보이고 생산기반이 사실상 와해돼 황폐화(荒廢化)된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특수한 구상에 의거하여 산업구조를 정비하여 통일경제를 향해 나아갈 때 겪어야 할 고통스런 홍역으로 실업의 규모를 적절히 윤곽지워 주고, 계속적인 심층적인 탐색 작업을 수행하게끔 계기를 주고 있는 조동호의 과잉배치 노동력 규모에 관한 추정결과를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지역이 늦든 빠르든 한국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흡수·통합되는(불가피한!) 전환과정에 우리가 진입할 때, 북한 공업지구들에서 대량으로 방출될 노동자들의 생존문제의 해결(곧 대량 실업문제의 해결)은 인력활용, 기능인력의 교육·훈련·재훈련·직장 중개 및 알선 등의 고전적인 노동정책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제 간의 공동작업(interdisziplinäre Anstrengungen ; interdisciplinary efforts)을 요구한다. 노동정책의 과제는 경제정책의 기본목표(① 성장·경기안정 ②고용보장 ③물가안정 ④국제경제균형)를 공동으로 추구하는 주무부처(主務部處)들의 재정정책, 산업정책, 화폐·금융정책, 사회복지정책, 지역(또는 국토)개발정책, 동력자원정책 등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수행돼야 할 것이다.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이 사용했던 정책수단들을- 만병통치약이나 최선의 처방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신중히 검토하여 적절히 원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고 본다.

자본주의적 발전에 특수한 국면(자본주의적 경제는 높은 생산력 발전으로 생산이 유효수요의 부족)이라는 문제에, 곧 과잉생산(Ueberproduktion)이라는 문제에 부딪쳐 상품이 순조롭게 판매되지 않아 기업이 이윤을 실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과 같이 상품으로서의 일정 규모의 노동력이 판매되지 않아 실업에 운명지워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자본주의는 상당한 정도의 자연실업률을 가져야 정상적으로 기능한다. 과거에서독에서도 한 때는 외국노동력을 대량 수입해야 했던 초과고용상태가 지속했다. 성장과 축적의 템포가 둔화되어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있었던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합했을 때 덩치가 더 큰 실업문제를 처리해야 했다. 부지(敷地)부족 외에도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우리는 작지 않은 규모의 외국 노동력을 수입해야 할 형편이다. 빠른 성장과 축적의 템포를 유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발전의 특수한 상황에 있는 우리가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루어 낼 수만 있다면, 소위 통일비용은 골치 아픈 문제로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산업연구원

의 서제일(徐濟一)이 제출한 연구보고서 제318호 : “남북한 경공업분야의 협력증진방안”은 산업정책과 노동 정책에서의 많은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9) 북한의 결핍경제(Mangelwirtschaft ; economy of shortage)에서는 노동자에게 “생활비”로 지불되는 화폐임금의 높고 낮음 그 자체는 -화폐가 교환수단으로, 계산단위로 그리고 가치보존수단으로서의 고유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단지 노동증서(Arbeitszertifikat)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지만, 생활비(“勞賃”)로 지급받는 화폐의 크기는 어떤 부류가 5계층별 식료품 배급제도의 어떤 공급대상에 속하게 되는가를 말해 준다. 북한의 중앙당 부부장급(차관급 또는 국장급)이 1주공급대상자로서 누리는 일상 생활수준은, 북한경제가 아직 명맥을 유지하던 시기인 1980년대 중반 생필품 공급만을 고려에 넣을 때, 한국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준에 가깝다고 하겠다.

(10) 노동생산성(인간 노동의 생산력에 대한 물적 현상)은 산업연관표(産業聯關表 : Input-Output Struktur)가 작성될 수 있다면 생산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현대의 정보처리능력(컴퓨터)으로 물적인 산업연관모형을 얼마든지 계량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이용되고 있는 생산수단이나 고정생산설비의 규모와 성격,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생산재의 규모와 성격을 필자는 관찰할 수 있었는데, 북한의 생산능력수준(또는 과학기술 발전수준)으로는 산업관련모형을 계량화하기에는 요원하다고 판단했다. 북한사회의 자연제어능력이 -군사과학기술을 제외하고- 얼마나 허무한가는 북한이 최근 자연의 맹위 앞에 굴복한데서 명백히 드러난다고 하겠다.

1965년부터 1993년까지의 연도별 경제활동인구 1인당 GNP의 변화추이를 편의상 노동생산성 변화추이로 보고 계산해 보았다. 1990년부터 노동생산성도 GNP(또는 GDP)와 함께 경향적으로 저하(低下)하면서 (즉 기술적·물질적 생산조건과 함께 노동자의 생활조건이 악화되면서), 노동력의 질도 떨어질 수 밖에 없음을 확인했다.

(11)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북한의 변화하는 총인구 또는 경제활동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사회적 분업·협업체제 하에서 내놓고 있는 경제실적을 한국은행 조사제2부의 추정결과에 의거하여 훑어 보았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남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와 관련, 북한의 경제·사회 실상에 관해 본문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했으므로 여기서는 장황한 설명은 유보하기로 한다.

(12) 북한의 노동력 구조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한 인구학적 기초자료는 어느 정도 수집됐다고 하겠으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미 사실상 대규모로 유희화돼 있는 노동력과, 남북 경제협력단계에서나 북한이 한국에 흡수·통합되는 시기에 나타날 엄청난 규모의 유희 노동력에 대한 활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량실업이 방생하여 세분화된 산업별 노동력 구조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는 물론 가능하다면 직종별 조사와 기술·기능별 노동력 구조나 기능·기술 인력의 훈련·양성 실태에 관한 조사도 진행함이 바람직스럽다고 하겠다. 본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기간에 한 두사람이 수행하기란 역부족을 느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에서 본 조사·연구 보고서는 본질적으로 서론을 통해 지적한 바 대로 조사·연구의 방법, 범위, 자료, 한계 등을 갖고 있으며, 이와 함께 두 명의 공동연구자에 의해 제Ⅲ장 노동력 구조의 몇 가지 부문에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는 도중에<sup>67)</sup> 연구기간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많은 논쟁점

---

67) 특히 <표 41>, <표 42>, <표 45>, <표 55>, <표 60>, <표 62>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본고는 마무리됨.

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행상태 그대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관한 토론은 앞으로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될 것이고, 그 토론의 결과에 따라 본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폐기·수정·보완·발전될 것이다.

